

사랑하는 _____ 님께 드립니다

한인연합감리교회 HOSCINNA

The best Christian are found in the worst of times.

믿음의 사람은 평온할 때 보다 어려울때 더 빛이 나는 사람입니다.



Dear Lord 주님,

From April 2022, 4월에는

Time 시간

Place 장소

에서

sitting before you 주님 앞에 앉아 eating your Word 주님의 말씀을 읽고 praying to you, 주님께 아뢰며 will have a fellowship with you. 주님과 교제하길 원합니다.

Name 이름

Could you not watch with me one hour?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one hour)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마 26:40)



기쁨의 언덕으로, 이렇게 활용하세요!

- Family BibleTime
 "기쁨의 언덕으로"를 통해 온가족이 매일 성경 읽는 시간(Family BibleTime)을 가지세요. 자녀 제자화는 부모에게 맡긴 사명입니다.
- ① 찬송가 묵상을 시작하기 전 오늘의 찬송을 부르십시오. 찬송가의 고백은 묵상을 위한 기도와 같습니다.
- ② **묵상본문** 오늘 묵상할 성경구절의 범위
- ③ 통독본문

 3년 1독을을 위한

 오늘 통독 범위
- 4 여는기도 먼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성령님께서 일하시도록 기도합니다.

화요일·Tue 11 2022 JANUARY

노아가 함을 저주하다

Noah cursed Ham

4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번제를 드린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생물을 말하지 않으시겠다는 언악을 노이와 맺으시며 그 증거로 무지게를 구름 사이에 보여주셨 습니다. 노아는 포도주를 마시고 벌거빛고 장든 자신의 모습을 목격 한 아들 '함'을 저주하여 형제들의 종이 되라고 저주하였습니다.

- 1 세393장(통447장) 오 신실하신 주
- 2 묵상·창세기 9:20-27
- 3 통독·창세기 9장
- 6 20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 ²¹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²²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 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체에게 알리매
 - ²⁴세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 음척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 더라
 - ²⁴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 을 악고
 - ²⁵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 의 종이 되기를 워하노라하고
 - ²⁶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 안은 셈의 종이 되고
 - ²⁷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 였더라

〈내지샘플〉

'기쁨의 언덕으로'를 완료할 경우,

- 3년에 자동 신구약 일독
- ・소그룹 모임 내용과 함께 1.000개의 적용 질문을 통해 말씀을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Noah, who worshipped God with burned offerings, was blessed by God to be fruitful and increase in number. God made a covenant with Noah to never again destroy living creatures with a flood and as proof showed the rainbow in the cloud. Noah was drunk with wine and fell asleep and his naked body was exposed to his son, Ham, whom Noah cursed to be slaves of his

月 Hymn 393 Great is Thy Faithfulness

tation · Genesis 9:20–27 Reading Plan · Genesis 9

- ²⁰ Noah began to be a man of the soil, and he planted a vine-
- ²¹ He drank of the wine and became drunk and lay uncovered in his tent.
- 22 And Ham, the father of Canaan, saw the nakedness of his father and told his two brothers outside.
- 23 Then Shem and Japheth took a garment, laid it on both their shoulders, and walked backward and covered the nakedness of their father. Their faces were turned backward, and they did not see their father's nakedness.
- 24 When Noah awoke from his wine and knew what his youngest son had done to him,
- 25 he said, "Cursed be Canaan; a servant of servants shall he be to his brothers.
- 26 He also said, "Blessed be the LORD, the God of Shem; and let Canaan be his servant.
- ²⁷ May God enlarge Japheth, and let him dwell in the tents of Shem, and let Canaan be his servant."



- ⑤ 맥잡기 본문의 구조와 주제를 자세히 소개하여 묵상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습니다.
- ⑤ 영한 대역(ESV/개역개정) 영어와 한글을 함께 읽음으로 본문의 뜻을 더욱 명확히 이해합니다.
- 2 말씀 속으로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많은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질문은 우리를 적극적으로 반응하게 하고, 주님 말씀에 관심을 갖게 합니다.
- 3 묵상 중에 만난 주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을 적고 그 의미를 깊히 묵상합니다.



기쁨의 언덕으로, 이렇게 활용하세요!

- ① 한 말씀 One Word 우리 영혼이 생명(life)을 누리고 예수님처럼 한 구절의 말씀의 검(sword)을 사용하여 마귀의 시험을 물리칠 수 있게 됩니다.
- 2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묵상한 말씀을 통해 주님이 주신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결단을 갖습니다.
-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미 전역에 흩어져있는 교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2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3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ayer for Churches & Pastors 앵커리지한안연합감리교회, 금원재(AK) 기쁨의 교회, 장준식(AL) 한인호회, 한인교회, 공원회를 위한 기도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새해의 소망 VS 믿음 Hope and Faith in the New Year

2022년 새해의 첫 날 입니다. 2020년도 부터 시작된 팬데믹이 사람들의 일상을 바꾸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새해의 첫 날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기대와 소망을 품게 합니다. "팬데믹이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포함하여, 가족들의 건강, 자녀들의 학업, 그리고 재정적 상황 등, 과거 보다는 나아지기를 기대하지요. 여러분도 새해를 향한 나름의 기대와 소망을 품으셨을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도 세상을 "말씀"으로 참조하시며 기대와 소망을 갖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언약이자 반드시 이루어질 명령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은 '업리, 뜻, 계확'이자, 사람들의 그것과는 분명 다름 것입니다. 새해 첫날, 많은 사람들은 나름의 기대와 소망을 중 품겠지만 만는 이들은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 -'업리, 뜻, 계획'을 먼저 찾고 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만응이란 창세기 1장1절 위에서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으며 이 만음 위에서 싫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구하지 않으면, 결국 인간의 만응이란 흔들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 위에 세워진 믿음으로 새해의 소망을 구하나는 하루가 되길 기도합니다.

Today is the first day of 2022. The pandemic which began in 2020 changed our lifestyle but the first day of the new year still brings us new expectations and hope. We expect a better future than the past and make wishes like the end of the pandemic coming soon, good health for family members, good conditions at children's schools, good financial conditions for family, etc. I can guess that you all have your own expectations and hopes for the new year. Did God also have His own expectations and hopes as He created the world with His "Word!"?

God's Word by itself is the promise and the command that would be fulfilled with certainty. Therefore, the expectations and hopes of God, that is, "his providence, will, and plan," would clearly be different from those of humans. On the first day of the new year, we may have a myriad of our own expectations and hopes, but as believers we must first seek and find the expectations and hopes of our Lord – "His providence, will and plan" – because our faith is built on Genesis 1:1. Unless we seek and find the expectations and hopes in life based on our belief in the Word, "God created the world," our faith will eventually be shaken. I pray that we begin the new year today by seeking hope in the new year based on our faith in the Word.

22

'기쁨의 언덕으로'를 완료할 경우,

- 3년에 자동 신구약 일독
- ・소그룹 모임 내용과 함께 1,000개의 적용 질문을 통해 말씀을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 ① 오늘의 감사 감사는 주님께 드리는 최고의 기도입니다. 작은 것부터 감사하는 습관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 (5) Journaling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합니다.
- Today's Mission Cleared Sticker 자녀들의 매일 말씀묵상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해 스티커를 활용해보세요
- ⑦ [기쁨의 언덕으로] Facebook / Youtube 바로가기 QR 코드를 스캔하시면 Facebook / Youtube 공식계정으로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성경일독/말씀묵상

혼자서도문제없다

▲ 시간을 정해 놓고 읽기

매일 아침 혹은 저녁 등 혼자 조용히 정기적으로 가질 수 있는 시간을 정하십시오. 시간을 고정하면 삶의 우선순위가 결정됩니다. 경건의 훈련은 정기적인 시간에 주님 께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 찬송, 기도

Pleasant Hill에는 그날 부를 찬송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찬송을 통해 마음 문을 열어보세요. 그리고 성경을 읽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깨달을 수 있도록 잠시 기 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감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시킵니다.

어떻게 읽을까?

☑ 성경을 읽으며. 단락이 끝날 때 그 단락의 내용을 문장으로 요약하거나 키워드 를 기록해 보세요. 핵심구절이나, 마음에 와닿는 구절에는 밑줄도 그어 보십시오. 각 구절에 대한 자신만의 기호를 만들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새롭게 깨달아지는 구절에 는 느낌표, 이해가 안 되는 구절에는 물음표, 마음에 와닿는 구절에는 전구 표시 등. 본문을 이렇게 한 번 읽고. 표시해 놓은 구절들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Journaling, 예수님과 함께

4 일기(Diary)를 쓸 때 주어는 나(I)입니다. 하지만 저널링(Journaling)의 주어는 예수님(Jesus)입니다. 나의 일상을 반성하고 기록하는 일기도 좋지만 예수님을 바라 보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 안에서 행복을 찾는 우리 여정을 기 록하는 저널링은 더 좋습니다.

'마무리는이렇게!

마무리는 이렇게! 자신의 One Verse를 카톡이나 SNS를 통해 가까운 친구들과 나누는 것도 성경 을 완독하고, 꾸준히 묵상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Family Pleasant Hill

기존의 가정예배가 부담스러운 가장 큰 이유는 아마도 설교일 것입니다. 그러나 설교 없이 말씀을 함께 읽고, 각자 받은 은혜의 말씀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Family Pleasant Hill"이 가능합니다. 이제 부모가 자녀를 제자화해야합니다!

- 언제가좋을까요? 온 가족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시간을 정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혹은 두세 번, 매 일도 가능합니다. 편안하게 가족들이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좋습니다. 저녁 시간 이후, 혹은 아침 식사 전도 좋습니다. 시간은 20-30분 이내가 좋습니다.
- 2 모임장소 Tip! 가족이 다 함께 둘러앉을 수 있는 편안한 장소이면서 어떤 미디어에도 방해받지 않을 수 있는 장소가 좋습니다. Family Pleasant Hill 전에는 절대 TV를 켜지 않도록 합니다.
- 3 인도자와 대표 기도자 정하기 인도는 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결정한 원칙을 따라 순서를 정합니다. 아빠〉엄마〉첫째〉둘째, 혹은 집에서 키가 큰 순서를 따라, 노래를 잘하는 순서를 따라 등. 마무리 기도는 인도자가 지정하는 사람이 하거나, 사회의 반대 순서, 혹은 모두가 돌아가며 마디기도를 해봅니다.
- * 소그룹교재를 가정예배 자료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 기쁨의 언덕으로 Facebook 페이지에 묵상을 위한 다양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www.facebook.com/kumcdevotion

2022 April

04

기쁨의 <mark>언덕으로</mark> 하나면 충분합니다.



| 이달의 주요일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SUNDAY | N | MONDAY | TUESDAY | | |
|--------|----|------------------------------------|---------|----------------------------------|--|
| | | | | | |
| 3 | 4 | 마가복음 Mark 3장 □ | 5 | 마가복음 Mark 4장 □ | |
| 10 | 11 | 마가복음 Mark 9장 □ | 12 | 마가복음 Mark 10장 🗆 | |
| 17 | 18 | 마가복음 Mark 16장 □ | 19 | 고린도전서 1 Corinthians 1-2장 □ | |
| 24 | 25 | 고린도전서 1 Corinthians 10−11장 □ | 26 | 고린도전서 1 Corinthians 12장 🗆 | |
| | | | | | |

| WEDNESDAY | | THURSDAY | | FRIDAY | | SATURDAY | |
|-----------|------------------------------------------|----------|----------------------------------|-------------------------------------------|---------------------------------------------------------------------------------|-----------------------------|--------------------------------------------------------------------------|
| | | | | 1 | 마기복음 Mark 1장 □ | 2 | 마가복음 Mark 2장 □ |
| 6 | 마가복음 Mark 5장 □ | 7 | 마가복음 Mark 6장 □ | 8 | 마가복음 Mark 7장 □ | 9 | 마가복음 Mark 8장 □ |
| 13 | 마가복음 Mark 11−12장 □ | 14 | 마가복음 Mark 13장 □ | 15 | 마가복음 Mark 14장 □ | 16 | 마가복음 Mark 15장 □ |
| 20 | 고린도전서 1 Corinthians 3-4장 \square | 21 | 고린도전서 1 Corinthians 5-6장 □ | 22 | 고린도전서 1 Corinthians 7장 □ | 23 | 고린도전서 1 Corinthians 8-9장 □ |
| 27 | 고린도전서 1 Corinthians 13장 ロ | 28 | 고린도전서 1 Corinthians 14장 ロ | 29 | 고린도전서 1 Corinthians 15장 ロ | 30 | 고린도전서 1 Corinthians 16장 ロ |
| | | | | 5 M T 1 6 7 8 13 14 1 20 21 2 | 33 March W T F S 2 3 4 5 3 9 10 11 12 5 16 17 18 19 2 23 24 25 26 9 30 31 | S M T 1 2 3 8 9 10 15 16 17 | 5 May W T F S 4 5 6 7 11 12 13 14 18 19 20 21 25 26 27 28 |



Humility

앤드류 머레이(Andrew Murray)

Why _왜 읽어야할까

주님과의 첫사랑이 회복되어지길 원한다면 먼저 예수님의 겸손을 구하라. 그 분 안에 있는깊은 겸손의 회복이 오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것이다.

What 어떤보배인가

책 소개 『겸손』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오랜 고민과 묵상이 만들어낸 고전으로 겸손에 대해 가르쳐 주는 것은 물론, 그리스도에게 겸손을 배우도록 한다. 아울러 겸손이 우리 삶과 신앙의 전체 영역에 영향을 준다는 것도 깨닫게 해주고 있다. 겸손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걸어가야 할 올바른 길을 발견할수 있을 것이다.

저자소개 앤드류머레이(Andrew Murray)

평생을 남아프리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준 스코틀랜드의 선교사 앤드류 머레이. 그는 240여 편의 주옥같은 글들을 남겼는데, 대부분이 그리스도인의 경건생활과 기도에 관한 것이다. 그가쓴 저서의 특징은 신앙의 핵심을 찾아서 일목요연하게 해설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모든 저서는 머레이 자신의 경건과 기도 생활 가운데에 직접 깨닫고 체험한 것을 담고 있기에 더욱 놀라운 깊이가 있으며, 동시에 우리의 신앙생활과 직결되어 있다.

Chapter 1 겸손: 피조물의 영광

"그들이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계 4:11).

하나님께서는 피조물과 함께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축복하심을 나눔으로써 그의 사랑과 지혜와 권능을 보이시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피조물과의 교통하심(communication)을 통해 자신의 선함과 영광을 그들에게 주기를 원하셨으며 그들 가운데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시길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교통(communication)은 그들이스스로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들만의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모든 만물 가운데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천지를 권세의 말씀으로 다스리십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안에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조물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임없는 완전한 의존적인 관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와 같은 동일한 능력으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을 붙들어주셔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창조의 때를 돌이켜 봐야 하며 우리는 하나님께 빚진 자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 아야 합니다. 현재의 그리고 영원한 우리의 삶의 목적이자 최고의 선 그리고 우리의 유일한 행복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써 하나님 능력과 선하심을 보이시도록 우리 자신을 빈 그릇(empty vessel)으로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은 한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며 자신의 절대적인 능력을 통해 우리에게 매 순간마다 생명을 주십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피조물의 첫 번째 의무이자 최고의 선 그리고 모든 도덕의 근원은 바로 겸손, 즉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entire dependence on God)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만함 또는 겸손하지 않는 것은 바로 죄와 악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타락한 천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불순종하여 천국의 빛으로부터 어둠으로 쫓겨난 때가 언제였습니까? 바로 자신에게 초점을 맞춘 즉 겸손을 상실한 때였습

니다. 아담과 이브 역시 겸손하지 않았기 때문에 뱀의 유혹 즉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선물 에덴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겸손을 잃은 교만이야말로 지옥의 문이자 저주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잃어버렸던 겸손의 회복 즉 하나님과 피조물의 원래의 관계로 돌아가는 것만이 우리의 구원(redemption)임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겸손을 우리에게 돌려주시고 그 겸손에 참여시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낮추사 인간의 모습으로 이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보는 그 겸손은 예수님이 천국에서가지고 계셨던 겸손이었습니다. 그 겸손이 예수님을 이 땅으로 보내셨고 예수님은 그 겸손을 이 땅으로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별 2:8) 하셨습니다. 그 겸손으로 인해 예수님의 국음이 가치롭게 되었고 그 겸손으로 인해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자신의 삶과 죽으심 그리고 예수님 자신의 성품(disposition)과 정신(spirit) 그 자체입니다. 그의 겸손은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의 기초 그리고 구원하심의 역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하신 겸손을 통해 인간의 몸을 입고 그 임무를 완수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겸손이 우리의 구원이고 예수님의 구원이 바로 우리의 겸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원래 상태로 완전히 회복(full restoration)되었다는 것을 우리의 삶에 만연한 겸손(all pervading humility)을 통해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과 이웃과의 올바른 관계를 통해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없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겸손은 은혜가 뿌리내리는 유일한 토양입니다. 겸손이 없다면 우리는 결함이 있을 수밖에 없으며 실패하게 됩니다. 겸손은 하나의 장점이기보다는 모든 것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왜나하면 겸손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나갈 수 있으며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4



이야기로 알아보는 성경

마가복음 Mark

이 책을 기록한 마가는 누구입니까?

초대 교부들은 이 책을 마가 요한이 기록했다고 인정했으며, 마가는 그의 성 (행 12:12,25) 이름은 요한(행 13:5,13)이며, 어머니는 마리아(행 12:12)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마가의 집은 부활과 승천 후 제자들이 한동안 머물렀으며(요 20:19; 행 1:13), 초대교회 교인들이 모였던(행 12:12) "다락방"이 있던 집으로 추정됩니다(마 26:18). 그는 바울과 바나바의 제1차 선교 여행에 함께했다가(행 13:5,13) 나중에 구브로 섬으로 바나바와 동행하였다(행 15:36-39)가 돌아와 후에는 베드로와 바울의 지도 아래 일한 것으로 보입니다(벧전 5:13; 골 4:10; 딤후 4:11).

소아시아 히에라폴리스의 감독 파피아스는 "마가는 베드로의 통역자가 되었다. 그래서 주께서 하신 말씀이나 일들은 꼭 순서대로는 아니지만 그가 기억하는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기록하였다. 그는 주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거나 그를 따라다시는 않았다. 그러나 그는 내가 말한 바와 같이 후에 베드로를 따라다녔는데, 베드로는 필요에 따라 곧잘 가르치기는 하였으나, 주의 말씀들을 정리하거나배열하는일은 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마가는 그 말씀들이 기억에 떠오르는 대로모든 사항들을 그대로 적었기 때문에 아무런실수를 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했으며,이 진술은 마가를 "나의 아들"(벧전 5:13)이라고 한 사도 베드로의 말과 조화를 이룹니다.

그렇다면 왜 기록했을까?

마가복음이 핍박과 순교에 관심을 가진 이유는 당시 로마교회가 당면하고 있던 고난과 관련이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에 살던 유대인들은 약탈에 가까운 로마의 세금정책으로 인해 괴로움을 당하고 있었으며, 교회는 유대교와 로마정부의 박해로 양쪽에서 공격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방인 교인들은 네로 황제의 박해로 인해 환란을 당하고 있어, 살아남은 자들 역시 언제 목숨을 잃을지 모르는 상황이었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배교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사역과 교훈을 직접 목격하고 체험했던 사도들이 하나 둘 사라짐에 따라 사도들은 내·외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교인들을 격려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록하여 남겨둘 필요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재림 예수를 자처하는 이 단자들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어,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에 대한 바른 기록이 절실했습니다. 마가는 안으로 잘못된 재림 사상과 거짓 선생들을 경계하고, 밖으로 유대교와 로마 정부의 핍박에 맞서 신앙을 지킬 수 있는 토대를 위해 최초의 복음서를 기록합니다.

이 책의 독자는 누구입니까?

마가복음의 다른 특징은 이방인 독자들을 위해 아람어와 로마시대 지중해 국가들의 공용어였던 라틴어 단어가 사용되고, 유대교 전통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면서도 구약 본문에 대한 직접적 언급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이 예수의 메시야됨을 입증하기 위해 구약을 자주 인용한 것과 달리 마가복음은 유대인들보다는 이방인 특히 로마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록된 것 같습니다. "복음"을 의미하는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아무 설명 없이 1장 1절에 바로 사용한 것도,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좋은 소식 – Good News"으로 이해하고 이를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에 대한 기록으로 처음 연결시킨 기록입니다.

다른 복음서와 마가복음은 어떻게 다른가?

마가복음 662절 가운데 609절이 마태복음(95%)에, 357절이 누가복음(65%)에 다시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복음서에서 찾아볼 수 없는 마가복음의 본문은

30절뿐입니다. 이런 면에서 마가복음은 초대교회 공동체에게 큰 영향을 미쳤고, 복음서들은 거의 마가복음의 순서를 따르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기록되고, 짧은 이 복음서는 예수님의 출생 및 생애를 전기적 방식이 아니라 시간과 주제에 따라 정리되어 있습니다. 장문의 설교와 다양한 비유들을 기록한 마태복음과 달리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행동과 사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비유는 서너 번 밖에 기록되지 않은 반면 예수님과 제자들은 식사할 틈도 없이 사역에 임했다는 사실이 두 번이나 언급될 정도로 주님의 사역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다이 해하기 어려울 만큼 짧지만 가장 믿을만한 역사적 기록을 제공하기에 '역사적 예수'를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책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대속제물이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은 '고난받는 종'입니다.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강조하는 마태복음이나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오신 구세주'로 설명된 누가 복음과 차별되는 마가복음의 특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의구조

- 하나님 나라 복음의 시작(1장)
- 하나님 나라 사역의 시작(2-5장)
- 제자들의 믿음(6-8장)
- 십자가수난예고(8:30-10장)
- 예루살렘의 논쟁과 종말(11-13장)
- 십자가 수난과 부활(14-16장)

참고도서

신약개론 (데이빗 드실바 / CLC 기독교문서선교회) 뉴인터프리터 스터디바이블 (애빙돈) 해설 관주 성경전서 (독일성서공회 / 대한기독교서회) 공동번역 성서해설 (일과 놀이)

고린도전서 1 Corinthians

고린도전서는 누가, 언제 쓴 편지인가?

이 편지는 바울이 2차 전도여행(A.D. 49-52년) 중 개척한 고린도교회 (Church of Corinth)에 3차 전도여행(A.D. 53-57년) 중 에베소에서 보낸 서한 중 남겨진 첫 번째 것입니다. 편지를 보내는 자신을 사도 바울(Paul, the Apostle)이라고 밝힌(고전 1:1, 16:21) 이 편지는 AD 55년 봄쯤 보내졌을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18개월 정도 사역한 후 AD 51년 경 예루살렘을 거쳐 안디옥 교회로 돌아갔다가(행 18:18-23), AD 53년 갈라디아를 거쳐 에베소(Ephesus) 사역 3년 차에 이 편지를 썼을 것입니다(고전 16:8).

고린도는 어떤 도시였는가?

BC 44년에 재건된 고린도는 로마인뿐만 아니라 헬라의 상인들과 유대인, 애 굽인, 수리아인 등 지중해 여러 지역의 사람들이 몰려드는 해상무역도시였습니다. 1세기 고린도는 인구 60만의 로마제국 네 번째 큰 도시였으며, 경제적으로 급성장한 다민족, 다문화 사회의 신흥도시였습니다. 고린도에는 그리스에서 가장 큰 광장 '아고라'가 중심부에 있었는데, 이 광장은 동서로 180m, 남북의 폭이 90m 장방형이며, 광장 주변에는 신전, 상점, 공공건물, 목욕탕 등의 대형 건축물이 있었으며, 항구로 이어지는 폭 7m의 포장도로가 있을 정도였습니다. 최근까지 당시 극장, 경기장, 연회장에서 사용되었던 주사위와 도박용 화폐, 각종 술병

과 술잔 등이 고린도 근처에서 발견되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술집과 도박장이 있 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적어도 12개의 각종 그리스의 신이나 로마 신을 섬기는 신전들이 있었고, 그중 고린도 산 위에 위치한 아프로디테 신전에는 천여 명의 여사제들이 종교의식을 명분으로 매춘을 일삼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시민들은 정치적 권위, 철학적 지식, 세련된 지성을 부러워하기 보다 물질적 부와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는 개인주의의 극치를 달리는 사람들이었기에 로마제국의 각종 우상숭배를 받아들인 종교 혼합주의, 그리고 극도로 타락된 성문화가 그 도시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도시에서 복음을 받아들였던 고린도교회의 성도들은 세속문화와 십자가 사이에서 있었을 것입니다.

고린도에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습니까?

고린도교회가 처음 세워진 것은 바울의 2차 전도여행 중인 AD 50년경입니다. 당시 아덴(Athens)을 떠나 고린도에 도착한 바울은 선교 전략상 중요한 지역이면서, 도덕적으로 문란하고 우상숭배로 가득한 이 도시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당시 바울은 글라우디오 황제(AD 41-54)의 칙령에 의해 로마에서 추방당한 유대인들 중 고린도에 와 있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게 되고, 그들과 장막만드는 일을 함께 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또한 후에는 마게도냐로 파견되었던디모데와 실라도 고린도 사역에 참여하게 됩니다(행 18:1-3).

바울의 초기 사역은 유대인과 유대교로 개종한 헬라인을 중심으로 유대인의 회당에서 안식일에 강론을 하면서 시작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반발로 나중에는 이방인 '디도 유스도'의 집으로 장소를 옮기게 되었고, 회당장 그리스보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세례를 베풀기도 하였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세워지는 계기가 되었으며, 바울은 고린도에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행 18:4-11; 고전 1:14-16).

이 편지가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요?

고린도교회에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국제적 교류가 많 았던 이 도시에 당연히 이방인들이 많았을 것이고, 바울은 그들이 성도가 되었을 때 그 신분을 기억하도록 합니다(고전 1:26-29). 당시 '고린도 사람처럼 산다'는 말은 〈돈만 알고 순간의 쾌락을 탐닉하며 사는 경박한 사람들〉을 칭하는 말이었습니다. 게다가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 사도들은 의도적으로 이런 방종과 오류를 옹호하고 부추기기도 했습니다. 이런 문화와 상황에 영향을 받은 성도들이 거룩한 신앙생활을 지속하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타락한 도시의 심장부에 세워진 고린도교회는 성도가 이 세상에서 믿음의 길을 꾸준하게 걸어가는 것이 쉽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예전 고린도의 모습이나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의 현실이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바울이 고린도교회에 보낸 권면과 책망의 메시지는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보게 합니다. 기독교는 죄를 피하거나 방치하는 은둔의 종교가 아닙니다. 오히려 십자가의 복음으로 죄의 현실을 타파하는 생명과 회복의 종교입니다.

고린도전서의 구조

- 서언과교회분열에 대하여(1-4장)
- 교회무질서에 대한충고(15-6장)
- 혼인에 대하여(17장)
- 우상제물에 대하여(18-10장)
- 예배와 영적은사에 대하여 (111-14장)
- 부활, 구제, 작별인사(115-16장)

참고도서

신약개론 (데이빗 드실바 / CLC 기독교문서선교회) 뉴인터프리터 스터디바이블 (애빙돈) 해설 관주 성경전서 (독일성서공회 / 대한기독교서회) 공동번역 성서해설 (일과 놀이)

ragg·Fri

2022 April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

Beginning of the Gospel of Jesus Christ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

마가는 단도직입적으로 기록 목적을 선포하며 본론으로 들어간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1절)." 세례 요한은 예수께서 이사야가 예언한 주님이시라는 것을 말하고, 예수께서는 세례와 시험을 받으신다. 이어서 예수께서는 복음을 선포하신 후첫 제자들을 부르시고 귀신을 내쫓고 병자들을 고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시작하신다.

♬ 새185장(통179장) 이 기쁜 소식을

_{묵상}·마가복음 1:1-8

통독·마가복음 1장

- 1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 2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 내노니 그가 네 길을 준비하리라
- 3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 4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의 세례를 전파하니
- 5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 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 6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 띠를 띠고 메뚜기 와 석청을 먹더라
- 7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 하겠노라
- 8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 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Reading Insight

Mark bluntly declares the purpose of writing by disclosing the main theme: "The beginning of the good news about Jesus the Messiah, the Son of God" (1:1). John the Baptist says that Jesus is the Lord prophesied by Isaiah. Jesus is baptized and tempted. Then, after proclaiming his gospel, Jesus calls his first disciples and begins the works of the kingdom of God, casting out demons and healing the sick.

[7] (Hymn185) Spread the Tidings'round

Meditation • Mark 1:1-8

Reading Plan • Mark 1

- ¹ The beginning of the gospel of Jesus Christ, the Son of God.
- ² As it is written in Isaiah the prophet,"Behold, I send my messenger before your face, who will prepare your way,
- 3 the voice of one crying in the wilderness: 'Prepare the way of the Lord, make his paths straight,'"
- ⁴ John appeared, baptizing in the wilderness and proclaiming a baptism of repentance for the forgiveness of sins.
- ⁵ And all the country of Judea and all Jerusalem were going out to him and were being baptized by him in the river Jordan, confessing their sins.
- ⁶ Now John was clothed with camel's hair and wore a leather belt around his waist and ate locusts and wild honey.
- ⁷ And he preached, saying, "After me comes he who is mightier than I, the strap of whose sandals I am not worthy to stoop down and untie.
- 8 I have baptized you with water, but he will baptize you with the Holy Spirit."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주님께서 오시는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3,5절)

What does it mean to prepare the way for the Lord to come and make straight paths for him? (1:3, 5)

말라기 이후 거의 4세기 동안 선지 자를 만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 들이 세례 요한의 예언을 들으며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5절) How did the people of Israel, who had not seen a prophet for nearly four centuries after Malachi, feel when they heard the prophecy of John the Baptist? (1:5)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라스베가스한인연합감리교회, 라은진(NV) 그리스도한인연합감리교회, 정창훈(NY) 한인총회, 한인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Gospel of Jesus Christ, Son of God

2, 3절에 보면,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말라기 3장 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를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 말은 세례 요한이 주께서 보내신 '그 사자'이며 곧 말라기가약속한 '엘리야(말 4:5)'라는 의미입니다. 이어서, 7절에서는 요한이 자신의 뒤에 오시는 분에 대해 소개하면서, "그 능력 많으신 분의 신발 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당시에는 전통적으로 종들이 주인의 신발 끈을 풀어주는 일을 했기 때문에, 자신은 주님 앞에서 천한 일조차 감당할 자격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복된 소식(good news)'입니다. 당시에 유대 지역에 회자되어 사용되던 '복음(1절)'은 '전쟁에서 승리한 소식'을 의미했습니다. 혹은 로마 황제가 등극하거나 왕위를 계승할 후손이 태어난 것을 두고 사용하는 말이었습니다. 특히 옥타비아누스 황제는 자신이 왕이 되어 전쟁이 그치고 마침내 평화가 왔다고 하며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참된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Mark 1:2–3 declares, "I will send my messenger ahead of you, who will prepare your way — "a voice of one calling in the wilderness, 'Prepare the way for the Lord, make straight paths for him.' "This is quoted from Malachi 3:1, "I will send my messenger, who will prepare the way before me. Then suddenly the Lord you are seeking will come to his temple: This is a quote from the messenger of the covenant, whom you desire, will come." It means that John the Baptist was the "messenger" sent by the Lord, and that he was the "Elijah" promised by Malachi (Mal. 4:5).

Then, in verse 7, John introduces the One who is coming after him, saying, "I am not worthy to untie the shoelaces of the mighty One." At that time, he was confessing that he was not worthy to perform even a low task before the Lord, because servants traditionally worked to untie their master's shoelaces. The gospel is "news of blessing" and "good news." The term "gospel," which was proclaimed and adopted in Judea at that time, meant "the news of victory in war." It was also a term used to refer to the rise of a Roman emperor or the birth of descendants who would inherit the throne. In particular, the Emperor Octavian declared "Good News" when he became king and when the war had ended and peace had finally arrived. However, the true Good News is the "Gospel of Jesus Christ, the Son of God."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0

2

3

|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
|---------------------------|
| 처 기도 First Prayer |

묵상 Reading & QT

한 말씀 One Word

단숨기도 One Prayer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Sticker



ERSI-Sat

2022 April

나를 따라 나서겠느냐

Will you follow me?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

2장부터는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이 출현한다. 예수께서 중풍병 환자를 고친일,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려 음식을 먹은 일을 두고 반대하는 자들이 나타난다. 이어서 금식 논쟁과 안식일에 대한 논쟁이 이어진다.

♬ 새349장(통387장)나는 예수 따라가는

묵상·마가복음 2:13-17

통독·마가복음 2장

- 13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시매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 14 또 지나가시다가 알패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 15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 16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 17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 는 의사가 쓸 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 데 있느니라 나 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Reading Insight ·····

Those who oppose Jesus appear in Chapter 2. People protesting about Jesus healing a paralytic and eating food with tax collectors and sinners turn up. This is followed by the debates of fasting and the Sabbath.

[(Hymn349) Am I a Soldier of the Cross

Meditation • Mark 2:13-17

Reading Plan • Mark 2

- 13 He went out again beside the sea, and all the crowd was coming to him, and he was teaching them.
- 14 And as he passed by, he saw Levi the son of Alphaeus sitting at the tax booth, and he said to him, "Follow me." And he rose and followed him.
- 15 And as he reclined at table in his house, many tax collectors and sinners were reclining with Jesus and his disciples, for there were many who followed him.
- 16 And the scribes of the Pharisees, when they saw that he was eating with sinners and tax collectors, said to his disciples, "Why does he eat with tax collectors and sinners?"
- 17 And when Jesus heard it, he said to them, "Those who are well have no need of a physician, but those who are sick. I came not to call the righteous, but sinners."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예수님께서 레위를 어떻게 부르셨고, 레위는 그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했나요? (14절)

How did Jesus call Levi, and how did Levi respond to that call? (2:14)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어 울리신 이유는 무엇이었고 무엇을 기대하셨을까요? (16, 17절) Why was Jesus associated with tax collectors and sinners, and what did he expect? (2:16, 17)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뉴드림교회, 김남석(NY) 뉴욕감리교회, 강원근(NY) 성도의 가정, 건강, 자녀를 위한 기도

나를 따라 나서라 Follow me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알패오의 아들인 레위가 갈릴리 호수 근처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는 다메섹에서 가버나움을 지나 이집트로 향하는 주요 도로에서 당시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이었던 혜롯 안디바를 위해 세금 거두는 일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들었고, "나를 따라오너라"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를 따라갔다"라고 했습니다. 레위가 예수님을 바로 따라나셨다는 말은, '세관'이라는 금싸라기 땅과 '세리'라는 잘 나가던 직업을 버려두고 따라나셨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실 때에도, 빌립을 부르실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나선다'는 말은, 현재 자신이 머물고 있던 자리를 '떠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주님은 제자됨의 반응으로 지금 있는 '자리를 떠나' 주님을 '따라나서는지'를 보셨습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작 따라나서 기를 주저하는 것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거나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삶보다 '땅의 보물'을 지키며 살려 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따라왔던 '많은 죄인들과 세리들'도 있었다고 했습니다(15절). 그들 중에는 자신의 자리를 떠나 삶의 중심을 예수님께로 옮기지 않은 자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저 호기심에 소문을 따라 '떠났다 돌아왔다'를 반복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나를 따라나서라'라고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레위처럼 또 아브라함처럼,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삶으로 즐거이 따라나서기를 바랍니다.

As Jesus was walking, he saw Levi, the son of Alphaeus, sitting at a customs office near the Sea of Galilee. Levi worked as a tax collector for Herod Antipas, then tetrarch of Galilee, on the main road from Damascus through Capernaum to Egypt. He heard rumors about Jesus, and when Jesus said, "Follow me," he obeyed right away. Following Jesus right away means that he left behind his lucrative job of being a tax collector and followed him. Whenever Jesus called his disciples, he said, "Follow me." He did the same when he called Peter, Andrew and Philip. To "follow" the Lord also means to "leave" from where you are now.

As a response to the calling, the Lord saw some "leaving his trade" and "following" the Lord. If they say they believe in the Lord, but are hesitant to follow Him, it may be because they do not fully trust in the Lord or because they have a greater inclination to protect and live the "treasures of the earth" than the life the Lord leads. There were also "many sinners and tax collectors" who followed Jesus (2:15). There must have been many among them who did not leave their status quo and shift the center of their lives to Jesus. There were also people who repeatedly "left and returned" just out of curiosity. I hope that today, we will hear the voice calling us, "Follow me," and happily follow the life that the Lord leads, like Levi and Abraham.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 0
- 2
- 3

-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 첫기도 Firs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Sticker





APRIL 03 주일 말씀 요약 Sunday Sermon Note

| 제 목 Title | |
|----------------------------|--|
| | |
| 성경본문 Scripture | |
| 주요내용 Outline | |
| 하나님의 음 성 God's Voice | |

주일 말씀이나 더 깊이 묵상할 내용을 기록합니다.

| 나의 결단/적용 My Heart / Application | |
|---------------------------------|---|
| | |
| | |
| |) |
| 나의 기도제목 My Prayers | |
| | |
| | |
| | |
| 교회의 기도제목 Prayers of My Church | |
| | |
| | |
| |) |
| | |
| 한 주간의 일정 This Week | |
| | |
| | |
| |) |

가장 감격스러운 일

김영봉목사(와싱톤사귐의교회, VA)

오늘은 Youth의 네 학생(Josiah Byrd, Chris Byun, Timothy Jang, Ethan Lee)을 위한 세례 및 입교 예식을 위해 교회의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립니다. 우리가 속한 연합감리교회는 유아세례를 행합니다. 자식으로서는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없다 해도 부모의 믿음에 근거하여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아세례는 본인이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비로소 온전해집니다. 그것을 영어로 confirmation이라고 하고. 우리 말로는 "입교" 혹은 "견신례"라고 부릅니다.

세례 예식은 세 가지 방식으로 행해집니다. 몸을 물에 완전히 잠그는 방식(baptism by immersion)과 물을 머리에 뿌리는 방식(baptism by aspersion) 그리고 물을 머리에 붓는 방식(baptism by affusion)이 그것입니다. 성수를 머리에 뿌리는 방식은 주로 가톨릭교회에서 행하고, 개신교회에서는 물을 머리에 붓는 방식으로 행합니다. 침례교회에서는 몸을 물에 완전히 잠그는 방식만이 유효한 세례라고 주장하지만, 대다수의 교파에서는 세 방식 모두 유효하다고 믿습니다. 연합감리교회는 머리에 물을 묻히는 방식으로 세례를 행하지만, 세례자가 원할 경우 다른 방식으로 행하기도 합니다.

오늘의 세례는 몸을 물에 완전히 담그는 방식으로 행할 것입니다. 세례 받는 사람이 그 방식으로 행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입교하는 이들에게는 세례를 행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세례는 한 번으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다만, 어릴 때 받았던 세례를 기억하도록 세례물에 손을 담그고 기도하게 됩니다. 교우 여러분께서는 이들이 예식을 행할 때 성령께서 그들의 영혼을 만지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시절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평생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세례를 받아 거듭나게 하는 일은 교회가 행해야할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것은 한 개인으로 보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일이고, 그의 삶이 변화되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게 하는 일입니다. 그 일을 위해 앞으로 저는 세례 받는 이들 한 분 한 분을 일대일로 만나 복음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지려합니다. 처음 단계에서 믿음의 기초를 제대로 다져야 잘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제와 선교는 간접적인 전도라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전도는 우리 각자가 해야 할 직접적인 선교입니다. 전도는 복음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해야 할 일입니다. 교 회를 성장시키자는 뜻이 아닙니다. 교세를 확장하자는 뜻도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 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알게 하자는 것이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게 하 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열심으로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분 한 분을 붙들 고 복음의 기초 위에 세우기 위해 저의 시각과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나의 작은 기도와 희생으로 누군가가 하나님을 만나 삶의 변화를 받는 모습을 보는 것만큼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일은 없습니다. 그 기쁨을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도록 힘써 전도하십시다. 감사합니다.

^{вае} Моп

2022 April

열두 제자를 뽑으시다

The twelve disciples were chosen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심으로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께서는 생명을 회복시키시고, 동시에 적대자들의 마음에 품은 완악한 마음을 드러 내신다. 그것은 곧 모의하여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었다(6절). 이어서 예수께서는 열두 제자를 세우시고(13-19절) 가족들로부터 오해를 받으신다(21절).

♬ 새324장(통360장) 예수 나를 오라 하네

묵상·마가복음 3:13−19

통독·마가복음 3장

- 13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 온지라
- 14 이에 열둘을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 15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 16 이 열둘을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 17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 셨으며
- 18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매와 마태와 도마와 알패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대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 19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Reading Insight

By healing the sick on the Sabbath, Jesus, the Lord of the Sabbath, restored life and at the same time revealed the hardened heart of his adversaries. There was a conspiracy to kill Jesus (3:6). Jesus then raised twelve disciples (3:13–19) and was misunderstood by his family (3:21).

(Hymn324) I Can Hear My Savior Calling

Meditation • Mark 3:13-19

Reading Plan · Mark 3

- 13 And he went up on the mountain and called to him those whom he desired, and they came to him.
- 14 And he appointed twelve (whom he also named apostles) so that they might be with him and he might send them out to preach
- 15 and have authority to cast out demons.
- 16 He appointed the twelve: Simon (to whom he gave the name Peter);
- 17 James the son of Zebedee and John the brother of James (to whom he gave the name Boanerges, that is, Sons of Thunder);
- 18 Andrew, and Philip, and Bartholomew, and Matthew, and Thomas, and James the son of Alphaeus, and Thaddaeus, and Simon the Cananaean,
- 19 and Judas Iscariot, who betrayed him.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예수님께서 제자 열둘을 불러 따로 세우신 이유는 무엇을 하게 하시기 위함이었나요? (14, 15절) Why did Jesus call the twelve disciples and set them apart? (3:14, 15)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뽑아 세우실 때에 가룟 유다도 부르셨는데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18, 19절)

When Jesus chose the twelve disciples, he also called Judas Iscariot. What was in Jesus' heart? (3:18, 19)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뉴욕그레잇넥교회, 양민석(NY) 뉴욕남산교회, 이요섭(NY) 교회와 예배를 위한 기도

섭리와 은혜의 부르심 The Calling of Providence and Grace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셨다고 했습니다(13절). 여기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 이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들'입니다. 하 나님이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신 데서 우리는 부르심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부르심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예수 님은 '제자가 되기 원하는 자'를 부르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심은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둘째로, 제자들이 부름을 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 혜'였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만한 어떤 자격이 있어서 된 것 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갈릴리 어부 출신으로 신분이 낮고 학 문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또 재산이 많거나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자 들도 아니었습니다.

세상에서는 보통 제자를 부를 때 자질을 검토하고 일정한 수준의 그 무엇을 요구합니다. 플라톤의 아카데미아 입구에는 "기하학을 모르는 자는 들어오지 말라"라는 팻말을 써 붙여 놓았었다고 합니다. 기하학을 모르는 자는 플라톤의 제자가 될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리고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 제자들을 부르 시고 세우셔서 그 영광스러운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 모양으로 부름받은 것 또한 하나님의 완전하신 섭리이며 동시에 철저한 은혜임을 기억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Jesus "called to him those he wanted" (3:13). Here, "those he wanted" means "those whom God wants." We can think of the meaning of the calling in terms of selection of people whom God made. First, the calling is the absolute sovereignty of God. Jesus did not call "those who want to become disciples," but "those whom God wants." The calling is done according to the will of God, not by the will of man. Second, it was through "the total grace of God" that the disciples were called. It was not because they had any qualifications to become disciples of Jesus. Most of them were fishermen from Galilee and were of low rank and uneducated. They were not wealthy and did not have social status.

In the world, when we call a disciple, we usually examine their qualification and demand skill of a certain level. It is said that a sign was posted at the entrance to Plato's Academia saying, "Let no one ignorant of geometry enter." Those who did not know geometry did not deserve to be Plato's pupils. However, in the providence of God and thoroughly by the grace of God, Jesus called and raised up his disciples to perform the glorious work. I hope that we will live a life that fulfills the will of the Lord, remembering that today we are called in various ways through God's grace of perfect providence.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0

2

3

|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 |
|---------------------------|--|
| 첫기도 First Prayer | |
| 묵상 Reading & QT | |
| 한 말씀 One Word | |
| 다소기도 One Prayer |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Sticker



2022 April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다

This is what the kingdom of God is like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4장에서는 말씀에 대한 네 가지 비유를 말씀하신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등잔대 위에 등경 비유, 자라나는 씨앗의 비유, 겨자씨 비유이 다. 그리고 바다에서 풍랑을 잠잠케 하심으로 예수께서 어떤 분이신 가를 보이신다.

♬ 새370장(통455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묵상·마가복음 4:26-32

통독·마가복음 4장

26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 과 같으니

27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28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29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30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31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32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 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Reading Insight «

Chapter 4 gives four parables to illustrate what the Word is: the parable of the sower, the parable of the lampstand, the parable of the growing seed, and the parable of the mustard seed. By calming the storm in the sea, Jesus shows who he is.

(Hymn370) The Trusting Heart to Jesus Clings

Meditation • Mark 4:26-32

Reading Plan • Mark 4

- **26** And he said, "The kingdom of God is as if a man should scatter seed on the ground.
- **27** He sleeps and rises night and day, and the seed sprouts and grows; he knows not how.
- 28 The earth produces by itself, first the blade, then the ear, then the full grain in the ear.
- 29 But when the grain is ripe, at once he puts in the sickle, because the harvest has come."
- 30 And he said, "With what can we compare the kingdom of God, or what parable shall we use for it?
- 31 It is like a grain of mustard seed, which, when sown on the ground, is the smallest of all the seeds on earth,
- 32 yet when it is sown it grows up and becomes larger than all the garden plants and puts out large branches, so that the birds of the air can make nests in its shade."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말씀의 씨앗이 자라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비유가 내 삶에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요? (26,27절)

How is the parable of the Growing Seed of bearing the fruit of the kingdom of God being shown in your life? (4:26, 27)

최근 내 마음 밭에 떨어진 말씀에 대하여 겨자씨 같은 작은 순종으로 심었던 때는 언제였나요? (31절) When was the last time you planted the Word that fell in the field of your heart as a small act of obedience like a mustard seed? (4:31)

God Moment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뉴욕만백성한인연합감리교회, 이종범(NY) 뉴욕반석교회, 김동규(NY) 목회자를 위한 기도

일단 심어 놓으면 자랍니다 Once planted, it will grow

저희 집 뒤뜰에 작은 정원이 있는데 언젠가 성도님이 가져다주신 깻잎 모종을 옮겨 심어 놓았습니다. 처음엔 겨우 주먹만 한 작은 모종이었습니다. 그동안 식물을 제대로 키워본 경험이 없어서 잘 살 수 있을까 하는 반신반의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처음 며칠간 물을 몇 번 준 것을 제외하고는 해 준 것이 없었는데 몇 주 정도 지나서 들여다보니, 그 작았던 모종이 어느새 제 무릎만치 자라 있었고, 손바닥만 한 깻잎들도꽤 많이 열려서 '수확'이란 것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자 거기에서 씨가 날려서 여기저기에 깻잎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모종을 심어 놓고서도 한동한 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자는 동안에 도, 집을 비운 동안에도 땅이 영양분을 공급하고 하늘에서 비가 내려 튼실하게 키워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27절의 말씀과 같았습니다.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오늘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 밭에 떨어뜨려주신 말씀은 씨앗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믿음으로 겨자씨만 한 씨앗을 심는 일과 같습니다. 순종으로 심은 그 씨앗이 밤낮자고 일어나는 사이에 하나님 나라의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I have a small garden in the backyard of my house, and one day I transplanted a seedling of perilla leaves that a parishioner brought me. At first, it was a small seedling barely the size of a fist. I had no experience in properly growing plants, so I was skeptical as to whether it could survive. During the first few days, nothing was done except watering a few times, but after a few weeks, when I looked outside, the small seedling had grown to the height of my knee. There were quite a few sesame leaves the size of my palm, so I "harvested" them. As time passed, the seeds flew from there, and perilla leaves were growing here and there.

Even after planting the seedling, I forgot about it for a while. However, while I was sleeping and away from home, the land that provided nutrients and rain from the sky was making it stronger. It was like the words of verse 27 today. "Night and day, whether he sleeps or gets up, the seed sprouts and grows, though he does not know how." The Word that is dropped into the field of our hearts through the Holy Spirit today is the seed. Obeying that Word is like planting a mustard seed in your faith. The seed sown in obedience will bear the beautiful and abundant fruit of the kingdom of God while you are sleeping and waking up day and night.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0

2

| 눈을 뜬 첫 시간 | |
|-------------|---|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 ?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Sticker





FASSI-Wed

2022 April

무덤 사이에 사는 사람

A man who lives among the graves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

예수께서는 풍랑이 이는 바다를 건너(4장) 바다 건너편 거라사 지방 으로 가서 귀신 들린 자를 고쳐 주신 후 배척을 받으신다. 이어 야이 로의 딸과 혈루증을 앓는 여인을 고쳐주신다.

♬ 새500장(통258장)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묵상·마가복음 5:1-10

통독·마가복음 5장

- 1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 2배에서 나오시매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 3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 4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 이 없는지라
- 5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 6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 7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 8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 9 이에 물으시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 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 10자기를 그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Reading Insight -

Jesus crosses the stormy sea (Chapter 4) to the region of Gerasenes, where he is rejected after healing a man possessed by demons. He then heals Jairus' daughter and a woman suffering from a hemorrhage.

[7] (Hymn500) Throw out the Life Line

Meditation • Mark 5:1-10

Reading Plan • Mark 5

- ¹ They came to the other side of the sea, to the country of the Gerasenes.
- ² And when Jesus had stepped out of the boat, immediately there met him out of the tombs a man with an unclean spirit.
- ³ He lived among the tombs. And no one could bind him anymore, not even with a chain,
- 4 for he had often been bound with shackles and chains, but he wrenched the chains apart, and he broke the shackles in pieces. No one had the strength to subdue him.
- ⁵ Night and day among the tombs and on the mountains he was always crying out and cutting himself with stones.
- 6 And when he saw Jesus from afar, he ran and fell down before him
- ⁷ And crying out with a loud voice, he said, "What have you to do with me, Jesus, Son of the Most High God? I adjure you by God, do not torment me."
- 8 For he was saying to him, "Come out of the man, you unclean spirit!"
- **9** And Jesus asked him, "What is your name?" He replied, "My name is Legion, for we are many."
- 10 And he begged him earnestly not to send them out of the country.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바다의 풍랑을 헤치고(4장) 바다 건너편에 거라사 지방(이방인 지역)에 있는 귀신 들린 자를 찾아가 시는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셨 을까요? (1절)

How might the Lord feel when he went through a storm in the sea (Chapter 4) and visited the demon-possessed man in the Gerasa region (the Gentile region) across the sea? (5:1)

무덤 사이에 살던 사람의 여러 모습 중 오늘 나의 모습과 닮은 점이 있다면 무엇일가요? (3-5절)

Among the many aspects of the person who lived among the tombs, if there is one thing that resembles you today, what would it be? (5:3-5)

God Moment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뉴욕베델교회, 진세관(NY) 뉴욕성서교회, 김종일(NY) 국내외 선교사를 위한 기도

군대 보다도 크신 예수님 Jesus greater than Legion

예수님께서는 먼저 유대인들에게 보냄을 받으셨지만, 사마리아와 거라사 지방 등 당시에 배척받는 이방인들의 지역을 찾아가셔서도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거라사 지방은 이방인들의 땅이었습니다. 배를 타고 일부러 바다를 건너가야 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분명한 목적을가지고 그곳으로 가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귀신 들린 사람을만나는데, 그는 '무덤' 사이에 살고 있었다고 했습니다(3절). '무덤' 곧 '죽음'의 그늘에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그는 아무도 제어할 수 없고, 고랑과 쇠사슬로도 묶어둘 수 없을 만큼 강력했다고 했습니다. '마귀의 강한 세력'에 통제를 당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그는 늘소리를 지르며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다"(5절)고 했습니다. 하나님의형상대로 지음 받은 몸을 훼손하고 일그러뜨리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죽음의 그늘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하는 마귀의 강력한 힘에 사로잡혀 있었으며, 그 힘이 얼마나 강력했는지는 '군대'(9절)라는 귀신의 이름에서도 나타납니다. 로마 여단의 병력 규모는 삼천 명에서 많게는 육천 명에 이르렀습니다. 그만큼 강력한 세력을 가진 귀신과 마귀의 세력이라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 앞에서 두려워 떨었고(7절), 주님의 명령을 따라 그 이방인에게서 쫓겨났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며, 그 권능과 권세가 얼마나 크신 분인지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Although Jesus was sent to the Jews first, he preached the gospel even in the areas of Gentiles, who were rejected by Jews at that time, such as Samaria and Gerasa. Gerasa was the land of the Gentiles where Jesus had to purposefully cross the sea to reach. He went there with a clear purpose. There he met a man possessed by demons, who had been living among "the tombs" (5:3). He was held captive under the shadow of "tombs" or "death." He was so powerful that no one could empower him, and that furrows and chains could not bind him. It was because he was under the control of "the strong power of the devil." "He cried out and cut himself with stones" (5:5).

He was mutilating and distorting the body that was created in the image of God. He was possessed by the mighty power of the devil who undermined the image of God by the shadow of death, and how powerful that strength was is also shown in the name of the demon "Legion" (5:9). The term "legion" also refers to the size of the Roman brigades ranging from three thousand to six thousand men. Even demons with such dominant powers trembled in fear at the name of Jesus (5:7) and were cast out of him according to the Lord's command. Here, it is revealed who Jesus is and how mighty his power and authority a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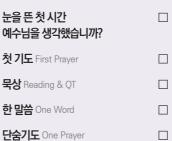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0

2

| 눈을 뜬 첫 시간 | |
|-------------|---|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 ?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Sticker





 $2022 \, \mathrm{April}$

예수께서 배척을 받으시다

Jesus is rejected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

예수께서는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하셨고 사람들의 믿지 않음으로 인해 아무 기적도 행하지 않으셨다. 이어 열두 제자를 파송하셨다.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오천 명을 먹이시고 바다 위를 걸으신 이야기가 이어진다.

♬ 새351장(통389장)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묵상·마가복음 6:1−6

통독·마가복음 6장

- 1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 2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 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 찌됨이냐
- 3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 4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 5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 6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Reading Insight «

Jesus was not welcomed in his hometown and performed no miracles because of people's unbelief. Then he sent out the twelve disciples. The story of the death of John the Baptist and the story of feeding the 5,000 and walking on the sea completes the chapter.

7 (Hymn351) Onward, Christian Soldiers

Meditation • Mark 6:1-6

Reading Plan • Mark 6

- ¹ He went away from there and came to his hometown, and his disciples followed him.
- ² And on the Sabbath he began to teach in the synagogue, and many who heard him were astonished, saying, "Where did this man get these things? What is the wisdom given to him? How are such mighty works done by his hands?
- ³ Is not this the carpenter, the son of Mary and brother of James and Joses and Judas and Simon? And are not his sisters here with us?" And they took offense at him.
- ⁴ And Jesus said to them, "A prophet is not without honor, except in his hometown and among his relatives and in his own household."
- ⁵ And he could do no mighty work there, except that he laid his hands on a few sick people and healed them.
- ⁶ And he marveled because of their unbelief. And he went about among the villages teaching.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고향 사람 들은 그 호기심과 의문을 무엇으로 바꾸었나요? (2-3절) How did the people of the hometown who heard Jesus'

hometown who heard Jesus' teachings express their curiosity and doubts? (6:2–3)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기적을 거의 행하시지 못하신 이유가 무엇이라 고 했나요? (5-6절)

Why did Jesus perform only a few miracles in his hometown? (6:5–6)

God Moment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뉴욕주나목교회, 문정웅(NY) 뉴욕한인교회, 이용보(NY) 교단총회와 리더를 위한 기도

전능한 예수님, 무능한 예수님

Almighty Jesus, Incompetent Jesus

예수님은 전능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하여 크신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예수님은 고향에서는 아무 능력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5절). 고향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무능해 보이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전능하신 분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무능하신 분으로 나타납니다. 그 차이는 '믿음'에 있습니다. 전능하신 예수님을 모시고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바라보고 이해하려 들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겠다고 말합니다. 마치,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과 같은 태도입니다. 그러나 만일, 인간적으로 예수님의 행하시는 일들이 모두 이해가 된다 면 그것은 더 이상 기적일 수 없고 신비일 수 없으며 하나님의 속성이 남아 있지 않는 것이지요. 즉,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역설을 인정해야 합니다. 엄밀 히 말하면, 그것은 믿는 자의 겸손한 자세이며 우리의 한계, 우리가 딛고 있는 땅의 자리를 인정하며 하늘의 하나님을 찾는 바른 자세일 것입니 다. 그리고 그 믿음의 자세 위에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것이지요. 겸 손히 믿는 자가 되어 은혜의 길을 닦읍시다.

Jesus is omnipotent. Jesus performed his great works through his disciples. The power of Jesus is the same yesterday, today, and forever. But strangely, Jesus did nothing in his hometown (6:5). In the eyes of the people of his hometown, Jesus must have looked incompetent. Jesus appeared omnipotent to some and incompetent to others. The difference lies in "belief." Even with Almighty Jesus, there were people who did not experience the power of God. It is because they tried to see and understand Jesus as a human being. Some people say they don't believe in Jesus because it doesn't make human sense. It is like the attitude of the people of Jesus' hometown.

However, if all the works of Jesus are humanly understood, it can no longer be a miracle or a mystery, because God's attributes are left out. In other words, we must acknowledge the paradox that we can believe in God even though we cannot fully understand Him. Strictly speaking, it is the humble attitude for the believers to seek the God of heaven by acknowledging our limitations and restrictions. The grace of the Lord is poured out on such a humble attitude of faith. Let us be humble believers and pave the way for God's gra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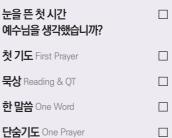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0

2

| 눈을 뜬 첫 시간 |
|--------------|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Sticker





are of the second secon

2022 April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

The faith of the Syrian Phoenician woman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

7장의 전반부에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학자들과 더불어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는 일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에 대해 말씀하시고, 후반부에서는 수로보니게 여인의 귀신들린 딸을 고치시고. 갈릴리에서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고치신다.

♬ 새310장(통4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

묵상·마가복음 7:24-30

통독·마가복음 7장

24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25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26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 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27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28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29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30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 이 나갔더라

Reading Insight «

In the early part of Chapter 7 of the Book of Mark Jesus talked about the Pharisees, the teachers of the law, holding to the tradition of the elders and obeying the commands of God. In the latter part of Chapter 7, Jesus healed the daughter of the Syrian Phoenician woman who was possessed by an evil spirit and healed a man who was deaf and could hardly speak.

7 (Hymn310) I Know not Why God's Wondrous Grace

Meditation • Mark 7:24-30

Reading Plan • Mark 7

- **24** And from there he arose and went away to the region of Tyre and Sidon. And he entered a house and did not want anyone to know, yet he could not be hidden.
- 25 But immediately a woman whose little daughter had an unclean spirit heard of him and came and fell down at his feet
- **26** Now the woman was a Gentile, a Syrophoenician by birth. And she begged him to cast the demon out of her daughter.
- **27** And he said to her, "Let the children be fed first, for it is not right to take the children's bread and throw it to the dogs."
- 28 But she answered him, "Yes, Lord; yet even the dogs under the table eat the children's crumbs."
- 29 And he said to her, "For this statement you may go your way; the demon has left your daughter."
- **30** And she went home and found the child lying in bed and the demon gone.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여인이 딸에게서 귀신을 내쫒아 주기를 위해 어떻게 간청했나요? (25-26절)

How did the woman whose daughter was possessed by the evil spirit entreat Jesus to chase the demon away? (7:25–26)

예수님께서 여인의 딸에게서 귀신을 내쫓아 주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29절)

(2) Why did Jesus make the demon leave the daughter of the woman? (7:29)

God Moment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로체스터제일교회, 이진국(NY) 로체스터한인연합감리교회, 김동기(NY) 한인총회, 한인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

신분이 아니라 믿음이 이깁니다

It is not the status but faith that wins

7장은 전반부와 후반부 내용이 서로 대조를 이루면서 하나의 강력한 메세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반부에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고수하기 위해 하나님의 계명을 가볍게 여기는 것을 두고 예수님께 책망을 받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이방인들의 땅, 두로(24절)로 이동하셔서 '보란 듯이' 한 이방인 여인을 만나 그녀의 귀신들린 딸을 고쳐주십니다. 당시에 존경받은 유대인 선생들은 여성,특히 이방인 여성과는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배경 위에서 예수님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27절) 고 하시며 여인을 시험하셨으나, 여인은 자신의 신분과 처지를 상관하지 않고 예수님께 엎드려 간청함으로 은혜를 입게 됩니다.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유대인들은 교만한 태도로 인하여 책망을 받았으나,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었던 한 이방인 여인은 간청하는 믿음으로 인해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그 '간청하는 믿음'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처지를 완전히 뒤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Chapter 7 delivers a strong message through contrast between the earlier and latter parts of the chapter. In the earlier part, the Pharisees and the teachers (Jewish) of the law were rebuked by Jesus because they treated the commands of God lightly in order to hold to the tradition of the elders. Then Jesus moved to Tyre (7:24), a gentile land, and healed, as if "to demonstrate," the daughter of a gentile woman who was possessed by an evil spirit. At that time, respected Jewish teachers did not meet women face to face, especially gentile women.

In that context, Jesus tested the woman by saying, "for it is not right to take the children's bread and toss it to their dogs" (7:27). However, the woman did not care about her status or situation and prostrated in front of Jesus, entreated him, and was rewarded with grace. Whereas the Jewish people for thousands of years were the chosen people and their insolent attitude was rebuked by Jesus, a gentile woman who had nothing to show off was rewarded with the grace of Jesus because of her entreating faith. The "entreating faith" turned the situation upside down between the Jewish people and the gentile woman.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 0
- 2
- 3

-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 첫기도 Firs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Sticker





ER일·Sat

2022 Apri

이방인도 먹이시다

The gentiles are fed too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

예수님은 사람들을 먹이시는 두 번째 이적을 행하시고, 제자들에게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의 누룩에 대한 경계를 명하신다. 이어서 벳 새다로 가셔서 눈먼 사람을 고치시고 장차 수난과 부활이 있을 것에 대해 처음으로 예고하신다.

♬ 새505장(통268장) 온 세상 위하여

_{묵상}·마가복음 8:1-8

통독·마가복음 8장

- 1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 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 2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지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 3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 4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 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 5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일곱이로소이다 하거늘
- 6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일곱 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 7 또 작은 생선 두어 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 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 8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일곱 광주리를 거두었으며

Reading Insight -

Jesus performed the second miracle of feeding a large crowd and warned his disciples about the Pharisees and Herod's yeast. Then Jesus moved to Bethsaida and healed the blind and for the first time foretold his disciples about future sufferings and the resurrection.

[7] (Hymn505) Christ for the Whole Wide World

Meditation • Mark 8:1-8

Reading Plan • Mark 8

- ¹ In those days, when again a great crowd had gathered, and they had nothing to eat, he called his disciples to him and said to them,
- 2 "I have compassion on the crowd, because they have been with me now three days and have nothing to eat.
- ³ And if I send them away hungry to their homes, they will faint on the way. And some of them have come from far away."
- ⁴ And his disciples answered him, "How can one feed these people with bread here in this desolate place?"
- ⁵ And he asked them, "How many loaves do you have?" They said, "Seven."
- ⁶ And he directed the crowd to sit down on the ground. And he took the seven loaves, and having given thanks, he broke them and gave them to his disciples to set before the people; and they set them before the crowd.
- 7 And they had a few small fish. And having blessed them, he said that these also should be set before them
- 8 And they are and were satisfied. And they took up the broken pieces left over, seven baskets full.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예수님께서 사천명이나 되는 무리 를 먹이시려고 하신 이유는 무엇이 었나요? (2절)

Why did Jesus want to feed a large crowd of four thousand people? (8:2)

사람들이 먹고 남은 부스러기를 주 워 모으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요? (8절)

Why did Jesus ask his disciples to collect the leftovers? (8:8)

God Moment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롱아일랜드연합감리교회, 김재현(NY) 메트로폴리탄 한인연합감리교회, 김진우(NY) 성도의 가정. 건강, 자녀를 위한 기도

이방인들에게도 떡을 주시다

Jesus gave bread to gentiles too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기적적인 방법으로 먹이신 일은 구약성경에서부터 이어지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출애굽 때와 같이 군중을 먹이시는 일(출 6:34-44)이 연거푸 두 번에 걸쳐서 일어나고 있는데, 한 번은 오천 명을 먹이신 일(6:30)이고, 두 번째는 8장에서 사천 명을 먹이신 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는 이방인 지역에서 무리를 먹이셨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만이 아니라 이방에게도 전파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으며, 이방인들이 훗날 "자녀의 떡"(7:27), 곧 복음을 함께 나누게 될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무리를 먹이고 난 부스러기가 '일곱 광주리'(8:8) 남았다는 말은, 유대인 오천 명을 먹이고 남은 '열두 광주리'와 숫자적으로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사천 명을 먹이고 남은 양이 약간 적었다는 말 은 이스라엘이 계속 우선순위를 점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고 말합니 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7:27-28).

God fed his people in miraculous ways but this story was a continuation from the Old Testament. Just as a large crowd was fed during Exodus (Exod 6:34–44), a large crowd was fed not once but twice: once a crowd of about five thousand were fed (Mark 6: 30), and another time a crowd of about four thousand were fed (Mark 8). The second feeding of the crowd took place in gentile land, and this incident alluded to the fact that the Gospel would be spread not only to the people of Israel but also to the gentiles. In other words, the gentiles would be like "the children's bread" (Mark 7:27). It was understood as the foretelling of the gentiles sharing the Gospel.

It was said that after feeding the large crowd "seven baskets" were left over (8:8). The "twelve baskets" left over after feeding five thousand people of Israel were compared with "seven baskets" left over in this chapter. The amount left over after feeding four thousand was slightly less than the previous incident and some scholars interpret this story as meaning continued higher priority for the people of Israel. "First, the people of Israel then the Greeks" (Mark 7:7–28).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 0
- 2
- 3

-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 첫기도 Firs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Sticker





10 주일 말씀 요약 Sunday Sermon Note

| 제 목 Title | |
|----------------------------|--|
| | |
| 성경본문 Scripture | |
| 주요내용 Outline | |
| 하나님의 음 성 God's Voice | |

주일 말씀이나 더 깊이 묵상할 내용을 기록합니다.

| 나의 결단/적용 My Heart / Application | |
|---------------------------------|----------|
| | |
| 나의 기도제목 My Prayers | |
| | <i>)</i> |
| 교회의 기도제목 Prayers of My Church | |
| | |
| 한 주간의 일정 This Week | |

윤리적 당위성 충돌

왕태건목사(갈보리연합감리교회, NJ)

코비드 변이 D 바이러스로 인해 환자의 숫자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뉴저지 확진자수 기준으로, 이전에 수천명 되던 때에 비하면 아직은 괜찮은 수준입니다만, 그래도수백명 대로 올라가고 있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는 경고음으로 들려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마스크 쓰도록 권고하는 선제적 조치를 오늘부터 취합니다. 사실 마스크를 벗기로 했던 지난 한 달 동안도 모두 예배 때 마스크를 쓰고 계셨으니, 실제적인 불편함은 없을 것입니다. 조금 불편해도 모두 안전한 예배 환경을 만들고자 합니다.

뉴욕 타임즈 기사를 읽으며 상념에 빠졌었습니다. 백신을 맞는 것을 정부가 조치하는 것이었습니다. 공공 기관에서 일하는 이들은 다 백신을 맞도록 하는 권고입니다. 기사는, 한편으로, 이런 정부의 의견에 반대하는 이들의 의견을 다루었습니다. 개인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 논지였습니다. 그 기사는, 다른 한편으로, 이런 반대에 대한 또다른 사회적 반대 여론이 커가고 있다고 소개하였습니다. 백신을 맞은 사람들이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분노가 사회적으로 점차확산되는 것 같다고 합니다. 이들의 분노의 이유는 두 가지 측면입니다. 하나는, 팬데믹종식이 이들 때문에 지연되고 있다고 생각이고, 다른 하나는, 변이 바이러스 D가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감염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결국 확산의 책임이 이들에게 있다는 것이지요.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백신 접종 문제에 윤리적인 충돌이 있구나, 싶었습니다.

우선, 개인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공감이 갔습니다. 개인의 선택을 어

떠한 경우라도 존중하지 않으면, 다른 사안에서 개인의 선택을 억누르는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지 않으면, 선택을 무시하는 일이 반복될 것이라는 것은 사실 자명합니다. 그러니 개인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는 명제는 지켜야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에 맞서는, 백신을 맞아야 한다는 주장 또한 윤리적 타당성을 가지고 있는 듯하였습니다. 백신을 맞지 않는 이들은 사회적 불행을 도외시하고 자기 개인의 존중만을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코비드 팬데믹으로 힘든 이들은 사회적으로 취약한 자들입니다. 특히 비즈니스에서는 소상인들일 것입니다. 코비드 팬데믹이 장기화할 수록 피해는 커지고, 이후의 복구도 쉽지 않은 이들입니다. 또한, 어린이들도 코로나 바이러스의 피해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었습니다. 학업 능력이 감퇴되었다는 통계는 두 번째 치더라도, 바이러스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니까요. 여기에 가십(?)이더해졌습니다. 백신접종을 거부하는 주장을 하는 이들의 상당수가 사회적 또는 경제적으로 피해를 입지 않는 위치에 있다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백신 접종은 나를 위한 것일뿐 아니라, 약한 타인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는 윤리적 당위성이 가벼워보이진 않습니다.

백신 접종을 중심으로 우리 신앙인들도, 건강상의 이유만이 아니라, 신앙 윤리적 질문을 해보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겠습니까?

이런 말은 어떻게 들리는지요? "마스크를 쓰되 적극적으로 교회에 나와라" 자신의 선은 무너지게 되겠지요. 비즈니스가가 활발하게 되어야 한다는 경제 공동체의 필요 성뿐 아니라, 삶의 근간인 나눔, 공동체의 질적인 변질 위기입니다. 그러니 개인의 존 중과 공동체성 회복이라는, 하나인 듯, 이질적인 듯한 것을 동시에 추구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마스크 쓰고, 교회에 적극적으로 나오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월요일·Mon

누가 더 크냐

Who is greater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

예수께서 산에 오르셔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 변모하시는 일이 있은 후에 산에서 내려오셔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신다. 또 장차 수 난당하시고 죽었다가 부활하실 것을 두 번째로 예고하시며, 서로 첫째가 되겠다고 논쟁하는 제자들에게 섬기는 자가 될 것을 가르치시고, 죄를 어떻게 멀리해야 하는지를 당부하신다.

♬ 새455장(통507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_{묵상}·마가복음 9:33-37

통독·마가복음 9장

- 33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 34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 론하였음이라
- 35 예수께서 앉으사 열두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 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 사람의 끝이 되며 뭇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 **36**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 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 37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Reading Insight «

After Jesus was transfigured when He met Moses and Elijah upon reaching the top of the mountain, he came down the mountain and healed a child possessed with an evil spirit. For the second time he foretold that He would be tortured, crucified and resurrected, and taught his disciples who were competing to become the first among them, to be serving leaders, and pleaded with them how to stay away from sins.

(Hymn455) We Shall be Like Him

Meditation • Mark 9:33-37

Reading Plan • Mark 9

- 33 And they came to Capernaum. And when he was in the house he asked them, "What were you discussing on the way?"
- 34 But they kept silent, for on the way they had argued with one another about who was the greatest.
- 35 And he sat down and called the twelve. And he said to them, "If anyone would be first, he must be last of all and servant of all."
- 36 And he took a child and put him in the midst of them, and taking him in his arms, he said to them,
- 37 "Whoever receives one such child in my name receives me, and whoever receives me, receives not me but him who sent me."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예수님의 물음에 제자들이 잠잠했 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33-34절)

Why were Jesus' disciples silent when he asked them what they were arguing about? (9:33–34)

첫째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먼저 가야 할 자리는 어디라고 하셨나 요? (35절)

What place did Jesus say it was for those who want to be first? (9:35)

God Moment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모닝사이드연합감리교회, 박재용(NY) 미드허드슨한인연합감리교회, 김윤태(NY) 교회와 예배를 위한 기도

먼저 꼴찌가 되어야 합니다 First we must be last

힘에는 하드 파워(Hard power)와 소프트 파워(Soft power)가 있다고 합니다. 하드 파워는 군사력이나 경제력 같은 힘으로 상대를 제압하거나 굴복시켜 움직이도록 하는 힘을 말하고, 소프트 파워는 설득과 매력의 힘으로 상대를 감동시키거나 호감을 일으켜 자발적으로 움직이도록 하는 영향력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서로 누가 크냐 하는 것을 두고 논쟁했다고 했습니다. 서로 높고 큰 자리에 앉으려고 했습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고대사회에서는 사람의 존귀를 평가하는 중심적인 기준은 '지위'였기 때문입니다. 지위를 갖고 힘을 행사하려고 했던 것은 '하드 파워'를 염두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첫째가 되려면 먼저 꼴찌가 되어 섬겨야 한다"(35절)고 가르치십니다.

그 말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면서 진실한 소프트 파워를 가진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로 여김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하드 파워의 모습(천군 천사와 막강한 군대)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장 작고 낮은 곳에서부터 사랑과 희생과 섬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고 지금도 그분을 진실되게 따르는 제자들을 통해 그 나라를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There are two kinds of power; one is hard power and another is soft power. Hard power means either military power or economic power that has a tendency to conquer or force opponents to surrender to move, and soft power means power of persuasion or attraction to impress or touch opponents to move voluntarily. The disciples of Jesus were arguing who was greater. Each and every one of them wanted and tried to be seated in the higher and superior seat. Because whether in Israel or a gentile country, in ancient society, the standard to judge a person's worth was their "position." People tried to exercise power with position as a tool, because they had "hard power" in mind.

But Jesus taught His disciples, "If anyone wants to be first, he must be the very last, and the servant of all" (9:35). In other words, it means that only those who possess true soft power and serve others at the lowest place would be recognized as important leaders in the kingdom of God. At the time of Jesus, many people expected the arrival of the kingdom of God in the shape of hard power (like a multitude of celestial angels and great army). But Jesus began lowly, and even at the lowest place in the kingdom of God through love, sacrifice, and service His kingdom continues even today through His true followers and disciples.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 0
- 2
- 3

-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 첫기도 Firs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Sticker





2022 April

한 가지 부족한 것

One thing lacking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10장에서 예수께서는 율법의 정당성을 앞세워 아내를 버리려는 사람들을 비판하시고, 순수하게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아이들을 축복하신다. 이어서 부자 젊은이의 고민을 상담해 주시고, 서로 높은 자리에 앉고자 하는 야고보와 요한을 가르치시고 눈먼 바디매오를고쳐 주신다.

♬ 새288장(통204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묵상·마가복음 10:17-22

통독·마가복음 10장

17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문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18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 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19 네가 계명을 아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 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 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20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21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22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Reading Insight «

In Chapter 10 Jesus rebuked a man who was planning to abandon his wife using the laws as an excuse and blessed innocent children who truly longed for the kingdom of God. Jesus continued to advise a rich young man's handicap in his life, taught James and John who were arguing about who should be placed at higher position, and healed blind Bartimaeus.

[7] (Hymn288) Blessed Assurance, Jesus is Mine

Meditation • Mark 10:17-22

Reading Plan · Mark 10

- 17 And as he was setting out on his journey, a man ran up and knelt before him and asked him, "Good Teacher, what must I do to inherit eternal life?"
- 18 And Jesus said to him, "Why do you call me good? No one is good except God alone.
- 19 You know the commandments: 'Do not murder, Do not commit adultery, Do not steal, Do not bear false witness, Do not defraud, Honor your father and mother.'"
- 20 And he said to him, "Teacher, all these I have kept from my youth."
- 21 And Jesus, looking at him, loved him, and said to him, "You lack one thing: go, sell all that you have and give to the poor, and you will have treasure in heaven; and come, follow me."
- ²² Disheartened by the saying, he went away sorrowful, for he had great possessions.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부자 젊은이의 질문 속에서 젊은이 가 영생을 얻기 위해 전제하고 있 는 생각은 무엇인가요? (17절) In the question of the rich young man, what thought preoccupies the young man's mind to obtain eternal life? (10:17)

'가난한 사람에게 재산을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으로 보아 젊은이에게 부족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21절) Jesus told the young man, "Go, sell everything you have and give to the poor, and you will have treasure in heaven. Then come, follow me." What was lacking in the young man? (10:21)

God Moment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버팔로한인연합감리교회, 국재현(NY) 부르클린한인연합감리교회, 이호승(NY) 목회자를 위한 기도

선한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It's not a good deed, but it's Jesus

본문 말씀 바로 앞에는 예수께서 '어린아이(13절)'를 축복하신 이야기가 위치해 있습니다. 세상의 눈으론 아무런 소유도 지위도 없는 철저히누군가에게 의지해 살아야 하는 "어린아이"와는 대조적으로, 마가는 젊은 나이에 출세하여 부유하고 계명도 잘 지키는 한 사람과 관련된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으로는 그 청년이 일찍부터복을 받아 높은 사회적 지위에 올랐으며 부유함이라는 성공을 거둔 사실만으로 이미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은 사람일 것이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게다가 어려서부터 율법을 모범적으로 잘 지킨 청년이었습니다. 실제로, 유대 전통은 율법에 완전히 순종하면 영생을 얻을 자격을얻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청년은 '무엇을 더 하여야'(17절)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를 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생은 어떤 특정한 율법을 더 지켜서 완성시켜야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온전히 따름으로써 얻는다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21절). 그리고 그 청년에게는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데 있어서 많은 재물이 가장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청년에게 재물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 주는 '선한 행위'를 하나 더 해야 부족한 부분이 다 채워진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온전히 따라서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 더 소중히 여기는 보물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의미였습니다.

In the previous section of today's scripture, there is a story of Jesus blessing "little children" (10:13). From a worldly point of view, "little children" had no possessions or position and could survive only by totally depending on someone else, but in contrast, Mark continues with a story of a rich young man who also obeyed the commandments of God. The prevailing thought of the people of Israel at the time was that the rich young man was already recognized and blessed by God as a good man judging from the fact that he had successfully attained high position and acquired wealth. Further, the young man had faithfully obeyed the laws. In fact, Jewish tradition claimed that faithful obedience to the laws guaranteed the worthiness of eternal life. In that regard, the young man asked Jesus, "What must I do to inherit eternal life?" (10:17).

Jesus told him that eternal life may not be inherited by better obedience of certain particular laws, but only by following Him completely (10:21). For the young man, his wealth was a big obstacle to following Jesus completely. Jesus did not say that "the good deed" of selling all his possessions and giving them to the poor would fill the gap of what is lacking, but there should not be a more precious treasure than following Jesus our LORD completel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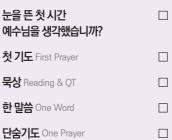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0

2

|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
|---------------------------|
| ᅯᆌᄃᇎᇈ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Sticker





48일·Wed 13

2022 April

크게 잘못 생각하고 있다

Big mistake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

11-12장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다. 종교지도자들이 예수님의 권한에 대해 시비하고 논란을 만들자 예수님은 포도원 소작인의 비유를 통해 그들이 주인의 아들을 죽이고 포도원을 차지했다고 책망하신다. 이어서 황제에게 바치는 세금과 부활 논쟁, 가장 큰 계명에 대해 지혜로 가르치시고 가장 많이 넣은 과부의 헌금에 대해 주목하신다.

♬ 새597장(통378장)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묵상·마가복음 12:18-27

통독·마가복음 11-12장

18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 르되

19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 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20 칠 형제가 있었는데 맏이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21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22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23 일곱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의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24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 지 못하므로 오해함이 아니냐

25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26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 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 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27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 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Reading Insight ...

In Chapters 11 and 12 Jesus entered Jerusalem and cleansed the temple. As the Jewish leaders criticized and argued about the authority of Jesus, Jesus rebuked them by telling the parable of a vineyard owner who rented the vineyard to farmers but the farmers killed the owner's son and took away the vineyard. He then taught with wisdom about taxes to the emperor, the controversy over the resurrection, and the greatest commandment. He paid attention to the size of the widow's offering, who put in everything she had to live on.

7 (Hymn597) Once Knowing not the Lord for From His Face

Meditation • Mark 12:18-27

Reading Plan • Mark 11-12

- 18 And Sadducees came to him, who say that there is no resurrection. And they asked him a question, saying,
- 19 "Teacher, Moses wrote for us that if a man's brother dies and leaves a wife, but leaves no child, the man must take the widow and raise up offspring for his brother.
- **20** There were seven brothers; the first took a wife, and when he died left no offspring.
- ²¹ And the second took her, and died, leaving no offspring. And the third likewise.
- 22 And the seven left no offspring. Last of all the woman also died.
- 23 In the resurrection, when they rise again, whose wife will she be? For the seven had her as wife."
- 24 Jesus said to them, "Is this not the reason you are wrong, because you know neither the Scriptures nor the power of God?
- ²⁵ For when they rise from the dead, they neither marry nor are given in marriage, but are like angels in heaven.
- 26 And as for the dead being raised, have you not read in the book of Moses, in the passage about the bush, how God spoke to him, saying, 'I am the God of Abraham, and the God of Isaac, and the God of Jacob'?
- **27** He is not God of the dead, but of the living. You are quite wrong."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예수님은 사두개파 사람들의 잘못 된 질문과 주장이 어디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하셨나요? (24절) What did Jesus say was the basis of the Sadducees' error of question and affirmation? (12:24)

사두개인이 하고 있었던 '큰 오해' 는 무엇이었을까요? (25-27절) What was the "badly mistaken understanding" of the Sadducees? (12:25-27)

God Moment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스태튼아일랜드한인교회, 정광원(NY) 시라큐스소망연합감리교회, 송지혜(NY) 국내외 선교사를 위한 기도

성경도 읽어보지 않았느냐?

Have you not read the scripture?

사두개인들은 대체로 귀족과 유력한 제사장 가문의 사람들로 구성되었으며,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공의회였던 산헤드린을 주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종교적으로 보수적인 성향을 지녔고, 모세오경(창세기에서 신명기까지)만을 신적인 권위를 지닌 문서로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오경이 부활을 뒷받침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부활 관념 자체를 거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논리의 예시로 삼고 있는 '일곱 형제 중의 진짜 아내' 이야기역시 신명기 25장에 나오는 '수혼법'의 원리를 적용하고 있는데, 수혼법은 사망한 형제의 과부와 그 죽은 자의 가계를 보호하기 위한 모세의 율법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의 질문은 모두 이 땅에서의 법들을 전제로 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아닌 이 땅을 전제로 하고 있기때문에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큰 오해를 하며 잘못 생각하고 있다고 하십니다(24절).

이어서 예수님은 모세오경을 좋아하는 사두개인들에게 보란 듯이 모세오 경의 중심인물인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의 하나님'이란 것을 강조하십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미 죽고 없는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의 하나님이시라'고 연신 말씀을 하셨겠느냐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죽고 없는 그 족장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부활하여 산 사람들이 될살아있는 족장들의 하나님이시기에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을잘 안다고 자부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일침을 가하십니다. "너희는 성경도 읽어보지 않았느냐?"(28절).

The Sadducees were from the powerful family of priests and aristocrats and a dominant power block in the Sanhedrin that was the governing body of Israel. They were religiously conservative and recognized only the Pentateuch (from Exodus to Deuteronomy) as canon which are documents with divine power. Therefore, they claimed that the Pentateuch did not support resurrection and refused to support even the concept of resurrection itself. An example of their argument, the story of the "true wife among the seven brothers" was based on the principle of "Levirate Law" in Deuteronomy 25, but the Levirate Law was one of Moses' laws to protect the family of deceased brothers and surviving widows. The Sadducees' questions were all premised on the laws of that time. Thus, Jesus said that they had a great misunderstanding about scripture and the power of God because their perspective was based on their space and time, not the eternal kingdom of God (12:24).

Next, Jesus emphasized to the Sadducees who loved the Pentateuch, that God is the "God of Abraham, Jacob, and Isaac," the central figures of the Pentateuch. If there is no resurrection, why would God keep saying, "He is the God of Abraham, Jacob, and Isaac," who were already dead. This is because God is not the God of the patriarchs who are already dead, but the God of the living patriarchs who will be resurrected and become living people. To those who claimed to know scripture well, Jesus asked, "Have you not even read the scripture?" (12:28).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 0
- 2
- 3

-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 첫기도 Firs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Sticker





목요일·Thu 14

2022 April

큰 환난과 거짓 구원

Big distress and false salvation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13장에서 예수께서는 장차 성전이 무너질 것임을 예언하신다. 더불 어 성전 된 당신의 몸도 십자가에서 무너져 내릴 것임을 말씀하신다. 그때에 무서운 환란과 징조들이 있을 것이며 거짓 그리스도와 예언 자들을 경계하라고 가르치신다. 무화과나무를 보고 그때와 그 시를 가늠하여 항상 깨어 있으라고 명하신다.

♬ 새337장(통363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묵상·마가복음 13:14-27

통독·마가복음 13장

- 14 멸망의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 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합지어다
- 15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 16밭에 있는자는겉옷을가지러뒤로돌이키지말지어다
- 17 그 날에는 아이 밴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 으리로다
- 18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 19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음이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 20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 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셨느니라
- 21 그 때에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 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 22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 23 너희는삼가라내가모든일을 너희에게 미리말하였노라 24 그 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 니하며
- 25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 들리리라
- 26 그 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 27 또 그 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Reading Insight «

In Chapter 13 Jesus foretold that the temple would fall in the future. He also said that on the cross his body (the temple) would fall. At that moment, there would be dreadful distress and signs, and He warned that there would be false Christs and false prophets. He commanded us to watch fig trees for signs of timing and keep watch.

🎜 (Hymn337) I Must Tell Jesus

Meditation • Mark 13:14-27

Reading Plan · Mark 13

- 14 "But when you see the abomination of desolation standing where he ought not to be (let the reader understand), then let those who are in Judea flee to the mountains.
- 15 Let the one who is on the housetop not go down, nor enter his house, to take anything out,
- 16 and let the one who is in the field not turn back to take his cloak.
- 17 And alas for women who are pregnant and for those who are nursing infants in those days!
- 18 Pray that it may not happen in winter.
- 19 For in those days there will be such tribulation as has not been from the beginning of the creation that God created until now, and never will be.
- **20** And if the Lord had not cut short the days, no human being would be saved. But for the sake of the elect, whom he chose, he shortened the days.
- ²¹ And then if anyone says to you, 'Look, here is the Christ!' or 'Look, there he is!' do not believe it.
- **22** For false christs and false prophets will arise and perform signs and wonders, to lead astray, if possible, the elect.
- 23 But be on guard; I have told you all things beforehand.
- 24 "But in those days, after that tribulation, the sun will be darkened, and the moon will not give its light,
- 25 and the stars will be falling from heaven, and the powers in the heavens will be shaken.
- ²⁶ And then they will see the Son of Man coming in clouds with great power and glory.
- 27 And then he will send out the angels and gather his elect from the four winds, from the ends of the earth to the ends of heaven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마지막 환난 날에 어떤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한다고 했나요? (21절) What did Jesus say about the last days of distress; who would say what? (13:21)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신다고 하셨나요? (26-27절) In what form did Jesus say He would return? (13:26-27)

God Moment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아스토리아한인교회, 진성인(NY) 올바니한인연합감리교회, 유화성(NY) 교단총회와 리더를 위한 기도

화난이 있을 것이나 끝은 아니다

There would be distress but it would not be the end

오늘 본문 말씀은 해석하기 난해한 본문 중 하나입니다. 다니엘 12:11에 근거한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멸망의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14절)이라는 표현을 이스라엘이 당했던 가장 끔찍한 박해기간에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Antiochos IV Epiphanes)가 주전 167년에 제우스(Zeus) 신에게 바치는 제단을 성전에 세운 일을 묘사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어떤 주석가들은 이것이 로마인들이나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세워 놓은 그와 비슷한 더러운 물건을 의미한다고 보기도 합니다. 또 "산으로 도망할지어다"(14절)의 표현은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군대를 피해유대의 산악지대로 피신을 했듯, 로마 군대의 침략과 같은 큰 환난을 피하여 산악지대로 피하는 일을 암시한다고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환난을주후 70년에 있었던 로마군의 예루살렘 함락 사건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어떤 주석가들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19절)라는 표현으로 보아, 이 환난이 전무후무한 것이기 때문에, 재림 직전에 장래에 일어날 일을 말하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분명한 것은 마지막 때에 엄청난 큰 환란이 있을 것이나 아직 끝은 아니며 그 과정에서 온갖 표징들과 기사들을 보이면서 자기가 그리스도이며 새로운 예언이 여기 있다고 홀리는 거짓말들이 횡횡할 것이라는 것입니다(22~23절). 깨어 시대를 잘 분별해야한니다.

Today's scripture is one of the difficult parts of the Bible to understand. It appears to be based on the book of Daniel 12:11. Many biblical scholars interpret this part of the scripture, – "the abomination that causes desolation" standing where it does not belong – as a description of the building of the altar at the temple to dedicate to Zeus in 167 B.C. at the time of Antiochus IV Epiphanes during the most dreadful time of persecution of Israelites. Some scholars interpret this as the similar unclean object built on the temple by Romans or Anti-Christians. The expression, "flee to the mountains" (13:14) is meant to allude to the incident when Israelites fled to mountains to avoid distress like the invasion of the Roman army and also when the people of Israel fled to mountains of Judea to escape the invasion of Babylonian army.

The distress is meant to be the fall of Jerusalem by the Roman army in 70 A.D. But some exegetists claim that based on the expression "never to be equaled again" (13:19) this distress was unique and unequal to anything that existed until then and meant something that would happen in the future just before the second coming of Jesus. Nonetheless, what is clear is that when the last days come, there will be significant distress but it will not be the end, and during that period there will be plenty of false Christs and false prophets performing signs and miracles to deceive the elect. (13:22–23) We must keep watch, be on guard, and discern the falseho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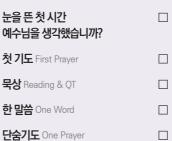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0

2

|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
|---------------------------|
|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Sticker





금요일·Fri

15

2022 April

베드로가 울다

Weeping Peter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

14장에서는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죽일 모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이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여인에 의해 그분의 죽으심이 준비되는 이야기, 가룟 유다의 배반이 시작되고 예수님은 죽음을 준비하시며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나누신다. 이어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 대제사장에게로 잡혀가셨고, 베드로의 부인 이야기가 이어진다.

♬ 새461장(통519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묵상·마가복음 14:66-72

통독·마가복음 14장

- 66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 67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들
- 68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 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뜰로 나갈새
- 69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 70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 당이니라
- 71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 72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Reading Insight «

In Chapter 14, the chief priests and the teachers of the law actively conspire to kill Jesus. We also find the story of a woman who pours expensive perfume on the head of Jesus, signaling and preparing for his death, the story of Judas Iscariot planning to betray Jesus and Jesus' last supper with his disciples. Jesus goes to the garden of Gethsemane to pray, gets arrested and taken to the chief priests. The chapter ends with the story of Peter's denial

(Hymn461) 'Are Ye Able,' Said the Master

Meditation • Mark 14:66-72

Reading Plan • Mark 14

- 66 And as Peter was below in the courtyard, one of the servant girls of the high priest came,
- **67** and seeing Peter warming himself, she looked at him and said, "You also were with the Nazarene, Jesus."
- 68 But he denied it, saying, "I neither know nor understand what you mean." And he went out into the gateway and the rooster crowed.
- **69** And the servant girl saw him and began again to say to the bystanders, "This man is one of them."
- **70** But again he denied it. And after a little while the bystanders again said to Peter, "Certainly you are one of them, for you are a Galilean."
- 71 But he began to invoke a curse on himself and to swear, "I do not know this man of whom you speak."
- **72** And immediately the rooster crowed a second time. And Peter remembered how Jesus had said to him, "Before the rooster crows twice, you will deny me three times." And he broke down and wept.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멀찍이 떨어져 사람들 사이에 숨어 예수님을 지켜보던 베드로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66-68절) What do you think Peter was feeling as he camouflaged himself among other people watching Jesus? (14: 66-68)

세 번의 부인 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난 베드로의 심정은 어 땠을까요? (72절)

What do you think Peter felt soon after he denied Jesus three times and remembered what Jesus said to him earlier? (14:72)

God Moment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우리감리교회, 김동현(NY) 웨체스터중앙교회, 김철식(NY) 한인총회, 한인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

비록 널뛰기 믿음이라도! Fluctuating faith

베드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을 떠나지도 배반하지도 않을 것이라 맹세했었지만,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 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베드로 곁에 있던 사람이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70절)라고 말한 것은 그의 말투에서 들리는 갈릴리 지방 특유의 억양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부인 수위는 위기감과 두려움이 더해갈수록 점점 그 강도가 세졌습니다. 베드로는 급기야 예수님과의 관계를 회피하려는 절박한 심정으로 그분을 저주하기도 했습니다(71절). 그리고 닭 울음소리를 듣고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나 엎드려 울었다고 했습니다(72절). 그러나 베드로가 부인한 직후에 통곡한 것으로 볼 때, 그의 배반은 유다의 경우와는 달리 연약해서 저지른 과오였고(38절) 따라서 회복될 소망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가장 모범적인 제자의 대답을 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그 입으로 예수님을 저주하며 세 번이나 부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위선자였다는 시각보다는 마음은 앞섰으나 연약하여 주님 앞에서 뒷걸음치기를 하는 많은 제자들의 미숙한 모습을 대변해 주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서의 태도가 위아래로 널뛰기를 하던 베드로의 모습은 이런 과정을 통해 점차 영글어가고 성숙해져 가면서 순교까지 이르는 모습을 봅니다.

Even though Peter swore that he will never leave nor deny Jesus, he denied Jesus three times as Jesus said he would. When the person next to Peter said to him, "Surely you are one of them, for you are a Galilean" (14:70), it was probably because the person noticed the accent that was unique to the region of Galilea. And the degree of Peter's denial increased even more with increasing level of fear and panic in Peter's heart.

Out of desperation to avoid being identified with Jesus, Peter even cursed Jesus (14:71). Then when he remembered, what Jesus had said to him, he broke down and wept (14:72). When one considers the fact that Peter wept immediately following his denial, one can say that his failure was caused by his weakness (14:38), a failure that is different from that of Judas Iscariot and a failure that can be redeemed.

Peter is the person who made the greatest confession of faith by saying "You are the Christ, the son of the living God" and also the person who cursed and denied Jesus three times. However, Peter is viewed more as a person who failed due to his inner weakness rather than as a person who betrayed Jther words, Peter's failure illustrates the weakness that many of us also have even as we claim to be followers of Jesus Christ. And it is important for us to remember that Peter's fluctuating faith matured over time eventually became the faith of a martyr.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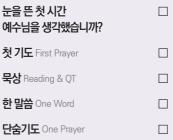
0

2

|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
|---------------------------|
| 처기드 Eirot Drover |

한 말씀 One Word

단숨기도 One Prayer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Sticker





ÉBUSAT 16

 $2022 \, \mathrm{April}$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다

Jesus breathed his last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

15장에서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시고 사형선고를 받으신다. 병사들은 예수님을 조롱했고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고 아리마대 요셉에 의해 그 시신이 수습되어 무덤에 묻히신다.

♬ 새341장(통367장) 십자가를 내가 지고

묵상·마가복음 15:33-41

통독·마가복음 15장

- 33 제육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구시까지 계속하더니
- 34 제구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 35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 를 부른다 하고
- 36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 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 37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 38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 니라
- 39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 40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세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 41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 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Reading Insight <>>

In Chapter 15, Jesus is interrogated by Pilate and sentenced to death. Soldiers mock Jesus and Jesus is crucified on Calvary hill. After Jesus dies on the cross, Joseph of Arimathea claims the body of Jesus and places it in a tomb.

7 (Hymn341) Jesus, I My Cross Have Taken

Meditation • Mark 15:33-41

Reading Plan • Mark 15

- 33 And when the sixth hour had come, there was darkness over the whole land until the ninth hour.
- 34 And at the ninth hour Jesus cried with a loud voice, "Eloi, Eloi, lema sabachthani?" which means, "My God, my God, why have you forsaken me?"
- **35** And some of the bystanders hearing it said, "Behold, he is calling Elijah."
- **36** And someone ran and filled a sponge with sour wine, put it on a reed and gave it to him to drink, saying, "Wait, let us see whether Elijah will come to take him down."
- 37 And Jesus uttered a loud cry and breathed his last.
- ³⁸ And the curtain of the temple was torn in two, from top to bottom.
- 39 And when the centurion, who stood facing him, saw that in this way he breathed his last, he said, "Truly this man was the Son of God!"
- **40** There were also women looking on from a distance, among whom were Mary Magdalene, and Mary the mother of James the younger and of Joses, and Salome.
- 41 When he was in Galilee, they followed him and ministered to him, and there were also many other women who came up with him to Jerusalem.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의 절규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었을까요? (34절)

What do you think is the meaning of Jesus' cry to the Father in verse 34?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에 곁을 지켰 던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었 나요? (40~41절)

What kind of people were with Jesus when Jesus breathed his last? (15:40–41)

God Moment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퀸즈중앙감리교회, 이요섭(NY) 후러싱제일교회, 김정호(NY) 성도의 가정. 건강, 자녀를 위한 기도

들리지 않는 절규 A silent cry

예수님은 오전 아홉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정오가 되자 온 땅에 어둠이 임했습니다(33절). 악의 세력이 최절정에 달한 순간이었습니다. 제구시 곧 오후 세시까지 세 시간 동안 어둠이 짙게 드리웠습니다. 그리고 오후 세시에 예수님은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34절) 그 부르짖음으로 시편 22편 1절 말씀이 응하였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 소리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이 순간만큼은 예수님의 신음 소리에도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자신의 아들을 철저히 외면하시고 버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음과 절규를 외면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인류를 대신하여 버림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이 순간 하나님과 관계성이 끊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가족들 그리고 종교지도자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인류를 대신하여 온전히 그리고 철저히 버림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실은 모든 인간이 그 죄로 인하여 이같이 버림받고 하나님의 진노를 당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 이 일에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Jesus was nailed to the cross at nine in the morning and, at noon, darkness came over the whole land (15:33). The darkness lasted until three in the afternoon. And at three in the afternoon, Jesus cried out in a loud voice, "My God, my God, why have you forsaken me?" (15:34). The cry of Jesus fulfilled the scripture of Psalm 22:1, "My God, my God, why have you forsaken me? Why are you so far from saving me, so far from my cries of anguish?" God is One who responds even to our faintest cry. But for this one time, God did not respond to the cry of Jesus. For this one time, God completely abandoned His own son and did not listen to his cry.

This is how Jesus was abandoned by God on behalf of the world. Even though Jesus is the Son of God, for this moment, he was cut off from God. Jesus was abandoned by his own disciples, his family and by religious leaders of his time. If anybody, the people of this world should be abandoned by God for their sins and receive God's judgement. But instead, Jesus suffered complete abandonment for the sake of the world. And by doing so, Jesus fulfilled God's will through faithful obedience.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 0
- 2
- 3

-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 첫기도 Firs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Sticker





17 주일 말씀 요약 Sunday Sermon Note

| 제 목 Title | |
|----------------------------|--|
| W 77 H D | |
| 성경본문 Scripture | |
| 주요내용 Outline | |
| 하나님의 음 성 God's Voice | |

주일 말씀이나 더 깊이 묵상할 내용을 기록합니다.

| 나의 결단/적용 My Heart / Application | |
|---------------------------------|---|
| | |
| | |
| |) |
| 나의 기도제목 My Prayers | |
| | |
| | |
| | |
| 교회의 기도제목 Prayers of My Church | |
| | |
| | |
| |) |
| | |
| 한 주간의 일정 This Week | |
| | |
| | |
| |) |

감출수 없는 기쁨

김웅태목사(주님의교회, NY)

서부 개척시대 때, 미국 몬타나 주 베노크에 살던 마을 사람들이 금광을 찾으러 떠 났습니다. 길이 험하여 도중에 몇 사람이 죽었고, 인디안의 공격을 받아서 말과 함께 모든 것을 빼앗겨서, 결국 다시 베노크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는 길 에 이상하게 생긴 돌을 발견하여 깨뜨려보니 금이었습니다. 그곳에 엄청난 양의 금 이 묻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음식도, 장비도 없었기에, 다시 장비와 음식 을 준비한 후에 돌아오기로 하고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이 비밀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기로, 서로 굳게 약속하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며칠 동안 장비와 음식을 마련한 후, 길을 떠나려고 나서는 순간 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온 마을 남자들이 모두 따라나서려고 그들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과연 누가 발설한 것일까요?' 이들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눈짓으로 물었습니다, '당신이 말했어?' '아니~' '그럼 당신이 말했어?' 모두가 '나 아니야~'하며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사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챘을까요? 그이유는 그들의 얼굴에 나타난 기쁨과 희 망의 빛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말하지 않았지만, 기쁨과 희망은 얼굴에서 감출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기쁨과 희망 가득 찬 그들의 얼굴 표정을 보고는, 직감적으로 그들이 금광을 발견하였

음을 알아챘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망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의 부활로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 됨은 금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이 놀라운 소식을 정말로 소유한 사람은 변화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얼굴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얼굴만 보고도, '저 사람 분명 아주 소중한 것을 발견했구나~' 알아챌수 있어야 합니다.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가장 먼저 알아차려야 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가장 먼저 알아차려야 합니다. 자녀들이 알아차리고, 직장 동료들이, 가장 친한 친구들이 알아차려야 합니다. 감출 수 없는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 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수 되시는 주님을 모시어 들였다고 말하면서, 내 안에서 기쁨이 없다면, 그것은 아직까지 주님을 모시어 들인 것이 아니라, 문밖에 세워 두고 있는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주님을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손님으로 모시어 들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손님은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 주시는 샘솟는 기쁨이 주님의 교회 성도들의 삶 속에, 그리고 얼굴에 충만히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는세상의 빛이라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마 5:14)

18

2022 April

먼저 갈릴리로 가시다

Going ahead of you into Galilee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

안식일이 지난 첫날 새벽 무덤으로 간 여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는다. 또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최초로 목격했고, 예수님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도 나타나셨으며, 제자들에게 선교의 사명을 주시고 승천하신다.

♬ 새160장(통150장) 무덤에 머물러

묵상·마가복음 16:1-8

통독·마가복음 16장

- 1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 2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 3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 4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 5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 6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 7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뵈오리라 하라 하는지라
- 8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 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Reading Insight -

On the first day after the Sabbath, the women who went to the tomb early in the morning hear the news of the resurrection of Jesus. Mary Magdalene witnesses the risen Lord; Jesus appears to two disciples who were on their way to Emmaus and Jesus ascends to heaven after commissioning his disciples to go into all the world and preach the gospel.

[7] (Hymn160) Low in the Grave He Lay

Meditation • Mark 16:1-8

Reading Plan • Mark 16

- ¹ When the Sabbath was past, Mary Magdalene and Mary the mother of James and Salome bought spices, so that they might go and anoint him.
- ² And very early on the first day of the week, when the sun had risen, they went to the tomb.
- ³ And they were saying to one another, "Who will roll away the stone for us from the entrance of the tomb?"
- ⁴ And looking up, they saw that the stone had been rolled back--it was very large.
- ⁵ And entering the tomb, they saw a young man sitting on the right side, dressed in a white robe, and they were alarmed.
- 6 And he said to them, "Do not be alarmed. You seek Jesus of Nazareth, who was crucified. He has risen; he is not here. See the place where they laid him.
- ⁷ But go, tell his disciples and Peter that he is going before you to Galilee. There you will see him, just as he told you."
- 8 And they went out and fled from the tomb, for trembling and astonishment had seized them, and they said nothing to anyone, for they were afraid.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이유와 때는 언제였나요? (1-2절) When did the women go to the tomb and why? (16:1-2)

예수님께서는 왜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만날 것이라고 했을까요? (7절)

Why did Jesus tell his disciples that he will see them in Galilee? (16:7)

God Moment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데이튼한인연합교회, 이승필(OH) 맨스휠드한인연합감리교회, 유보현(OH) 교회와 예배를 위한 기도

갈릴리에서 다시 시작이다 Starting Again in Galilee

일곱 귀신이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곧 성모 마리아,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 살로메가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기 위해서 향품을 샀습니다(1절). 안식일이 지나야 향품을 파는 가게들이 문을 열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안식일에는 안식일 법에 의해 예수님의 무덤에 있는 돌을 옮길 수도 없어서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발라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인 토요일이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인 주일 새벽 일찍 예수님의 시체에 향유를 발라드리려고 무덤으로 향했습니다(2절). 그들은 새벽같이 일어나 아직 어두울 때 무덤을 향하여 가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자기들도 잡혀갈까 봐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지만 여인들은 담대하게 어둠을 헤치고 무덤으로 향했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또한 천사는 예수께서 먼저 갈릴리로 가서 기다리겠다는 소식을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전하라고 합니다(7절). 갈릴리는 예수께서 제자들을 처음 만나 제자 삼은 곳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그곳에서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실패를 하고 고향 갈릴리로 내려간 것이었지만 예수님은 그 실패의 한복판에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새로운시작(a new beginning)을 계획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 인생의 갈릴리에도 먼저 오셔서 기다리실 것입니다.

When the Sabbath was over, Mary Magdalene who was once possessed by seven demons, Mary the mother of James, and Salome bought spices so that they might go and anoint Jesus' body (16:1). They waited the Sabbath to be over to do this because the stores that sold spices were closed on the Sabbath day. Also, it was against the Sabbath law to move the large stone that blocked the entrance of Jesus' tomb. So they went to the tomb early in the morning of the first day of the week after the Sabbath (16:2). Unlike these women, the disciples were still in hiding because they were afraid of getting arrested. When these women braved the darkness of the early morning and went to the tomb, they received the news of the resurrection of Jesus.

The angel told the women to tell Peter and the disciples that Jesus will go ahead of them into Galilee, which was the place where Jesus first met them and called them to follow him. The risen Lord wanted to start something new from Galilee. For disciples, going back to Galilee probably meant their failure to follow Jesus and the end of their hopes and dreams. But for Jesus, calling them to Galilee was about turning a sign of failure into a sign of a new beginning. Remember that Jesus will also go ahead of us into our own Galilees in life to give us new hope and a new beginning.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0

2

| 눈을 뜬 첫 시간 |
|--------------|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Sticker



2022 April

그리스도께서 나뉘었느냐?

Is Christ divided?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바울은 고린도교회가 여러 지도자를 중심으로 분열하고 있는 것을 책망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임을 말하 며, 믿는 자들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성령이 계시하시는 지혜에 대해 가르친다.

♬ 새349장(통387장) 나는 예수 따라가는

묵상·고린도전서 1:10-17

통독·고린도전서 1-2장

- 10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 11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 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 12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 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 13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 14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 15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 하게 하려 함이라
- 16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 17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Reading Insight

Paul rebukes the Corinthian church being divided over different leaders. He tells them that only Jesus Christ is God's power and wisdom and teaches them about the wisdom whose origin is the Spirit of God.

(Hymn349) Low in the Grave He Lay

Meditation • 1 Corinthians 1:10-17

Reading Plan • 1 Corinthians 1-2

- 10 I appeal to you, brothers, by the name of our Lord Jesus Christ, that all of you agree, and that there be no divisions among you, but that you be united in the same mind and the same judgment.
- 11 For it has been reported to me by Chloe's people that there is quarreling among you, my brothers.
- 12 What I mean is that each one of you says, "I follow Paul," or "I follow Apollos," or "I follow Cephas," or "I follow Christ."
- 13 Is Christ divided? Was Paul crucified for you? Or were you baptized in the name of Paul?
- 14 I thank God that I baptized none of you except Crispus and Gaius,
- 15 so that no one may say that you were baptized in my name.
- ¹⁶ (I did baptize also the household of Stephanas. Beyond that, I do not know whether I baptized anyone else.)
- 17 For Christ did not send me to baptize but to preach the gospel, and not with words of eloquent wisdom, lest the cross of Christ be emptied of its power.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분쟁은 어떤 사람들을 중심으로 일어났나요? (11-12절)

Who were the leaders at the center of division in the Corinthian church? (1:11–12)

바울은 두 사람 외에 아무에게도 세례 준일이 없는 것에 대해 왜 감 사한다고 했을까요? (13-14절) Why did Paul thank God that he did not baptize more people other than the two people he baptized? (1:13-14)

God Moment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벧엘국제연합감리교회, 이시용(OH) 새생명연합감리교회, 이병희(OH) 목회자를 위한 기도

경계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Be careful and be alert

바울과 아볼로, 게바(베드로)는 선교사와 교사였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웠으며, 그가 고린도를 떠난 뒤에는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베드로 또한 중요한 교사들 중 하나였습니다. 그들 모두가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한 부분을 감당했으며 성도들 또한 교회의 각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안에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강조점이 다름에서 온 분쟁일 수도 있고, 바울, 아볼로, 베드로중 누가 고린도 교회에 가장 큰 공헌을 했으며 누가 더 중심에 있는가를 두고 성도들이 나뉘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들 중에 몇몇은 '나는 누구 파다, 나는 누구 편이다' 하는 모습들이 보기 싫어서 차라리 '나는 그리스도파다, 나는 그리스도편이다'라고 하며 보란 듯이 비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따라야 하는 분은 진리이신 예수님뿐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진리이시며 그 외의 사람들은 누구든지 그 진리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신 앙생활을 욕심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자신의 욕심을 위해 신앙생활을 도구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런 욕심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습니다. 이렇게 공동체 가운데 욕심의 누룩이들어오면 고린도 교회와 같이 공동체는 나뉘어지고 그리스도는 뒷전이 되고 맙니다. 경계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Paul, Apollo, and Cephas (Peter) were missionaries and teachers. Paul planted the church at Corinth and, after he left Corinth, Apollo taught the believers there. Peter was also one of the important teachers there. They all contributed to the ministry of the church in one way or another and the people together made up the church. Unfortunately, however, a division occurred in the church. There could have been a theological debate in the process of teaching the Word or members of the church could have gotten into an argument about who made the greatest contribution to the church among different leaders like Paul, Apollo or Peter. Some who were put off by these debates and quarrels may have chosen to identify themselves as followers of Christ, despising others who were involved in the quarrel.

One thing all of us must never forget is that the only person we should follow is Jesus himself. Only Jesus is the truth and all other people who claim to know the truth know only in part and teach the truth in part. There are people who practice their faith out of greed. Instead of following the examples of Christ, they use their faithful appearance for their own benefit. The Bible says that greed gives birth to sin and sin gives birth to death (Jas 1:15). When greed enters into the life of a community, the community will experience division and the truth of Christ will be ignored. Therefore, we must be careful and alert.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0

2

|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
|---------------------------|
| ᅯᄀᅼᆮᇊᇬ |

단숨기도 One Prayer

첫 기도 First Prayer 묵상 Reading & QT 한 말씀 One Word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Sticker





20

2022 April

하나님의 동역자

God's co-workers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목회자와 선교사, 교사들이 세속적이며 육에 속했다고 책망한다. 모두가 하나님의 동역자임을 강조한다. 또한 4 장에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의 직분에 대하여 변호하며 자신을 본받 는 자가 되라고 한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 가장 적합한 자로 여기는 디모데를 보낸다.

♬ 새455장(통507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묵상 •고린도전서 3:1-9

통독·고린도전서 3-4장

- 1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 2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 3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 4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봌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 5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 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 니라
- 6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 7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 것도 아니로되 오 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 8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 9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 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Reading Insight

Paul rebuked the Corinthian church saying that they are still worldly in their thinking about the leaders of the church (pastor, missionary and teacher). He emphasizes that all are co-workers of God. In chapter 4, Paul defends his apostleship and urges them to imitate him. And Paul sends Timothy to teach them the way of life in Christ Jesus.

(Hymn455) We Shall be Like Him

Meditation •1 Corinthians 3:1-9

Reading Plan • 1 Corinthians 3-4

- ¹ But I, brothers, could not address you as spiritual people, but as people of the flesh, as infants in Christ.
- ² I fed you with milk, not solid food, for you were not ready for it. And even now you are not yet ready,
- ³ for you are still of the flesh. For while there is jealousy and strife among you, are you not of the flesh and behaving only in a human way?
- ⁴ For when one says, "I follow Paul," and another, "I follow Apollos," are you not being merely human?
- ⁵ What then is Apollos? What is Paul? Servants through whom you believed, as the Lord assigned to each.
- 6 I planted, Apollos watered, but God gave the growth.
- ⁷ So neither he who plants nor he who waters is anything, but only God who gives the growth.
- ⁸ He who plants and he who waters are one, and each will receive his wages according to his labor.
- ⁹ For we are God's fellow workers. You are God's field, God's building.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아직 육에 속해 있다는 증거는 무엇이었습니 까? (3-4절)

What is the sign that shows that Christians of Corinthian church are still worldly? (3:3–4)

바울과 아볼로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동역을 하고 있었나요? (6-7절) How did Paul, Apollo and God work as co-workers? (3:6-7)

God Moment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아덴스한인연합감리교회, 이근상(OH) 영스타운한인연합감리교회, 김현석(OH) 국내외 선교사를 위한 기도

이제 밥을 먹어야 한다 It's time to eat solid food

1절에 보면 '신령한 자'와 '육신에 속한 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둘 다 거듭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거듭난 후에 성 령님을 모신 사람입니다. 신령한 자는 성령을 따라서 사는 성숙한 사람 을 말합니다. 그러나 육신에 속한 자는 거듭났지만 성령을 따라 살지 않고 육신과 자신의 생각을 따라서 사는 영적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라는 것입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같은 자 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당시 개척된 지 4년쯤 되었을 때입니다. 사람으로 비유해서 그 정도의 나이가 되면 이제 똥, 오줌도 가리고 밥도 혼자 먹고 스스로 걸어 다니고 말도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 정도 나이가 되었는데도 계속하여 젖을 물고 있고 어리광을 부리며 아기처럼 떼를 쓰면 안 되겠지요. 그러나 고린도 교회가 그러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4년이 지난시간까지도 아직 어린아이같이 젖을 먹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성도들에게 젖을 먹이고 밥을 먹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너무 어려서밥을 소화할 수 없었습니다. 바울은 교회 내에서 선교사나 교사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주인공이 되셔야 함을 강조합니다. 그럴 때 모두가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것을 깨닫고 더 넓은 마음으로 서로를 소중히 여기며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In verse 1, Paul distinguished between people who live by the Spirit and people who are still worldly. One thing that is common in these two types of people is that they are both people who were "born again" and who have the Holy Spirit in their life. Spiritual people are those who live by the Spirit. But worldly people are those who live following after their own desires and understandings even though they were born again. In that regard, they can be viewed as spiritual infants in Jesus Christ. The Church of Corinth at this time was about 4 years old. Think about a 4-year-old child. The child should have long been potty trained, be able to eat, walk and talk on one's own. It would not be good if a child of this age is still breast-fed and acts like an infa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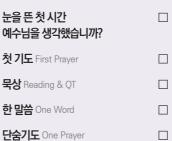
However, the Corinthian church was like a 4-year-old child who was not yet ready eat spiritual solid food. So, Paul did not give spiritual solid food to the believers at Corinthian church but fed spiritual milk. Paul emphasized that Jesus Christ should be at the center in the church, not the missionary or the teacher. It is only when Christ is at the center that people will come to see themselves as co-workers of God and care for each other as one church.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0

2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Sticker





Pagg·Thu 21

2022 April

누룩을 깨끗이 치우라

Get rid of the old yeast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

5장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음행을 지적하면서 누룩을 제거하라고 말한다.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여 세우신 교회이니,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8절)으로 명절을 지키자고 제안한다. 유월절의 빵은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다. 그러니무교절의 빵처럼 교회는 세상과 죄악이라는 누룩이 들어가지 말아야한다. 이어 6장에서는 세상 법정에 교회의 일을 고소하지 말며 정결한 목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고 당부한다.

♬ 새350장(통393장) 우리들이 싸울 것은

묵상·고린도전서 5:1-8

통독·고린도전서 5-6장

- 1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 2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 3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 4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 5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 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워을 받게 하려 함이라
- 6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 7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 생되셨느니라
- 8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 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Reading Insight >

In Chapter 5 Paul points out fornication in the church at Corinth and tells them to get rid of the old yeast. It is a church established by the sacrifice of Jesus Christ, the Passover lamb, so he proposes to observe the feast with "the new bread of sincerity and truth" (5:8). The Passover bread does not contain yeast. So, like the Feast of Unleavened Bread, the church must not contain the yeast of sin and vulgarity. In Chapter 6, Paul tells them not to file a lawsuit at a secular court, but to glorify God with an unblemished body.

3 (Hymn350) March We Onward

Meditation •1 Corinthians 5:1-8

Reading Plan • 1 Corinthians 5-6

- ¹ It is actually reported that there is sexual immorality among you, and of a kind that is not tolerated even among pagans, for a man has his father's wife.
- ² And you are arrogant! Ought you not rather to mourn? Let him who has done this be removed from among you.
- ³ For though absent in body, I am present in spirit; and as if present, I have already pronounced judgment on the one who did such a thing.
- ⁴ When you are assembled in the name of the Lord Jesus and my spirit is present, with the power of our Lord Jesus,
- ⁵ you are to deliver this man to Satan for the destruction of the flesh, so that his spirit may be saved in the day of the Lord.
- **6** Your boasting is not good. Do you not know that a little leaven leavens the whole lump?
- ⁷ Cleanse out the old leaven that you may be a new lump, as you really are unleavened. For Christ, our Passover lamb, has been sacrificed
- ⁸ Let us therefore celebrate the festival, not with the old leaven, the leaven of malice and evil, but with the unleavened bread of sincerity and truth.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진다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요? (6절) What does it mean when a little yeast spreads through the whole batch of dough? (5:6)

나에겐 어떤 묵은 누룩이 남아서 삶속에 영향을 주고 있나요? (8절) What kind of old yeast remains in me to affect my life? (5:8)

God Moment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캔톤한인연합감리교회, TBS(OH) 콜럼버스한인연합감리교회, 장이준(OH) 교단총회와 리더를 위한 기도

누룩을 제거해야 합니다 Get rid of the yeast

고린도 교회 안에 근친상간의 성적인 죄가 공공연하게 일어나는 것을 두고 바울은 엄히 책망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근친상간과 관련된 로마 법은 3촌 이내의 친척, 의붓아들과 의붓어머니, 의붓딸과 의붓아버지사이의 성적인 관계를 엄격히 금지했습니다. 이 규정을 어기는 사람들은 재산을 잃거나, 섬으로 유배되거나, 사회적 지위를 잃는 처벌을 받았습니다. 하물며,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이러한 부도덕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그냥 두고만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은혜의 눈으로 볼 일이 아니었습니다. 죄를 진심으로 자복하고 회개할 때에 용서하고 은혜를 베풀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은혜이지, 죄에 대한 감각이 무뎌져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사는 것은 묵은 죄의 누룩이 교회의 온 덩이에 퍼지게 내버려 두는 일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6절에서 누룩을 언급한 뒤에 유월절에 관해 이야 기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을 기억하게 하는 이 절기에 무교병(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먹어야 했습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전에 집에 있는 모든 묵은 누룩을 제거해야 했습니다. 바울은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인 출애굽과 유월절도 죄의 누룩을 제거할 때에 시작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Paul is sternly rebuking the explicit sexual sin of incest in the Corinthian church. Roman law related to incest at the time strictly prohibited sexual relations between relatives, stepson and stepmother, and stepdaughter and stepfather. Those who violated the law were punished with loss of property, exile to an island, or loss of social status. Even though in the Corinthian church these immoral things were taking place, they were just watching.

It should not be something they observed through the eyes of grace. If they sincerely had confessed their sins and repented, it would be graceful to forgive them and give them the opportunity to start anew. Living with a dulled sense of sin and neglecting it would allow the yeast of old sin to spread throughout the church. Paul brings up the Passover after mentioning yeast in verse 6 and the Israelites eating unleavened bread (bread without yeast) during the feast to remind them of the Exodus. Before the Passover, they had to get rid of all the old yeast in the house. Paul is saying that our spiritual Exodus and Passover also begin when we remove the yeast of s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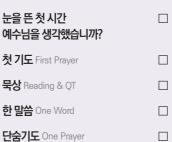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0

2

|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
|--------------------------|
| 처기도 Eirot Drover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Sticker





22

2022 April

부르심대로 살아가라

Live your calling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의무를 다해야 하고, 자신의 몸이라고 주장하면 안 된다. 부부는 자신의 몸을 서로에게 헌신해야 한다. 서로 분방하지 않음으로 사단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하며, 이러한 배려는 인간의 욕망을 배제할수 없다는 이해에서 생겨난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반드시 지켜라'라고 말하지 않는다. 주어진 상황속에서 어떻게 하면 주어진 계명의 본래 취지에 더 순전히 부합하는 삶을 살 것인지를 고민하라고 권한다.

♬ 새323장(통355장) 부름 받아 나선 이 몸

묵상·고린도전서 7:17-24

통독·고린도전서 7장

17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18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19 할례 받는 것도 아무 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 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20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21 네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네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22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23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24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Reading Insight

Husbands must fulfill their duties to their wives and wives to their husbands. Couples should dedicate their bodies to each other. We must not give Satan a break by not indulging in each other, and this consideration arises from the understanding that human desire cannot be neglected. Paul does not say, "It is the Word of God, so you must keep it." He advises people to think about how to live a life in a given situation that more purely conforms to the original purpose of the given commandment.

[7] (Hymn323) Call'd of God, We Honor the Call

Meditation • 1 Corinthians 7:17-24

Reading Plan • 1 Corinthians 7

- 17 Only let each person lead the life that the Lord has assigned to him, and to which God has called him. This is my rule in all the churches.
- 18 Was anyone at the time of his call already circumcised? Let him not seek to remove the marks of circumcision. Was anyone at the time of his call uncircumcised? Let him not seek circumcision.
- 19 For neither circumcision counts for anything nor uncircumcision, but keeping the commandments of God.
- 20 Each one should remain in the condition in which he was called.
- ²¹ Were you a slave when called? Do not be concerned about it. (But if you can gain your freedom, avail yourself of the opportunity.)
- ²² For he who was called in the Lord as a slave is a freedman of the Lord. Likewise he who was free when called is a slave of Christ
- 23 You were bought with a price; do not become slaves of men.
- 24 So, brothers, in whatever condition each was called, there let him remain with God.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할례를 받고 안 받고 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무엇이라고 하나 요? (19-20절)

What is more important than being circumcised or not being circumcised? (7:19-20)

노예인가 자유인인가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하나 요? (24절)

What could be more important than being a slave or a free person? (7:24)

God Moment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한마당연합감리교회, 이송원(OH) 한인매디슨빌연합감리교회, 성신(OH) 한인총회, 한인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 What is important?

바울은 그리스도인이란, 할례를 받은 사람인가 아닌가 하는 것으로 규명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18절). 또한 노예인가 자유인인가 하는 것으로도 규명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21-22절).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각자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고 있는 가?"(19절),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고 있는가?"(24절)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결혼한 사람은 결혼한 채로(1-16절), 미혼자는 미혼자로(25-40절), 할례자나 무할례자도 각각 그대로, 노예는 기회가 있으면 자유인이 되려고 힘쓸 것이나 그것보다 더 우선하는 것은 "주어진 상황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가?"(24절)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이란 여러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나라를 위해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사는 현대 사회 속에는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은 더 많은 복잡한 삶의 모습들이 존재합니다. 비록 성경이 그 하나하나의 구체적인 예시를 들고 있지는 않으나,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방향을 잡고 사는 사람인가를 분명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Paul says that a Christian is not identified by being circumcised or not (7:18). Also, Christians are not identified by whether they are slaves or free people (7:21–22). More important is "Are you living by keeping the commandments of God in your given circumstances?" (7:19) and "Are you trying to live according to the will of the Lord?" (7:24) Paul says married people may remain married (7:1–16), unmarried people may remain single (7:25–40), and for the circumcised and uncircumcised, live as they are. A slave may try to become a free man whenever he has the chance, but more important than that is, "Are you living with God in the given circumstances?" (7:24).

Paul said that the most important thing for a Christian is to live for the will of God and His kingdom in various given circumstances. In that sense, in the modern society we live in today, there are many more complex aspects of life that are not specifically mentioned in the Bible. The Bible does not give specific examples of each one, but it clearly shows what a Christian should consider important and in which direction he should go.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0

2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Prayer 묵상 Reading & QT 한 말씀 One Word 단숨기도 One Prayer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ERGI·Sat

2022 April

우상에게 바친 제물

Sacrifices offered to idols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

8장, 우상의 제물에 대한 논쟁이 일어났다. 어떤 이들은 우상에게 바친 제물은 먹을 수 없다고 말하고, 어떤 이들은 모든 것은 하나님께 로부터 왔는데 무엇이 문제냐며 따집니다. 바울은 이러한 논쟁 속에 서로를 향한 사랑이 없음을 간파하고, 비록 자유가 있어도 그 자유를 연약한 형제를 위해 제한하라고 말한다. 9장, 사도가 육신의 것을 취한 것을 두고 시비를 거는 자들이 생겼으나, 바울은 이에 대해 구약에서 밭을 가는 소의 비유와 군인들의 비유를 통해 복음 전하는 자들은 복음을 전함으로 먹고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 새500장(통258장)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묵상・고린도전서 8:5-13

통독·고린도전서 8-9장

- 5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 과 많은 주가 있으나
- 6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 7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 8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 서 더 잘사는 것도 아니니라
- 9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 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 10 지식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 11 그러면 네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 12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 13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Reading Insight

In Chapter 8, the controversy over the sacrifices offered to idols arose in the church. Some say that sacrifices offered to idols cannot be eaten, while others argue that because all things come from God, what is the problem? Paul sees that there is no love for one another in this argument and tells them to use their freedom for their weaker brother. In Chapter 9, people are arguing over the apostle's taking of money, but Paul argues that those who preach the gospel must make a living by preaching the gospel through the parable of the oxen plowing the field and the parables of the soldiers in the Old Testament.

[(Hymn500) Throw out the Life Line

Meditation •1 Corinthians 8:5-13

Reading Plan • 1 Corinthians 8–9

- **5** For although there may be so-called gods in heaven or on earth--as indeed there are many "gods" and many "lords"--
- 6 yet for us there is one God, the Father, from whom are all things and for whom we exist, and one Lord, Jesus Christ, through whom are all things and through whom we exist.
- ⁷ However, not all possess this knowledge. But some, through former association with idols, eat food as really offered to an idol, and their conscience, being weak, is defiled.
- 8 Food will not commend us to God. We are no worse off if we do not eat, and no better off if we do.
- ⁹ But take care that this right of yours does not somehow become a stumbling block to the weak.
- 10 For if anyone sees you who have knowledge eating in an idol's temple, will he not be encouraged, if his conscience is weak, to eat food offered to idols?
- ¹¹ And so by your knowledge this weak person is destroyed, the brother for whom Christ died.
- **12** Thus, sinning against your brothers and wounding their conscience when it is weak, you sin against Christ.
- 13 Therefore, if food makes my brother stumble, I will never eat meat, lest I make my brother stumble.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우상제물을 먹고 안 먹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하나 요? (8-9절)

What does Paul say is more important than eating and not eating things sacrificed to idols? (8:8-9)

하나님 앞에서 짓는 더 심각한 죄는 무엇이라고 하나요? (12절) What is the more serious sin committed before God? (8:12)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새빛연합감리교회, 정기영(OK) 오클라호마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 엄준노(OK) 성도의 가정, 건강, 자녀를 위한 기도

한 영혼이 중요합니다 Even one soul matters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이 죄인가 아닌가?" 하는 것에 대해 두 가지 상황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당시에 시장에 유통되고 있었던 대부분의 고기들은 모두 신전(우상)에 제물로 바쳐진 후에 나오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신전에 먼저 바쳐진 모든 고기를 문자 그대로 '우상 제물'로 여겨서 원천적으로 정죄한다면 그리스도인은 고기는 먹고 살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정반대의 상황도 있었습니다. 고린 도의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이교 신전을 방문하고, 이교도 잔치에 참여하며, 우상에게 제물로 바친 음식을 먹었습니다. 이들은 문제에 있어서 전혀 고민도 하지 않고 세속적 가치와 자유로운 생활 방식에 쉽게 타협한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큰 시험 거리가 되었지만 당사자들은 자신들의 자유를 앞세우며 원하는 대로 행동하는 것을 우선했습니다. 바울은, 믿는 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일은 계명을 문자적으로 철저하게 지키는 것도 아니고, 자신의 높은 지식을 자랑하며 자유를 만끽하는 것도 아니라, 바로 주님께서 피 흘려 살리신 형제 하나를 소중히여기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 일을 위해 필요하다면 자신은 채식주의자로 사는 것을 택하겠다고 말합니다.

"Is it a sin for believers to eat food sacrificed to idols?" This question addressed two situations. First, most of the meat on the market at the time was sold after being sacrificed to the temple (idol), so all meat on the market was considered literally "sacrificed animal." As a result, Christians in Corinth were in a situation in which they could not eat any meat at all. But also, there was the opposite case. There were people who easily compromised on worldly values and enjoyed a free way of life without worrying about the issue at all.

Those who put their freedom first and gave priority to doing what they wanted caused immense trials to those who were weak in the faith. Paul comments that the most important thing for believers to do is not to keep the commandments literally and strictly, nor to boast in their high knowledge and enjoy their freedom, but to cherish a brother whom the Lord shed blood for. He insists he will choose to be a vegetarian if necessary for his miss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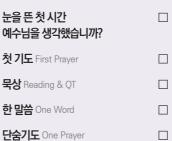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0

2

| 눈을 뜬 첫 시간 |
|-------------|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24 주일 말씀 요약 Sunday Sermon Note

| 제 목 Title | |
|----------------------------|--|
| | |
| 성경본문 Scripture | |
| 주요내용 Outline | |
| 하나님의 음 성 God's Voice | |

주일 말씀이나 더 깊이 묵상할 내용을 기록합니다.

| 나의 결단/적용 My Heart / Application | |
|---------------------------------|---|
| | |
| | |
| |) |
| 나의 기도제목 My Prayers | |
| | |
| | |
| | |
| 교회의 기도제목 Prayers of My Church | |
| | |
| | |
| |) |
| | |
| 한 주간의 일정 This Week | |
| | |
| | |
| |) |

부활후 기쁨의 50일

장재웅목사 (하늘 비전 교회, MD)

교회력에서 부활주일은 하루이지만 부활의 절기는 하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주일 새벽부터 오순절 성령강림까지 50일 동안 계속됩니다. 기독교 예전학(Liturgy)에서는 부활후 7주를 보내고 오순절 성령강림까지의 50일, 이 50일 동안의 부활절기를 '기쁨의 50일'이라고 합니다. 기쁨의 50일은 사순절 40일 기간보다 더 시간이 깁니다. 이것은 그 힘들었던 애통과 금식의 날들보다 더 길고 오랜 기쁨의 날들이 더해(+)질 것이라는 미래적인 축복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모르는 한 어린아이가 삼촌과 함께 교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도착해서 예배를 드리는 도중에 아이가 질문을 했습니다. "삼촌, 왜 강단 중앙의 벽에 더하기(+)가 붙어있어요?" 이 아이는 강대상 중앙에 붙어있는 십자가를 "더하기"로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이 삼촌이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저기 앞에 있는 더하기(+)는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영생)을 더해(+) 주셨고, 구원을 더해(+) 주셨고, 기쁨과 즐거움을 더해(+) 주셨다는 표시란다"

예수님은 주님의 부활과 더불어 기뻐하던 제자들에게 사명과 소명을 더해(+)주셨습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으로 보내노라"(요 20:21).

미국에 와서 살아가면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소명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세례 받고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받은 이후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에는 크리스천의 사명과 정체성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네게서 날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사 58:12)"

하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된 우리들에게 이 시대의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고 기초를 다시 쌓아야 하는 사명을 더해(+) 주셨습니다. 대 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성'을 쌓는데만 몰두하지 '길'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집만 짓고 도로와 길을 만들지 않으면 그 지역은 발전할 수 없습니다.

1885년 4월 5일 부활주일 아침에 우리나라 역사의 새로운 길을 여는 귀한 손님이 왔습니다. 부활의 종교인 기독교 복음을 들고 감리교 선교사인 아펜젤러 목사님 내외가 서울의 관문인 인천 제물포항에 상륙한 것입니다. 4,000년 동안 잠들었던 백성이 깊은 잠에서 깨어나게 되었습니다. 어둡고 암울했던 조국 땅에 희망과 구원, 부활과 새 생명의 광명이 비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이 세상은 소망이 없다고들 말합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 한 우리들은 더 이상 절망 속에 갇혀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고난을 해석하는 능력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죄에서 돌이키며 거룩한 삶을 살게 됩니다. 나보다 더 이웃을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잃어버린 것, 쏟아버렸던 것을 회복시키며 더욱더 창대케 만들어 줍니다. 교회는 교회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고 성도는 성도의 본분을 회복하게 됩니다. 예수의 증인 되어 성령의 능력으로 어두운 세상을 빛으로 밝히고 아픈 사람들을 치유하고 모든 자들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복의 통로(길)가 되어 만나는 사람들마다 부활하셔서 산 소망이 되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더해(+) 주신 사명입니다.

^{ваед}·моп 25

2022 April

성만찬의 오용을 책망하다

Rebuke the misuse of the Lord's Supper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10장에서 바울은 과거의 우상 숭배 사건으로 인해 멸망한 출애굽 1 세대를 언급하며 고린도 교회가 우상숭배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한다. 11장은 가톨릭과 개신교가 팽팽하게 논리적으로 맞선 본문이다. 가톨릭은 여성이 성당에 들어갈 때 아직도 머리에 미사보라는 수건을 쓰기 때문이다. 더하여 바울은 성만찬을 오용하여 그 본래 가치와의미를 훼손시키는 자들을 책망한다.

♬ 새254장(통186장) 내 주의 보혈은

묵상·고린도전서 11:17-27

통독·고린도전서 10-11장

17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18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19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20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21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22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 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23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 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24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25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26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 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27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 니라

Reading Insight «

In Chapter 10, Paul refers to the first generation of Israelites who came out of Egypt and were destroyed because of past idolatry practice and says that the church in Corinth should be freed from idolatry. Chapter 11 is a text in which Catholics and Protestants confront each other strongly and logically. Catholic women still wear a veil called chapel veil over their head when entering a church. In addition, Paul rebukes those who misuse the Lord's Supper to undermine its original importance and meaning.

√7 (Hymn254) I Hear Thy Welcome Voice

Meditation •1 Corinthians 11:17-27

Reading Plan • 1 Corinthians 10-11

- 17 But in the following instructions I do not commend you, because when you come together it is not for the better but for the worse.
- 18 For, in the first place, when you come together as a church, I hear that there are divisions among you. And I believe it in part,
- 19 for there must be factions among you in order that those who are genuine among you may be recognized.
- **20** When you come together, it is not the Lord's supper that you eat.
- 21 For in eating, each one goes ahead with his own meal. One goes hungry, another gets drunk.
- 22 What! Do you not have houses to eat and drink in? Or do you despise the church of God and humiliate those who have nothing? What shall I say to you? Shall I commend you in this? No, I will not.
- ²³ For I received from the Lord what I also delivered to you, that the Lord Jesus on the night when he was betrayed took bread.
- 24 and when he had given thanks, he broke it, and said, "This is my body which is for you. Do this in remembrance of me."
- 25 In the same way also he took the cup, after supper, saying, "This cup is the new covenant in my blood. Do this, as often as you drink it, in remembrance of me."
- **26** For as often as you eat this bread and drink the cup, you proclaim the Lord's death until he comes.
- 27 Whoever, therefore, eats the bread or drinks the cup of the Lord in an unworthy manner will be guilty concerning the body and blood of the Lord.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그들이 주의 만찬을 먹을 때에 '하 나됨'을 잃어버린 모습은 무엇이었 나요? (20-21절)

How do they lose the sense of "oneness" when they eat the Lord's Supper? (11:20–21)

문맥을 볼 때에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는다"는 말의 의미 는 어떤 뜻일가요? (27절)

What does the phrase "whoever eats the bread or drinks the cup of the Lord in an unworthy manner" mean in context? (11:27)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털사한인연합감리교회, 손태원(OK) 평강한인연합감리교회, 김관영(OK) 교회와 예배를 위한 기도

합당한 마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We must prepare a worthy heart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 '주의 만찬'이 잘못 나눠지고 있는 모습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주의 만찬'은 교회의 식사 형태로 나눠지고 있었는데, 그 교회의 식사는 각자 마련해 온 음식을 함께 나누는 형태였고, 모두 조금씩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문제는 부유한 신자들이 가난한 배가 고픈 신자들을 돌보지 않은 채 자신들의 음식을 먼저 배불리 갖다 먹었던 것입니다(21절). 그들은 굶주린 신자들이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않았고, 그들 앞에서 잘 차려진 정식 식사를 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가난한 신자들에게 죄를 지었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자신을 내어 주신 그 '주의 만찬'의 의미를 퇴색되게 한 죄를 지은 것이 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 온 신자들이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주의 만찬'을 나눌 때에 가난하고 배고픈 신자들을 배려하지 않는 일은 없었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만찬' 즉 '성찬'에 참여할 때에 자신을 살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나를 내어주고 약한 자를 돌보고 용납하는 마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일을 기억하며 참여하고 있는가를 살피는 일입니다(28절). 그것을 모르고 그저 먹고 마시는 자는 '자신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29절).

Paul is pointing out how the "Lord's Supper" was practiced incorrectly in the Corinthian church. At that time, the "Lord's Supper" was celebrated as a church meal. The church's meal was in the form of sharing the food that each had prepared. The problem was that the wealthy believers ate their food first without caring for the poor and hungry believers (11:21). They left no food for the starving believers and ate a well–prepared, full meal in front of them. Not only were they sinning against such poor believers, they were also guilty of obscuring the meaning of the Lord's Supper, who gave himself for others.

If we remember that all believers are united through the death of Jesus Christ, there should be no neglect of the poor and hungry believers when we partake in the Lord's Supper. Therefore, we need to examine ourselves when we partake of the "Lord's Supper," or "Communion." It is about giving up, caring for the weak, and remembering and participating in the work of becoming one in Christ (11:28). Those who are not aware of this and simply eat and drink are "eating and drinking in their own sins" (11:29).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 0
- 2
- 3

-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 첫기도 Firs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ক্রপ্র • Tue

2022 April

성령의 선물

The gifts of the Spirit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

12장에서 바울은 성령의 은사에 대해 말합니다.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눠 주신다. 또 몸에는 다양한 지체가 있듯, 모든 성도는 지체로서 한 몸을 이루며, 지체는 각자 자신의 소임대로살아간다. 교회라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여러 일꾼들은 또한 그와 같은 각 지체와 같다.

♬ 새196장(통174장) 성령의 은사를

묵상·고린도전서 12:1-11

통독·고린도전서 12장

- 1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 를 워하지 아니하노니
- ²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 갔느니라
- 3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 4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 5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 6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 7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 8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 9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 게는 한 성령으로 병고치는 은사를,
- 10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 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 시나니
- 11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Reading Insight -

In Chapter 12 Paul speaks of Spiritual Gifts. The Holy Spirit distributes gifts to each person as He pleases. Also, just as there are various members in the body, all the saints form one body as members, and each member lives according to his or her duty. The various workers that make up the body of Christ, the church, are like each member.

[7] (Hymn196) Breathe on me, Breath of God

Meditation •1 Corinthians 12:1-11

Reading Plan • 1 Corinthians 12

- Now concerning spiritual gifts, brothers, I do not want you to be uninformed.
- ² You know that when you were pagans you were led astray to mute idols, however you were led.
- ³ Therefore I want you to understand that no one speaking in the Spirit of God ever says "Jesus is accursed!" and no one can say "Jesus is Lord" except in the Holy Spirit.
- 4 Now there are varieties of gifts, but the same Spirit;
- 5 and there are varieties of service, but the same Lord;
- 6 and there are varieties of activities, but it is the same God who empowers them all in everyone.
- ⁷ To each is given the manifestation of the Spirit for the common good.
- 8 For to one is given through the Spirit the utterance of wisdom, and to another the utterance of knowledge according to the same Spirit,
- 9 to another faith by the same Spirit, to another gifts of healing by the one Spirit,
- 10 to another the working of miracles, to another prophecy, to another the ability to distinguish between spirits, to another various kinds of tongues, to another the interpretation of tongues.
- ¹¹ All these are empowered by one and the same Spirit, who apportions to each one individually as he wills.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의 목적은 무 엇을 위함인가요? (7절) What is the purpose of the gifts of the Holy Spirit? (12:7)

은사는 다양하게 주어지지만 그 일 의 주인공은 누구인가요? (8-11절)

Although various gifts are given, who is the protagonist of the manifestation? (12:8–11)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포틀랜드한인연합감리교회, 오광석(OR)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 김덕신(PA) 목회자를 위한 기도

공동의 이익을 위함이다 For the common good

바울은 성령의 은사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소개하면서 잊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을 지적합니다. 바로 성령께서 은사들을 나눠주시는 목적에 대해서입니다. 바로 믿는 자들의 공동체 속에서 서로를 '유익하게 하기 위함(7절)'이라는 것입니다. 그 용도의 중요성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주어진 성령의 선물(은사)을 가지고 오용하여 문제를 일으킵니다.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자신의 신령함과 거룩함을 뽐내려 한다든지, 성령께서 주신 은사를 자신이 부리는 능력이나 소유인 양 자랑하기도합니다.

때로는 그 은사를 사용해 자신의 명예와 재물과 정욕을 채우는데 사용하기도 합니다. 공동의 이익을 위하지 않고 사유화하려는 시도입니다. 주어진 용도를 자의로 변경하여 죄를 짓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성령의 은사 중 신비하고 인기 있는 은사를 받기 위해 구할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 어떤 유익을 끼치기 원하셔서나에게 주신 은사인가를 생각하며 겸손히 쓰임 받아야 할 것입니다.

When Paul introduces the gift of the Holy Spirit to the Corinthians, he points out the most important thing that should not be forgotten. It is about the purpose of the Holy Spirit imparting the gifts. In the community of believers, "A spiritual gift is given for the common good" (12:7). Those who do not know the importance of its use take the gift of the Holy Spirit and misuse it which causes problems. They try to boast of their spirituality and holiness with the gift of the Holy Spirit, or boast of their gifts as if they were their own ability or possessions.

Sometimes they use that gift to satisfy their own honor, greed, and lust. It is an attempt to privatize and not use it for the common good. It is a sin to arbitrarily change a given purpose. Therefore, believers should not seek to receive mysterious and popular gifts among the gifts of the Holy Spirit. Instead, gifts should be used humbly, thinking about what kind of benefit the Holy Spirit wants to bring to the community of fait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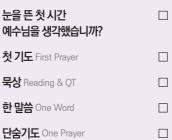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0

2

|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
|---------------------------|
| 처기도 First Prayer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27

2022 April

사랑은 이것이다

This is love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

13장에서 바울은 성령의 은사 중에 가장 중요하고 좋은 '사랑의 은 사'에 대해 소개한다. 이 강력한 사랑의 은사가 바탕이 되지 않는 다른 은사들은 왜곡될 뿐만 아니라 '소용이 없다,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말한다.

♬ 새220장(통278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묵상·고린도전서 13:1-10

통독·고린도전서 13장

- 1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 2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 것도 아니요
- 3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 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 4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 5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 6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 7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 8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 9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 10 온전한 것이 올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Reading Insight «

In Chapter 13, Paul introduces "love" as the most important and wonderful gift of the Holy Spirit. He firmly speaks that other gifts which are not based on this powerful gift of love are not only distorted, but also "to no avail, nothing."

[7] (Hymn220) In One Fraternal Bond of Love

Meditation • 1 Corinthians 13:1-10

Reading Plan • 1 Corinthians 13

- ¹ If I speak in the tongues of men and of angels, but have not love, I am a noisy gong or a clanging cymbal.
- ² And if I have prophetic powers, and understand all mysteries and all knowledge, and if I have all faith, so as to remove mountains, but have not love, I am nothing.
- ³ If I give away all I have, and if I deliver up my body to be burned, but have not love, I gain nothing.
- ⁴ Love is patient and kind; love does not envy or boast; it is not arrogant
- ⁵ or rude. It does not insist on its own way; it is not irritable or resentful;
- 6 it does not rejoice at wrongdoing, but rejoices with the truth.
- ⁷ Love bears all things, believes all things, hopes all things, endures all things.
- 8 Love never ends. As for prophecies, they will pass away; as for tongues, they will cease; as for knowledge, it will pass away.
- ⁹ For we know in part and we prophesy in part,
- 10 but when the perfect comes, the partial will pass away.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사랑의 은사와 다른 은사들은 어떤 관계에 있나요? (1-3절) What'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gift of love and other gifts? (13:1-3)

사랑의 은사가 다른 은사들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8절)

What are the differences between the gift of love and other gifts? (13:8)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베들레헴한인연합감리교회, 김중혁(PA) 벤살렘한인연합감리교회, 차명훈(PA) 국내외 선교사를 위한 기도

사랑은 변합니다 Love is changing

하나님 앞에서 아내와 사랑을 서약한 날 아침, 큰 딸이 정성껏 만든 카드와 캐쉬를 건넸고, 작은 딸은 마음껏 쓰라며 자기 지갑을 통째로 주고 등교를 했습니다. 카드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 사랑으로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두 분 오래오래… 서로 사랑하세요." 주님으로부터도 아이들로부터도 받은 미션은 사랑하며 사는 일입니다. 아이들을 잘 먹이고 입히고 교육시키는 것만이 부모 노릇이 아니라, 아이들 앞에서 부모가 서로 힘써 사랑하며 사는 것이 진정 부모 노릇이구나 싶습니다. 데이트하라고 준 아이들의 코 묻은 돈으로 아내와 점심을 맛나게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해가 갈수록 남편과 아내로서, 아빠와 엄마로서 서로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그럴수록 그런 우리가 얼마나 과분한 사랑을 서로에게 그리고 주님과 아이들로부터 받으며 살고 있는가에 감사하게 됩니다. 한때는, 결혼식에서 한 사랑의 서약을 흔들리지 않고 잘 지키는 것이 부부의 삶 인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매해 경험하는 새로운 차원의 약함과 부족함 속에서 더욱 단단해지고 성숙케 되는 사랑과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은 계속해서 변하고 자랍니다. 저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16년 차의 첫날이 여전히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When I reaffirmed the marriage vows with my wife before God, my first daughter handed me a handmade card and cash and the second daughter gave her entire wallet before heading for school. There was a note on the card. "... Thank you for raising me with love. Please live a long life together loving each other." The mission we have received from the Lord and from our children is to live in love. Parent's roles are not just feeding, clothing, and educating their children well, but really living in love with each other in front of them. I had a meaningful conversation with my wife during lunch as we splurged with money our children gave us.

As the years go by, our weaknesses and inadequacies as husband and wife and father and mother become evident. Then we appreciate the love we receive from each other, the Lord, and our children. At one time, I thought we live a good life if we keep our wedding vows. But I realize that we experience a new level of grace and love in our weaknesses and shortcomings. Love continues transforming and growing. That's the reason I am excitedly waiting for our 16th wedding anniversary!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 0
- 2
- 3

-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 첫기도 Firs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28

2022 April

모든 것을 질서 있게

Everything in an orderly fashion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

14장에서 바울은 다시 은사의 문제로 넘어간다. 특히 방언과 예언의 문제를 다룬다. 고린도전서에 소개하는 방언은 사도행전 2장의 방언 과는 다소 다른 모습으로 보인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든 알아듣게 하 라는 것이다. 방언을 한다면 통역을 붙여 알아듣게 해야 하고, 예언 을 한다면은 질서 안에서 행하여 교회 안에 혼란이 오지 않도록 하 라는 것이다.

♬ 새286장(통218장)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묵상·고린도전서 14:26-33

통독·고린도전서 14장

26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 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 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 하여 하라

27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28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 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29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 별할 것이요

30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31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 니라

32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 나니

33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Reading Insight «

In Chapter 14, Paul again moves on to the matter of spiritual gifts. In particular, he deals with gifts of tongues and prophecies. The gift of tongues introduced in 1 Corinthians appears to be somewhat different from the gift of tongues of Acts 2. What is important is that the message needs to be communicated. If you speak in tongues, you should interpret them to help hearers to understand them, and if you prophesy, you should speak in an orderly way so that there is no confusion in the Church.

🎵 (Hymn286) Come Into My Heart, Blessed Jesus

Meditation •1 Corinthians 14:26-33

Reading Plan • 1 Corinthians 14

- **26** What then, brothers? When you come together, each one has a hymn, a lesson, a revelation, a tongue, or an interpretation. Let all things be done for building up.
- ²⁷ If any speak in a tongue, let there be only two or at most three, and each in turn, and let someone interpret.
- **28** But if there is no one to interpret, let each of them keep silent in church and speak to himself and to God.
- 29 Let two or three prophets speak, and let the others weigh what is said.
- 30 If a revelation is made to another sitting there, let the first
- 31 For you can all prophesy one by one, so that all may learn and all be encouraged,
- 32 and the spirits of prophets are subject to prophets.
- 33 For God is not a God of confusion but of peace. As in all the churches of the saints.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방언을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하나요? (26절) What is the most important thing to follow when speaking in tongues? (14:26)

예언을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하나요? (31-33절) What is the most important thing to follow when prophesying? (14:31-33)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인디아나한인연합감리교회, 이성덕(PA) 필라델피아제일연합감리교회, 박성순(PA) 교단총회와 리더를 위한 기도

질서 안에서 덕을 세우라 Build up the Church in Order

고린도 교회의 예배 순서에는 "찬송시", "가르치는 말씀", "계시"(예 언), "방언" 그리고 "통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26절). 그러나 그 모 든 예배의 순서는 서로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해야 한다는 규칙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먼저, 이 교회 안에서 배우지 않 은 언어(방언)로 말하는 사람들을 위해 바울은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습 니다. "방언의 은사를 지닌 자는 두세 사람만 말하고, 한 번에 한 사람 만 말해야 하며, 누군가는 그 말을 통역해야 한다. 통역이 없다면 그는 조용히 해야 하고 집에서 홀로 기도해야 한다."

누구보다 방언 말하기에 능한 바울이 이러한 규칙을 세운 것은 방언 이란 것이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종류의 것이 아님을 밝히고 있는 것입 니다. 또한 예언하는 자들에게도 가이드라인을 줍니다. "역시 두세 사 람만 말할 수 있고, 영들을 분별하는 은사를 지닌 사람들이 그 예언을 점검해야 하며, 먼저 말한 사람을 방해하지 말고 차례로 말해야 한다." 이 또한 예언의 은사는 감동이 온다고 누구나 아무 때나 말하게 둘 것이 아니라, 질서 안에서 행하도록 하라는 바울의 권면이 단호하게 드러나 고 있습니다.

The order of worship in the Corinthian Church included "hymns," "teaching words," "revelations," "tongues," and "interpreters" (14:26). However, it makes clear that rules are necessary so that all of those aspects of worship are done in order to build virtue in the church. First, Paul is giving guidelines for those who speak in languages (tongues) that are new to the church. "If anyone speaks in a tongue, two- or at most three - should speak, one at a time, and someone must interpret."

Paul also gives guidelines to those who prophesy. "Two or three prophets should speak, and the others should weigh carefully what is said. And if a revelation comes to someone who is sitting down, the first speaker should stop." Paul firmly exhorts that prophesy should not be given any time the inspiration is given but has to be aiven in ord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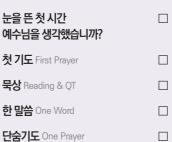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0

2

| 눈을 뜬 첫 시간 |
|-------------|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29

2022 April

부활은 당연한 것이다

Resurrection is inevitable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15장에서 바울은 몸의 부활을 논증한다. 당시 헬라 철학은 몸을 하 등하고 열등한 대상이라고 이해했기 때문에 몸의 부활에 대해 굉장히 부정적이고 거부감을 표시했다. 일부의 성도들이 이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 부활을 부인했다. 바울은 부활은 이미 구약에서 이미 예 언되었고, 부활을 해야 새 생명이 주어진다고 말한다. 부활이 없다면 왜 죽음을 무릅쓰고 믿음을 지키느냐고 질문합니다.

♬ 새164장(통154장) 예수 부활했으니

묵상·고린도전서 15:12-22

통독·고린도전서 15장

12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 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가운데서 부활이 없다하느냐

13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 나지 못하셨으리라

14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15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 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16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 도 다시 살아나시 일이 없었을 터이요

17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 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18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19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 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 이리라

20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 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21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22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Reading Insight

In Chapter 15, Paul argues for the resurrection of the body. At the time, Greek philosophy was very negative and rejective of the body's resurrection because it understood that the physical body is a lower and inferior object. Some Christians, influenced by this Greek philosophy, denied the resurrection. Paul says that resurrection has already been prophesied in the Old Testament and that a new life is given to only those who are resurrected. If there is no resurrection, why do they risk their lives to keep their faith, Paul questions.

7 (Hymn164) Christ, the Lord, is Risen Today

Meditation •1 Corinthians 15:12-22

Reading Plan • 1 Corinthians 15

- 12 Now if Christ is proclaimed as raised from the dead, how can some of you say that there is no resurrection of the dead?
- 13 But if there is no resurrection of the dead, then not even Christ has been raised.
- 14 And if Christ has not been raised, then our preaching is in vain and your faith is in vain.
- 15 We are even found to be misrepresenting God, because we testified about God that he raised Christ, whom he did not raise if it is true that the dead are not raised
- 16 For if the dead are not raised, not even Christ has been raised.
- 17 And if Christ has not been raised, your faith is futile and you are still in your sins.
- 18 Then those also who have fallen asleep in Christ have perished
- 19 If in Christ we have hope in this life only, we are of all people most to be pitied.
- ²⁰ But in fact Christ has been raised from the dead, the first-fruits of those who have fallen asleep.
- 21 For as by a man came death, by a man has come also the resurrection of the dead.
- 22 For as in Adam all die, so also in Christ shall all be made alive.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부활이 없다면 그것은 결국 어떤 이야기로 이어지나요? (16-18절) What does no resurrection lead to? (15:16-18)

예수님을 '둘째 아담'이라고 말하 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21-22절)

What does it mean that Jesus is the "second Adam?" (15:21–22)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필라등대교회, 조병우(PA) 시온한인연합감리교회, 고요한(RI) 한인총회, 한인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

부활은 오늘 이야기입니다 Resurrection is reality for today

예수님의 부활은 '내일'의 '소망'일 뿐 아니라 바로 '오늘'의 '능력'이어 야 합니다. 부활의 능력은 죽음의 권세를 이긴 증거이자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활의 능력'으로 삼고 사는 사람은 더 이상 죽음의 영향력에 휘둘리지 않으며, 그로 인한 절망으로 인해 주저앉지 않습니다. 또, 예수님을 '생명의 능력'으로 삼고 사는 사람은 생명이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 계셔서 동행하시는 한, 아무것도 끝나지 않았으며, 어떤 일도 '너무 늦지 않았음'을 선포하며 삽니다. 더 이상 내 생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살아 계시는 한 육신은 죽어도 아직 죽은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육신은 죽었으나 예수님의 생명에서 분리되지 않은 자들을 '잠자는 자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단순히 오래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본 사람이 있다더라'라는 말을 옮기는 증인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가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과 함께 살면서, 더 이상 죽음의 영향력과 그로 인한 절망과 소망 없음에 사로잡히지 않고 사는 것을 보임으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부활'이시고 '생명'이십니다.

Jesus' resurrection should not only be the "hope" of tomorrow, but also the "power" of today. The resurrection is a witness of dominance over the power of death. Therefore, anyone who lives with Jesus by the "power of resurrection" is no longer swayed by the influence of death, and he does not give up because of the despair that ensues. In addition, people who live with Jesus as the "power of life" who lives in us, proclaim that nothing is hopeless, and that nothing is "too late" because the Lord of life lives in us and walks with us.

The body is not dead yet even if it dies, because I no longer live in my life, but I live in the life of Jesus. The Bible thus calls those whose bodies are dead but not separated from Jesus' life as "sleepers." That's why we must live today as "witnesses of the resurrection." Witnesses do not only carry the label "some people saw Jesus resurrected a long time ago," but rather testify with their lives by living with Jesus as the source of the resurrection and no longer fearing death possessed with despair and hopelessness. We need to be the witnesses of resurrection by living such a life. Jesus is the "resurrection" and "life" for us today.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 0
- 2
- 3

-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 첫기도 Firs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ERSI-Sat

2022 April

성도들을 돕는 헌금

Donations to help the saints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

16장에서 바울은 편지를 마무리하며 연보의 문제를 다루고 지체들을 문안한다. 이곳의 연보는 구제를 위한 것이고, 중요한 헌금의 원리가 소개된다. 헌금은 미리 준비되어야 하고(2절), 기분 내키는 대로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하여 미리 모아 두라고 한다. 편지를 마치면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14절)고 권한다.

♬ 새575장(통302장) 주님께 귀한 것 드려

묵상·고린도전서 16:1-9

통독·고린도전서 16장

- 1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 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 2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 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 3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 4만일나도가는것이합당하면그들이나와함께가리라
- 5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 6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 7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 8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 9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Reading Insight «

In Chapter 16, Paul concludes his letter, dealing with the issues of the collection and gives greetings to the members of the church. The collections here are for relief works, and the important principles of collections are introduced. The donations should be prepared in advance (16:2), and they should be planned and collected in advance, rather than at whim. At the end of the letter, Paul exhorts to "do all things with love." (16:14)

(Hymn575) Give of Your Best to the Master

Meditation •1 Corinthians 16:1-9

Reading Plan • 1 Corinthians 16

- ¹ Now concerning the collection for the saints: as I directed the churches of Galatia, so you also are to do.
- ² On the first day of every week, each of you is to put something aside and store it up, as he may prosper, so that there will be no collecting when I come.
- ³ And when I arrive, I will send those whom you accredit by letter to carry your gift to Jerusalem.
- ⁴ If it seems advisable that I should go also, they will accompany me.
- ⁵ I will visit you after passing through Macedonia, for I intend to pass through Macedonia,
- 6 and perhaps I will stay with you or even spend the winter, so that you may help me on my journey, wherever I go.
- ⁷ For I do not want to see you now just in passing. I hope to spend some time with you, if the Lord permits.
- 8 But I will stay in Ephesus until Pentecost,
- ⁹ for a wide door for effective work has opened to me, and there are many adversaries.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바울은 헌금을 어떤 자세로 준비하라고 권합니까?(2절)

What attitude does Paul encourage us to have to prepare for the collection? (16:2)

바울은 그 헌금을 예루살렘에 전 달할 사람을 누구로 정하겠다고 하 나요? (3절)

Who will be those who will deliver the collection to Jerusalem? (16:3)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그린빌한인연합감리교회, 신규석(SC) 찰스톤한인연합감리교회, 배연택(SC) 성도의 가정, 건강, 자녀를 위한 기도

주일에 헌금을 준비하라

Prepare your offering on the Lord's Day

바울은 "성도"(1절), 곧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헌금 모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도들이 기근 때문에 어려움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행 11:28). 그리고 헌금을 모으는 지침을 자신이 세운 교회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헌금을 준비할 때, '매주 첫날에' 준비하라고 합니다. 당시 그리스와 로마 세계는 '주'(week)라는 개념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바울이 유대교 달력을 사용하고 있음을 성경은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매주 첫날'(2절)이란 안식일 다음날인 '주일'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바울의 이 연보(한금)에 대한 언급에서 몇 가지 바울의 권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각 사람이"라는 표현은 가난한 사람이나 부 유한 사람이나 각자의 상황에 따라 모두가 참여하기를 독려하고 있다는 것이고, '수입에 따라'라는 표현으로 보아 어떤 특정한 액수를 정해서 말하진 않고 있지만, 각자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정해진 기준을 두고 자 유롭게 헌금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아 두어서'라는 표 현에서 보듯이 매 주일에 연보를 위해 정기적으로 모아 두어서 하는 것 을 권하고 있음을 봅니다.

Paul is working on a collection for the saints at the Church of Jerusalem (16:1). Because the saints in Jerusalem may have been experiencing difficulty because of the famine, (Acts 11:28) he gives instructions about collecting donations to the churches he has planted. Paul asks the Corinthian church saints to prepare on the "first day of every week" as they collect their offerings. At the time, the Greek and Roman worlds were unaware of the concept of "week," so the Bible suggests that Paul was using the Jewish calendar. Therefore, "first day of every week" (16:2) means "Sunday" the day after the Sabbath.

We can find some of Paul's counsel in his reference to this collection (offering). First of all, the phrase "each person" encourages everyone to participate according to their financial circumstances whether they are poor or wealthy. "Depending on the income," does not reference a specific amount, but he encourages them to make free donations based on their own criteria set by their respective economic circumstances. Finally, as we see in the phrase "gather," he recommends that they gather regularly for collections each Sunday.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0

2

3

|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
|---------------------------|
| 처기도 First Prayor |

국상 Reading & QT

한 말씀 One Word

단숨기도 One Prayer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하루 \$1로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느헤미야운동

\$1 for every day, we are planting the church of Jesus Christ!

한인연합감리교회 교회개척 운동 Nehemiah Project-Church Planting Movement 느레미야 \$ 1 운동 Mission Fund 웹사이트 https://go.missionfund.org/kumcnehemiah

교회를 세웁니다 We plant a church at a time 미래를 준비합니다 We prepare for future 하나님께서 이끄십니다 God is leading our way

온라인 헌금 Online Giving

□한달 \$ 10, \$ 20, \$ 30, \$ 50 per month □하루 \$ 1 per day □한달 \$ 30 per month

여러분의 1불 헌금은 한인연합감리교회 개척을 위해 사용합니다.

Your \$1 offering will be used for church planting projects of Korean United Methodist Churches

연합감리교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에 사용됩니다.

Your offering will support for future of The United Methodist Church.

- 한어회중 Korean speaking congregation 영어회중 English speaking congregation
- 차세대회중 Next generation ministry
- 다인종사역 Multi-ethnic ministry

느헤미야 운동의 교회개척 사역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요?

How can we participate into church planting projects for Nehemiah project?

- 가정에서 함께 드립니다. You may give as a family.
- 자녀들과 함께 매달 드립니다. You may share with your children.
- 신용카드로 헌금합니다. You would give with your credit card.
- 느헤미야 운동을 통해, 비과세기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This gift can be listed as a tax-deductible gift for your tax report,

Mission Fund 웹사이트 https://go.missionfund.org/kumcnehemiah

우편으로 보내실 수도 있습니다. Check payable to Nehemiah Project

교회를 세우는 느헤미야 운동본부 Nehemiah Project

P O Box 5553 Englewood NJ 07631 / Email contact: kumcdevotion@gmail.com

2022년 4월 기쁨의 언덕으로

소그룹 교재

먼저오심 하나님을 알기 이전 이미 우리 삶에 다가오셔서 역사하신 그분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만나주심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눕니다.

다듬으심 우리를 다듬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성결과 성화의 은혜)을 경험합니다.

들어쓰심 주님께 쓰임 받는 사람으로,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쁨을 함께 나눕니다.

● 첫째 주 소그룹 모임 예수님만 복음입니다 | 마가복음 1:1-8

● 둘째 주 소그룹 모임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다 | 마가복음 4:26-32

● 셋째 주 소그룹 모임 크게 잘못 생각하고 있다 | 마가복음 12:18-27

● 넷째 주 소그룹 모임 갈릴리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 마가복음 16:1-8



첫째 주 소그룹 모임 본문 마가복음 1:1-8

예수님만 복음입니다



새185장(통179장) 이 기쁜 소식을 새28장(통28장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복음성가) 주만 바라볼찌라

01 여는 질문

최근들은소식중가장 '기쁜소식'은 무엇인지 나눠봅시다.

02 본문이해

본문 2, 3절에 보면,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말라기 3장 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를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 말은 세례 요한이 주께서 보내신 '그 사자'이며 곧 말라기가 약속한 '엘리야'(말 4:5)라는 의미입니다.

이어서, 7절에서 요한은 자신의 뒤에 오시는 분에 대해 소개하면서, "그 능력 많으신 분의 신발 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당시에는 전통적으로 종들이 주인의 신 발 끈을 풀어주는 일을 했기 때문에, 자신은 주님 앞에서 그 천한 일조차 감당할 자격이 없 는 존재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복된소식' 혹은 '좋은 소식'(good news) 이란 뜻입니다. 당시에 유대 지역에 회자되어 사용되던 '복음'(1절)이란 단어는 '전쟁에서 승리한 소식'을 의미했습니다. 혹은 로마황제가 등극하거나 왕위를 계승할 후손이 태어난 것을 두고 사용하는 말이었습니다. 특히옥타비아누스 황제는 자신이 왕이 되어 전쟁이 그치고 마침내 평화가 왔다고 하며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참된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우리 삶에도 끊임 없이 싸움과 전쟁이 일어납니다. 죄와의 싸움, 고통과 두려움과의 싸움 그리고 아무리 로마의 황제라도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죽음'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 누구도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고, 누구도 죄로 인한 고통과 사망의 두려움과 절망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님만 그 문제를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로 해결하셨습니다.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어깨를 펴고 고개도 들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게 해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사명을 위해 살게 하셨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참된 '기쁜 소식'입니다.

03 말씀속으로

- 1. 주님께서 오시는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3-5절)
- 2. 말라기 이후 거의 4세기 동안 선지자를 만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 요한의 예 언을 들으며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5절)

04 삶속으로

- 1. 지금도 우리는 매일 주님께서 우리 삶 속에 오실 수 있도록 길을 곧게 해야 합니다. 어떻게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살 수 있을지 나눠봅시다.
- 2. 내 삶은 언제, 어떻게 주님의 복음을 품은 삶이 되었나요? (1절)

05 암송구절 마가복음1:1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06 자녀와나눔

'예수님을 통해' 기쁜 일이 생길 때는 어느 때이고, 그냥 '예수님' 이 좋을 때는 언제인지 얘기 해봅시다.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다



새370장(통455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새545장(통344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뵈어도 (복음성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01 여는 질문

식물이나 동물을 키워 본 경험 중 인상 깊었던 순간을 하나씩 나눠 봅시다.

02 본문이해

겨자씨는 당시의 농부들이 사용했던 파종 씨앗 중에 가장 작았습니다. 당시 이 땅의 거대한 제국들에 견주어 하나님 나라를 연상케 하기에는 보잘것없이 작았습니다. 튼실한 나무라면 백향목 정도의 고급스럽고 튼실한 이미지를 주실 수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자라나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작은 겨자씨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자라나는 것을 비유로 드셨습니다.

저희 집 뒤뜰에 작은 정원이 있는데 언젠가 성도님이 가져다주신 깻잎 모종을 옮겨 심어 놓았습니다. 처음엔 겨우 주먹만 한 작은 모종이었습니다. 그동안 식물을 제대로 키워본 경험이 없어서 과연 잘 키울 수 있을까 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첫 며칠간 물을 몇 번 준 것을 제외하고는 해 준 것이 없었는데 몇 주 후에 보니, 그 작았던 모종이 어느새 제 무릎만큼 자라 있었고, 손바닥만 한 깻잎들도 꽤 많이 열려서 '수확'이란 것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시간이 지나자 거기에서 씨가 날려서 여기저기에 도 깻잎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모종을심어 놓고서 한동안 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자는 동안에 또 집을 비운 동안에도 땅이 영양분을 공급하고 하늘에서 비가 내려 깻잎을 튼실하게 키워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27절의 말씀과 같았습니다.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되는 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 밭에 떨어뜨려 주신 '말씀'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씨앗'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믿음으로 겨자씨만한 씨앗을 심는 일

과 같습니다. 순종으로 심은 그 씨앗이 밤낮 자고 일어나는 사이, 우리 인생의 텃밭에도 하나님 나라의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03 말씀속으로

- 1. "씨를 땅에 뿌린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26절)
- 2. 겨자씨 한 알이 땅에 심긴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31절)

04 삶속으로

- 1. 말씀의 씨앗이 자라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비유가 내 삶에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요? (26,27절)
- 2. 최근 내 마음 밭에 떨어진 말씀에 대하여 겨자씨 같은 작은 순종으로 심었던 때는 언제였나요? (31절)

05 암송구절 마가복음 4:26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06 자녀와나눔

하나님 나라를 위해 농부처럼 말씀의 씨앗을 부지런히 뿌리며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셋째 주 소그룹 모임 본문 **마가복음 12:18-27**

크게 잘못 생각하고 있다



새597장(통378장)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새425장(통217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복음성가) 하나님의 음성을

01 여는 질문

나중에 알고보니 큰 오해를 하여 실수를 했던 경험들을 나눠 봅시다.

02 본문이해

사두개인들은 대체로 귀족과 유력한 제사장 가문의 사람들로 구성되었으며,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공의회였던 산헤드린을 주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종교적으로 보수적인 성향을 지녔고, 모세오경(창세기에서 신명기까지)만을 신적인 권위를 지닌 문서로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오경이 부활을 뒷받침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부활 관념 자체를 거부한 것입니다.

또 그들이 논리의 예시로 삼고 있는 '일곱 형제 중의 진짜 아내'이야기 역시 신명기 25장에 나오는 '수혼법'의 원리를 적용하고 있는데, '수혼법'은 사망한 형제의 과부와 그 죽은 자의 가계를 보호하기 위한 모세의 율법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의 질문은 모두 이 땅에서의 법들을 전제로 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아닌 이 땅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큰 오해를 하며 잘못 생각하고 있다고 하십니다(24절).

이어서 예수님은 모세오경을 좋아하는 사두개인들에게 보란 듯이 하나님은 모세오경의 중심인물인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의 하나님'이란 것을 강조하십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하나님께서는 왜 이미 죽고 없는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의 하나님이시라'고 연신 말씀을하셨겠느냐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죽고 없는 그 족장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부활하여 산 사람들이 될 살아있는 족장들의 하나님이시기에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성

경을 잘 안다고 자부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일침을 가하십니다. "너희는 성경도 읽어보지 않았느냐?"(28절)

03 말씀속으로

- 1.예수님은 사두개파 사람들의 잘못된 질문과 주장이 어디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하셨나요? (24절)
- 2.사두개인이 하고 있었던 '큰 오해'는 무엇이었을까요? (25-27절)

04 삶속으로

- 1. 이 땅에서의 작동 원리를 가지고 하늘에 속한 일들에 적용하여 오해를 한 경험이 있다면 나 눠봅시다.
- 2. 내가 전체를 다 알고 있다는 태도로 섣불리 단정 지었다가 오해를 했던 경험이 있다면 나눠 봅시다.

05 암송구절 마가복음 12:24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므로 오해함이 아니냐."

06 자녀와나눔

양쪽 이야기를 다 들어보지 않고 섣불리 판단하여 가족이나 친구를 오해했던 경험을 이야기 해보자



갈릴리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새160장(통150장) 무덤에 머물러 새164장(통154장) 예수 부활했으니 (복음성가) 주의 이를 높이며 주를 찬양(Lord Llift your name on high)

01 여는 질문

사는 동안 '죽을 뻔했던' 사건이나 경험에 대해 하나씩 나눠 봅시다.

02 본문이해

일곱 귀신이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곧 성모 마리아,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 살로메가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기 위해서 향품을 샀습니다(1절). 안식일이 지나야 향품을 파는 가게들이 문을 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안식일에는 안식일 법에 의해 예수님의 무덤에 있는 돌을 옮길 수도 없어서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발라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인 토요일이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인 주일 새벽 일찍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발라드리려고 무덤으로 향했습니다(2절). 그들은 새벽같이 일어나 아직 어두울 때 무덤을 향하여 가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자기들도 잡혀갈까 봐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지만 여인들은 담대하게 어둠을 헤치고 무덤으로 향했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또한 천사는 예수께서 먼저 갈릴리로 가서 기다리겠다는 소식을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전하라고 합니다(7절).

갈릴리는 예수께서 제자들을 처음 만나 제자 삼은 곳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그곳에서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실패를 하고 고향 갈릴리로 내려간 것이었지만 예수님은 그 실패의 한복판에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새로운 시작(new beginning)을 계획하셨습니다. 주님은 단순히 죽음에서 부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절망과 자책으로 죽었던 제자들의 삶을 다시 일으켜 살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미천하고 부끄러운 갈릴리에도 먼저 오셔서 기다리실 것입니다.

03 말씀속으로

- 1.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이유와 때는 언제였나요? (1-2절)
- 2. 예수님께서는 왜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만날 것이라고 하셨을까요? (7절)

04 삶속으로

- 1. '이제 끝이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절망에 사로잡혔을 때에 만났던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는지 나눠 봅시다.
- 2. 되돌아가기 싫은 누추하고 부끄러운 곳이면서도 동시에 주님의 은혜를 처음 경험하였었 던 내 인생의 '갈릴리'는 언제 혹은 어떤 모습이었나요?

05 암송구절 마가복음 16:7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너희가 거기서 뵈오리라."

06 자녀와나눔

"예전엔 내가 왜 그랬지?"하고 후회가 되는 말이나 행동이 있었다면 얘기해 보자.



Only Jesus is the Gospel



Oh, Spread the Tidings'round Come, Thou Fount of Every Blessing We will set our eyes on You

01 Opening Discussion

Let us share the "Happiest News" you have heard recently.

02 Understanding today's passage

Mark 1:2–3 says, "I will send my messenger ahead of you, who will prepare your way"— "a voice of one calling in the wilderness, 'Prepare the way for the Lord, make straight paths for him.'" This quote is from Malachi 3:1 which says, "I will send my messenger, who will prepare the way before me. Then suddenly the Lord you are seeking will come to his temple; the messenger of the covenant, whom you desire, will come," says the Lord Almighty." It means that John the Baptist is the "messenger" sent by the Lord, and he is the Elijah (4:5) promised by Malachi.

Then, in v. 7, John introduces the person who comes after him, saying, "the straps of whose sandals I am not worthy to stoop down and untie." At that time, servants used to untie their master's shoelaces. John is confessing that he is not even worthy of such a task before the Lord.

The gospel means "blessed news or "good news." The word "gospel" (1:1), which was used in Judea at the time, meant "news of victory in war." Or it was used to announce the enthronement of a Roman emperor or the birth of the heir of the emperor. In particular, Emperor Octavianus said that he was the "gospel" because war had ceased and peace had finally come since he became a king.

But the true gospel is the gospel of Jesus Christ, the Son of God. There are constant fights and wars in our lives. There is a war against sin, a war against pain and fear, and the "death" problem that no Roman emperor could defeat. No one can solve the problem of sin and death, and no one can be free from the fear and despair caused by sin and death. Only Jesus solved the problem with his redeeming death and resurrection on the cross. He made us, the servants of sin, to be children of God. He enabled us to stretch our shoulders, hold our heads up, and live in hope for the kingdom of God. He let us live with missions for the Kingdom of God on earth. Only the gospel of Christ is true "good news."

03 Into the Word

- 1. What does it mean to prepare the Lord for his coming and straighten his way? (1:3-5)
- 2. The Israelites had not met prophets for nearly four centuries since Malachi. What do you think the Israelites felt when they heard John the Baptist's prophecies? (1:5)

04 Into our life

- 1. Even now, we need to straighten the path so that the Lord can come into our lives every day. Let's share how we can live in the Lord's way.
- 2. When and how have you embraced the Gospel and begun to live for Christ? (1:1)

05 Memory Verse Mark 1:1

"The beginning of the gospel of Jesus Christ, the Son of God."

Of Sharing with your children

Please share when you had good things happening to you "through Jesus" and when you simply loved "Jesus."



The Kingdom of God is like this



The Trusting Heart to Jesus Clings
Down in the Valley Where the Mists of Doubt Arise
Blessed Be the Lord God Almighty

Opening Discussion

Please share an inspiring experience you had while raising plants or animals.

02 Understanding today's passage

Mustard seeds were the smallest sowing seeds used by farmers at the time. They were insignificantly small to be reminiscent of the Kingdom of God, compared to the great empires of the land. If it was a solid tree, you could have given a luxurious and solid image of a cedar tree. However, the kingdom of God is something that grows. That's why Jesus used the image of small mustard seeds to describe the Kingdom of God that grows in God's timing in God's way.

There is a small garden in my backyard. One day we planted the seedlings of sesame leaves that a church member brought to me. At first, it was a small seedling that was barely a fistful. I had never grown a plant properly before, so I wondered if I could grow it well. However, I hadn't done anything except watering it a few times in the first few days. But after a few weeks, I noticed that the tiny seedlings had grown to my knees, and had plenty of palm-sized sesame leaves, which we "harvested." And as time passed, the seeds blew from there and the sesame leaves began to grow here and there. I planted seedlings and forgot about them. However, while I was asleep and away from home, the earth nourished and the heaven gave rain to grow sesame leaves.

It was like the words in verse 27. The Word, which has been dropped into the field of our hearts through the Holy Spirit, is the "seed of the kingdom of God." Obeying those words is like planting a seed as small as mustard seeds by faith. As the seeds planted by obedience grow day and night, the garden of our lives will also bear beautiful and abundant fruit in the Kingdom of God.

03 Into the Word

- 1. What does it mean to "plant seeds in the ground?" (4:26)
- 2. What does it mean to "plant a grain of mustard seed in the ground?" (4:31)

04 Into our life

- 1. How does the parable of the seed of the Word growing and bearing fruit manifest in your life? (4:26, 27)
- 2. When was the last time that you obeyed the Word of God that was seeded in your heart? (4:31)

05 Memory Verse Mark 4:26

"The kingdom of God is as if a man should scatter seed on the ground."

Of Sharing with your children

What is it like to live diligently sowing the seeds of the Word for the Kingdom of God like a farmer?



You are in error



Once Knowing not the Lord for From His Face, Have Thine own way, Lord If I pray to hear the voice of God

01 Opening Discussion

Let's share some experiences in which you later found out that there was a big misunderstanding and made a mistake.

Understanding today's passage

The Sadducees were from the powerful family of priests and aristocrats, and a dominant power block in the Sanhedrin that was the governing body of Israel. They were religiously conservative, and recognized only the Pentateuch (from Exodus to Deuteronomy) as canon which were documents with divine power. Therefore, they claimed that the Pentateuch did not support resurrection and refused to support even the concept of resurrection itself. An example of their argument, the story of the "true wife among the seven brothers" was based on the principle of "Levirate Law" in Deuteronomy 25, but the Levirate Law was one of Moses' laws to protect the family of deceased brothers and surviving widows. The Sadducees' questions were all premised on the laws of that time. Thus, Jesus said that they had a great misunderstanding about scripture and the power of God because their perspective was based on their space and time, not the eternal kingdom of God (12:24).

Next, Jesus emphasized to the Sadducees who loved the Pentateuch, that God is the "God of Abraham, Jacob, and Isaac," the central figures of the Pentateuch. If there is no resurrection, why would God keep saying, "He is the God of Abraham,

Jacob, and Isaac," who were already dead. This is because God is not the God of the patriarchs who are already dead, but the God of the living patriarchs who will be resurrected and become living people. To those who claimed to know scripture well, Jesus asked "Have you not even read the scripture?" (12:28)

03 Into the Word

- What did Jesus say was the basis of the Sadducees' error of question and affirmation? (12:24)
- 2. What was the "badly mistaken understanding" of the Sadducees? (12:25–27)

04 Into our life

- 1. If you experienced misunderstanding because you applied the principle of operation in this age to heavenly things, let's share it.
- 2. If you have had a misunderstanding after making hasty conclusions because you had an attitude that you know everything, please share.

05 Memory Verse Mark 12:24

"Jesus said to them, "Is this not the reason you are wrong, because you know neither the Scriptures nor the power of God?""

06 Sharing with your children

Let's talk about an experience in which we made hasty judgments without hearing both sides of the story and misunderstood a family member or friend.



It is starting again in Galilee



Low in the Grave He Lay Christ, the Lord, is Risen Today Lord I lift your name on high

01 Opening Discussion

Let's share one incident or experience in our lives when we "nearly died."

02 Understanding today's passage

Mary Magdalene, who was possessed by seven demons, the mother of James, the Virgin Mary, and John and Salome, the mother of James, bought spices to anoint the body of Jesus (16:1). This is because shops selling spices could not open until after the Sabbath. Moreover, on the Sabbath, the stone from the tomb of Jesus could not be moved under the Sabbath law, so spices could not be anointed on the body of Jesus. After the Sabbath (Saturday) they went to the tomb to anoint the body of Jesus early in the morning on Sunday, the first day after the Sabbath (16:2). They got up early in the morning and were on their way to the tomb while it was still dark. The disciples were afraid that they would be arrested too, so they locked the door and hid, but the women boldly pushed through the darkness and headed to the tomb, where they heard the news that Jesus had risen.

The angel told the disciples and Peter that Jesus will go to Galilee first and wait for them (16:7). Galilee was the place where Jesus first met his disciples and called them to be his disciples. The risen Lord wanted to start all over there. His disciples had failed to follow Jesus and went down to his hometown of Galilee, but in the midst of that failure Jesus planned a new beginning to make everything new. The

Lord not only resurrected from the dead, but resurrected the lives of the disciples who had failed from despair and self-blame. The Lord will come first and wait for us even in Galilee, where we are lowly and shameful.

03 Into the Word

- 1. Why and when did the women visit the tomb of Jesus? (16:1-2)
- 2. Why did Jesus say that he would meet his disciples in Galilee? (16:7)

04 Into our life

- 1. Let's share God's Word you encountered when you were caught up in despair to the point where you thought, "This is the end."
- 2. When or what was "Galilee" in your life when you first experienced the grace of the Lord when being shabby and ashamed that you did not want to return?

05 Memory Verse Mark 16:7

"He is going before you to Galilee. There you will see him."

Of Sharing with your children

"Why did I do that in the past?" If you have said or done something you regret, let's talk about it.

MISSIONARY OF THE MONTH



Advance: # 10836Z

Country: Dominican Republic

Serving At: Dominican Evangelical Church

Home Country: United States of America, North America

Spouse: Gordon Graner

Graner, Ardell

Ardell Graner is a missionary with the General Board of Global Ministries of The United Methodist Church serving with the Iglesia Evangélica Dominicana (Evangelical Church in the Dominican Republic) after 23 years in Bolivia.

She works in the area of Christian education within the united denomination that brings together churches started by Methodist, Presbyterian, Moravian, and Wesleyan missionaries.

"We have been in Santo Domingo since April 4, 2013, and are visiting the 70 churches on the island and listening," she says. "We are in a new country, with a new culture and reality, and what seems, many days, a 'new' language with the Caribbean accent, fast speaking, and different vocabulary.

"The Dominican people are very beautiful spiritually and in every other way. What is very exciting is the passion and enthusiasm they share on a daily basis."

A native of McHenry, North Dakota, Ardell holds a Bachelor of Science degree in Horticulture from North Dakota State University in Fargo. She completed a Master of Education at the University of Minnesota in 2000.

While living in Chicago, Ardell and husband Gordon worked for the World Relief Refugee Program. During that time they sponsored a young Vietnamese refugee in their home and assisted him in resettling in Chicago.

Ardell taught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to newly arrived refugees at a private college and a public college in Chicago. She worked at the University of Kentucky in Lexington for two years doing tomato research while Gordon was attending seminary. Prior to that, Ardell worked a number of years as a laboratory technician in entomology at North Dakota State University doing research on sunflower insects.

Ardell and Gordon have three children: Jenny, Samuel, and Hannah. Hannah was born in Cochabamba and holds dual US and Bolivian citizenship.

Follow Me : http://granerfamily.org

Contact Information: bolgraner@hotmail.com

사귐의 기도 16

김영봉목사 와싱톤사귐의교회, VA)

기도문으로 기도하기

"거목사이를 걸으니 내키가더자랐다"

수년 전, 비행기 안에서 한 성공회 신부의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은 경험이 있다. 그는 비행기가 이륙하기 전, 어수선한 분위기 속 에서도 기도서의 도움을 얻어 기도에 집중 하고 있었다. 분위기에 동요됨 없이 기도하 는 그의 모습을 보며 깨달은 바가 있었다.

'아, 기도서가 이래서 필요하구나!'

그 후 오래전 사두었던 영문 기도서를 꺼내 그 책에 수록된 주옥같은 기도문을 읽으며 기도드렸다. 얼마 지나지 않아 시편을 읽으며 기도하는 방법을 터득하게 되었고 그일은 기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어 주었다. 이처럼 모범 기도문을 읽으며 기도하면, 깊은 영성에 도달했던 사람들의 영향으로 시야가 넓어지고 의식이 확대되어간다. 시편 기도문과 기도서의 기도문을 읽으며 얼마나자주 멈추어 감탄했는지!

기도문을 통해 드리는 기도에는 '주기도', '시편 기도', '모범 기도' 등 3가지가 있다.

먼저 '주기도'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 도문의 도움으로 기도하는 방법이다. 복음 서에는 예수님의 기도문이 몇 개 나온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소위 '주기도문'이 다. 우리가 암송하는 주기도문은 마태복음의 본문(마 6:9-13)'으로 누가복음의 본문(눅 11:2-4) 보다 훨씬 예배적인 분위기다. 중심 내용에는 별 차이가 없으며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맞게, 누가는 이방인들에게 맞도록 약간씩 수정했다.

예수님이 모범 기도문을 남기신 의도는 기도문을 기계적으로 외우라는 게 아니라 하나의 모델을 주신 것이다. 따라서 기도문을 암송하는 것에 그쳐서 는 안된다. 그 의미를 파고들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기도문의 한 구절 한 구절을 묵상하며 기도드리는 게 바람직하다. 한 예를 들어보자.

'하늘에계신우리아버지'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우주 저편에 계시다는 뜻은 아니겠지요. 아버지께서는 땅에 있는 우리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뜻인 가요? 우리는 피조물이고 아버지는 창조주임을 말하는 것 아닌가요? 아버지, 제가 아버지의 격에 맞는 찬양과 예배를 드리게 해주십시오. 제가 피조물임을 잊지 말게 해주십시오.

또한 '시편'은 매우 훌륭한 기도문 모음집이다. 그 안에는 찬양과 탄식, 선 포, 기도가 있다. 형식은 다양하지만 성격은 모두 기도이다. 시편을 묵상하며 마음에 맺히는 게 생길 때마다 멈추어 기도드리면 된다. 시편 84편을 묵상해 보자.

만군의여호와여,주의장막이어찌그리사랑스러운지요

그렇습니다. 아버지 품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좋은 일입니다. 제가 어디 가서 안식을 얻겠습니까? 아버지 날개 아래 있을 때 편히 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저로 아버지 장막에 거하기를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사실, 제가 어디 간들 아 버지 장막을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언제 어디서나 아버지의 장막 안에 있는 것을 제가 압니다. 하지만 저는 자주 이 사실을 잊고 살아갑니다. 그것을 잊음 으로써 불안에 빠지곤 합니다. 저로 하여금 늘 아버지 장막 아래 있음을 기억 하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여 참된 평안과 기쁨 안에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내용에 따라 별다른 영감이 떠오르지 않는 경우도 있다. 아니, 그런 경우가 꽤 많다. 그럴 때는 그냥 읽어 가면 된다. 그러다 마음에 와닿는 부분에서 멈추어 자신의 기도로 만들면 된다. 초보자들은 감동이 오는 구절에서 멈추고 '그렇습니다 아버지!'라고 응답하면 된다. 이렇게 하다 보면 점차 깊은 의미를 볼수 있게 되고 마침내 한 어구만 가지고도 하루 종일 기도할 수 있는 단계로 나아가게 된다.

마지막으로 모범 기도문을 사용하는 기도법이 있다. 이는 개신교인들에게 는 다소 생소한 방법이다. 우리는 즉석에서 떠오르는 대로 하는 기도가 더 좋다고 생각한다. 물론 자신의 생각을 글로 써서 기도하는 것도 좋은 습관이지만, 위대한 영성가들이 남겨 놓은 기도문을 읽고 그것을 자신의 기도로 만드는 것은 더더욱 유익하다. 이 기도법 또한 기도문을 읽고 묵상하면서 마음에 정리된 내용을 자신의 말로 표현하면 된다. 릴케(R.M.Rilke)의 기도문을 예로 들어보자.

내는을 감겨주십시오. 그래야 당신을 볼 수 있습니다. 내귀를 막아 주십시오. 그래야 당신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 기도문 전체를 읽고 기도할 수도 있고, 첫 연에 멈추어 기도할 수도 있다. 잠시 눈을 감고 이 내용에 대해 묵상해 보라. 기도자는 그동안 육신의 눈과 귀에 집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뵙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러한 자기 발견에 이르면 기도가 터져 나온다. '그렇습니다. 주님! 저에게도 같은 은혜를 주십시오' 꾸준히 모범 기도문을 읽고 그것을 자신의 기도로 만들어 가다 보면, 우리의 영성은 몰라보게 성장할 것이다. 거목 사이를 걸으면 어느새 자신도 커지는 법이다.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생각의 깊이가 달라진다. 기도문은 그 사람의 신학과 사상을 농축해 담아낸다. 한 사람의 신학과 사상을 보려면 그 사람이 쓴 대표적인 기도문을 보라고

권하고 싶다. 그만큼 기도문은 중요하다. 위대한 영적 거목이 쓴 기도문을 읽는 것은 그 사람의 영을 만나는 것과 같다. 다윗의 기도문을 읽고 묵상하면 영적으로 다윗을 만나 교제하는 것과 같다는 뜻이다.

기도문 기도의 전통을 회복해야 한다. 우리에게 남겨진 고귀한 유산을 서가에 꽂아 두고만 있다면 그것은 진주를 흙속에 묻어 두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다.

편집자주

2021년 김영봉 목사의 '사귐의 기도(IVP)' 시리즈 연재를 시작합니다. 이번 시리즈를 통해 성도들에게 '바른 기도'의 길이 열리고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사귐이 체험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리즈를 연재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김영봉 목사님과 IVP-한국기독학생회 출판부에 감사드립니다.



수필문

Lee Ann Kim (김이연) 성도_시카고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 IL

6.25 한국 전쟁이 한창일 때 한 젊은 미망인은 북한 공산군으로부터 도망치는 난 민들의 물결 속에서 속히 피난을 떠나야 했습니다. 어린 아들과 두 딸을 붙잡은 그녀의 한 가지 사명은 사랑하는 아이들의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분이 바로 나의 할머니, 믿을 수 없는 삶에 대한 믿음과 용기 그리고 결단력을 가진셨던 분, 김순환이셨습니다. 할아버지는 할머니가 셋째 아이를 낳은 지 6 개월 만에 알수 없는 이유로 실종되셨고 오직 남아있는 할머니의 세 자녀만이 세상에 그녀가 의지하고 살아가는 힘이 되었습니다.

논산에서 남쪽으로 피난 중에 강에 이르렀을 때 할머니와 어린 세 자녀가 함께 강을 건너는 것은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린다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북한군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고 할머니와 함께 피난 중이던 할머니의 동생은 두 딸을 남겨두고 강을 건너가자고 급히 제안했습니다. 아들을 구하기 위해선 딸들에 희생을 감수해야 했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자식에 대한 사랑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할머니는 동생에게 "말들을 두고 강을 건널 바엔 우리 모두가 함께 죽는 편이 낫다"라고 하시며 결국 할머니는 세 자녀를 데리고, 하지만 그녀의 동생과는 다른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거의 100만 명의 한국인이 전쟁에서 사망하였습니다. 그러나 할머니에 대한 하나 님의 계획은 이미 다르게 준비되어 었습니다. 할머니는 혼자서 세 자녀를 데리고 일 본 강점기, 기근 및 6.25 전쟁으로 인한 극심한 빈곤과 같은 엄청난 고난에서도 견디 고 살아남으셨습니다. 그 한 예로 말씀해 주셨던 것이 옛날에 저희 아버지가 아픈데 도 줄 것이 없어서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동치미에 있는 비타민 C라도 먹여서 낳게 하 시려고 동치미를 구걸하신 적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할머니는 자식들의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미용을 배우기 시작하셨습니다. 논산 (서울에서 남쪽으로 몇 시간 거리)의 첫 번째 헤어 스타일리스트로서 할머니는 할리우드 살롱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헤어살롱도 열기 위해 열심히 일하시고 노력하셨습니다.

할머니의 희생 덕분에 저희 아버지는 한국 최고의 의과 대학 중 한곳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어려운 의사 공부를 마치고 미국에 오신 우리 아버지는 1969 년 시카고의 머시 병원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고 이것은 할머니와, 제 고모들, 그리고 저와 우리 가족이 미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할머니는 저의 삶에 중요한 존재였습니다. 저는 할머니의 세 자녀들 중에 첫 손주이자 할머니 외아들의 장녀로서 저를 늘 예뻐해 주셨고 항상 제게 사랑을 주셨습니다. 할머니는 제게 머리카락을 땋는 방법과 꽃잎으로 손톱을 칠하는 방법을 가르쳐주셨습니다. 그리고 한국 방문 시 할머니는 저를 한국에 데려다주신적도 있어서 저는 늘 할머니에게서 말로는 할 수 없는 특별한 정과 끈 같은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하면 후회되는 일이지만 저는 한국어를 유창하게 말하는 법을 배운적이 없어서 안타깝게도 할머니와는 초등학교 수준의 대화 정도만 할 수 있었습니

다. 할머니는 제게 너무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또 말해 주고 싶어 하셨고 또 그럴 때면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서로의 언어의 장벽 때문에 할머니가 제게 하고 싶은 모든 말씀들을 저는 다 이해 하지는 못했지만 늘 저의 손을 꼭 잡아주시는 할머니의 손길을 통해서 저는 할머니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직도 할머니의 고운 손과 그리고 슬픔이 가득하셨던 눈은 잊어지지가 않습니다. 엄청난 고통과 고난을 겪으면서도 할머니의 믿음은 주님을 의지하며 인내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우리 가족들의 어른이시며 기둥이셨던 할머니는 항상 추수감사절과 크리스마스 저녁에 식사 기도를 하셨습니다. 할머니의 기도 속엔 늘 그녀의 삶에 대한 시간과 공간이 등장했고 마치 한편의 서사시를 듣는듯했습니다. 할머니가 기도를 시작하실 때면 저는 농담처럼 이 기도가 30 분이상 걸릴 것이라고 말하곤 했고 실제로 그랬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면 기도 중에 온통 드는 생각은 할머니 기도를 끝내셔서 빨리 추수감사절 칠면조를 잘라서 먹고 싶다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기도의 마지막 "아멘" 했을 땐 이미 음식은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기도엔 늘 사연이 많아서 짧게 하실 수가 없었던 것이셨어요.

할머니가 교회 생활만큼 중요하게 생각하신 다른 한 가지는 건강이었고 그래서 할머니는 노년의 나이에도 건강을 잃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습니다. 할머니는 걷기, 수영, 춤, 요가 등 운동을 좋아하셨고 열심히 하셨습니다. 제가 요가를 너무 좋아하는데 어쩜 요가에 대한 사랑은 할머니에게 물려받은 것이 아닌가 생각하곤 합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양로 센터에서 노인 친구분들과 포켓볼 치시는 것을 좋아하셨는데 90대 노인이기엔 정말 너무 잘 치셔서 주위 친구분들의 부러움을 사시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정정하셨던 할머니가 2019 년 말 가을 이후 갑자기 거동이 힘들어 지시면

서 요양원에 들어가시게 된 것은 큰 슬픔이었습니다. 그 때 99세였지만 할머니는 마지막까지 자신의 아파트에서 살기 원하셨고 요양원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할머니 자신의 독립을 포기하는 것은 다가올 고통스런 끝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2020 년 봄, 코로나가 심해지면서 양로원은 더 이상 가족들의 면회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5 월 초 갑작스런 호흡곤란으로 할머니는 응급실로 가게 되셨고, 너무도 안타깝게 할머니가 코로나에 걸린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5 월 8 일에 코로나 때문에 누구의 병문안도 허락되지 않았던 때에 가족이나 친구없이 병원에서 평화롭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살아계신 조부모를 잃는 것은 충분히 힘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가슴이 너무 아픈 것은 할머니가 사랑하는 가족들의 품에서 아닌 혼자서 돌아가시게 된 것입니다. 할머니는 일본의 점령기, 6.25 전쟁과 그로 인해 가난, 그리고 이민이라는 모든 할머니 앞에 닥쳐진 살의 어려움들을 견디어 내셨습니다. 하지만 결국 할머니는 코로나로 인해 100세 생신을 몇 달 앞두고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할머니가 걸어오셨던 인생의 결단과 삶에 대한 의지가 이제 저를 포함한 할머니의 살아있는 유산인 다른 8 명의 손자 손녀들과 다음 세대 후손인 15 명의 증손자들이 함께 이 땅에서 각자 열심히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됩니다. 사랑하는 할머니 천국에서 편히 쉬세요.



Seasons of Devotionals

김소은(Elise Kim) 자매_ 밸리연합감리교회, CA

When I first started devotionals, I was extremely proud of myself. It was my first step in my spiritual journey. I wanted to start doing my devotionals because a few weeks ago I attended my second retreat. During the retreat, I really connected with God and felt like I NEEDED to know God. I did not want my experience to just be a spiritual high that disappeared after a few weeks. I wanted to see an impact. Before quarantine, I always said, "oh, I have school," "I have too much homework," and "I'm busy." Quarantine left no excuse. So, when I got my lined blue notebook from Michaels, I felt ready. I knew that these devotionals would be the start of my relationship with God. During quarantine, it felt like a season of loneliness for many, but I was lonely when the lockdowns hit, I had God. For the past months, I struggled and struggled again and again, and there were difficult seasons, but God remained good.

My first devotional was in February. I wrote a page a day. I decided to start with Genesis, since I wanted to read the Bible from start to finish. There were a few struggles during that winter. I felt like maybe I was rushing a lit-

tle too much, and I felt like I was writing too little. I still carried on with the devotionals, and I honestly had a lot of fun. The start of these devotionals led to me joining a Bible group study with a few people from Youth Group. Writing and reading God's Word felt fun! Reflecting back on the devotionals I wrote, I thought they were a pretty good place to start devotionals. I began to comprehend that I may be writing the words on a page, but I was not trying to apply this to my everyday actions.

This led to an experience that would forever change my life. It was about March, the start of quarantine, I ran out of paper, so I went to Walmart for bigger notebooks. I decided to get three notebooks, a morning devotional, a prayer journal, and an evening devotional. This could have gone very swimmingly. And when I started, I felt closer to God! Then, there was the problem. I think it most fits legalism. Legalism— "dependence on moral law rather than on personal religious faith." Especially during lockdown, legalism became so easy. It was difficult, in almost every single aspect, and it impacted my devotionals and relationship with God. I knew what was happening, but I felt powerless against myself, against the world, against temptation. I believed I could be in favor of God, if I listened to the Laws of God. Absolutely, I should listen to God. However, I took it to a point of when I made it about myself.

I was trapped, I felt like I was. There were many voices in my head, and I discerned all these voices into one voice. There was the ACTUAL Voice of God, the voice of temptation, and the voice of myself. I thought all these voices were of God's. I listened to each voice as much as I could, even to the

points I would fast myself of certain foods and even water for days. I was struggling physically, but mostly mentally and spiritually. It turned out that my new problem would take a major toll on my devotionals.

As I read back on some of my devotionals, I see flaws, but God's Grace is merciful. This time I dedicated to Spend with God and sit in His Presence turned to be a time about writing good words. I wrote the same things over and over again. It was not about being with God. Even in the observations and reflection part of my devotionals, I said the same things again and again. In "Nothing Else" by Cody Carnes, a lyric was, "I'm sorry that I sang another song." I did not fully grasp this lyric until recently. We can sing worship songs, pray, or write devotionals, but if there is not a heart of God, what are we doing? But, I was proud because I thought since I spent about thirty minutes, two times a day, doing devotionals, God would be pleased with me.

The fasting carried on for a while, until my physical breaking point at around August. Honestly speaking, thinking about what I did for 5 months, I wonder how I did it. Physically, around the eighth month, I felt free when I started to eat whatever foods I wanted at whenever. Legalism, to very extreme measures, did teach me to not depend on food for satisfaction. Physically, I was recovering, then the problem. My spiritual recovery, my emotional recovery, and my mind recovery.

After writing the devotionals the same way for 9 months, I completely forgot how to write my devotionals, authentically. I was writing all these words

on a page, but without the Spirit, without a genuine thirst. I began to forget the reason I started to write these devotionals. I wanted to form a stronger bond with God. I forgot about my original goal because I was so caught up in trying to win God's Favor by focusing on the words and the time I spent on devotionals. I remember some days, I was so tired, and I still had my night devotionals. I could barely blink because I was so tired. I fell asleep while doing devotionals, and in the morning I felt immediate guilt because I slept through. To me, it mattered tons. I felt like if I did not write my devotionals, I would fall out of God's Favor. So in any circumstance, I wrote devotionals. Devotionals started to be a chore. It was one Friday night program, where we learned about legalism and hyper grace. I always thought that legalism was better than hyper grace, but in Romans 3:23, it says, "For all have sinned and fallen short of The Glory Of God." There is no sin that is "better" or "worse." We have all missed the mark and sin is sin. It hit me like a boomerang, I was being legalistic. From that point on, I tried to better myself. It wasn't a switch. It took months from there.

December hit, and it was retreat season again. My second retreat already. To be completely honest, I did not know how it would go, since it was online. I thought, "how can I connect to God if I'm online?" I thought it was the lights, the live band, the people singing and dancing their hearts out. I thought, how can this retreat be successful? I went and it was an absolutely amazing experience. The speaker, Pastor Faith, spoke volumes. It was so chilling when she was speaking over something that was exactly what I was going through. All this time, I was asking, God, please give me a sign to break from the chains of legalism. That was it.

Immediately, The Holy Spirit filled me with God's Goodness. I somehow felt free, like actual months of physical and mental damage were just all healed. I physically felt like chains were being lifted from me. The experience completely altered everything. I also had a chance to talk with our small group teacher. And I just felt an urge to go and talk to her. Even though I was a little scared, when I started to talk about the legalism that I was going through during quarantine, I felt another layer being lifted from me.

I started to do devotionals, and it felt like the good kind of devotionals. The devotionals that felt like I was trying to talk to God. I decided to work with a morning journal only. It was good until Discord. During quarantine, my social life was impacted heavily. All my school friends disappeared. Discord is an app where you can talk to other people. I joined a Star Wars Discord server. Soon, I started to be very addicted. My screen time would rocket to 10 hours, 7 hours of pure Discord. I told myself it would be okay, since quarantine was a lonely time. It took a toll on my devotionals as well. I wanted to finish the devotionals to text, so I would start to rush. It felt like I was trying to run a marathon. This social media severely impacted my sleeping schedule, my grades, and myself. I started to care about what others think of me, I started to be self centered, I started to get angry. I was clearly addicted and obsessed. My passion for this piece of social media was astonishing, not in a good way. It took quite a while for it to kick in, a few weeks later.

I'm not exactly sure how this panned out, but I was reading my Bible. This

section, "Plans," seemed to be inviting me. Curious, I decided to click on it to see. One of the first plans I saw was "21 days of fasting." Again, out of interest, I clicked on it, and I read the plan. I kept on reading it. It was "Day 13" or "Day 14" that changed my outlook. During this plan, I was just reading about fasting, I was not really participating. I realized after I read Day 13, that worldly desires can only fill your satisfaction so much. GOD IS THE ONLY WAY WE ARE TRULY SATISFIED. That was completely eye opening and I said I was going to take a break from Discord. Coincidentally (All God), it was a day before the start of Lent, I had no idea Lent even started. It was hard, sometimes I felt lonely and thought, "it's only one text." Then, I remember God! I realize that God is everything I need plus so much more. After Lent, I am hoping to cut my discord time to 2 hours. My devotionals from that point on improved, and I made an effort to stay still and be in God's Presence. I tried to be genuine and authentic in all my devotionals.

There is still so much more I need to work on. I still have so many flaws. I still sin. I have yet to discern my voice, temptation's voice, and God's Voice. I still sometimes rush my devotionals. I still complain. I still get mad at my brother. I still forget God's Goodness. I still forget to apply my devotionals. Every struggle, every mistake, I am trying to better myself. I know I cannot do it alone. Alone, I am prone and weak to sin and temptation. But, I try hard to walk with God. I have a heart to know God. Sometimes, it gets clogged with materialistic desires, but my passion for God is growing, I really hope. God has changed my life, I started to be thankful in all circumstances, I started to fight less with my parents, I started to pray, I started to confess. There are a lot of moments where I am so guilty because I know I

한인연합감리교회 믿음의 글 | 간증분야 은혜상

am not worthy of the tiniest bit of God's Love, yet He still Loves me. I remember, The Gospel is not that I'm perfect. God Is! I am still learning more and trying to be a true disciple of God who loves God with every single ounce, and also loves all of His people. Quarantine legalism was difficult, and I still have not completely broken free from legalism. But, I am so glad and thankful to God that He was giving me signs. God was always comforting me, and He was giving me joy! God was always with me. And God never stopped loving me. During this lockdown, I learned a lot. Through all the chaos of this world, this lockdown was a sure sign from God urging me. Quarantine opened my eyes to God, and I'm so thankf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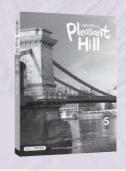
말씀묵상집 '기쁨의 언덕으로'를 개척교회에 보냅시다

말씀이신 예수님과 매일 함께 걷는 '기쁨의 언덕으로' 나의 일기, 묵상이 아닌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마음을 기록할 수 있도록 돕는 '기쁨의 언덕으로' 한/영 이중언어로 온 가족이 함께 말씀을 묵상하는 '기쁨의 언덕으로' 하루에 한 장 성경읽기, 말씀묵상, 저널링, 온라인 참여가 가능한 '기쁨의 언덕으로'

한 권에 \$3.5

말씀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기쁨의 언덕으로'를 개척교회에 보낼 수 있도록 후원합니다.

여러분의 정성을 모아 말씀이신 예수님과 만나기를 원하는 이들에게 '기쁨의 언덕으로'를 보내드립니다. 또한 앞으로는 개척교회는 물론 캠퍼스, 군대, 교도소로도 보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달에 10권 을 후원하면 매월 \$35 per month

20권 매월 \$70 per month

30권 매월 \$105 per month

50권 매월 \$ 175 per month

100권 매월 \$350 per month

기쁨의 언덕으로 / 느레미야 운동 Email: kumcdevotion@gmail.com P O Box 5553 Englewood NJ 07631

문의: 선교총무 류계환 목사 / Email: wwjd21st@gmail.com

https://go.missionfund.org/tphbooks

말씀묵상 길라잡이 '기쁨의 언덕으로' 사역 후원

연합감리교회 한인공동체가 함께 만드는 '기쁨의 언덕으로'는 이민교회와 한국교회를 위한 말씀묵상집 입니다

이 묵상집은 이민자들의 영성계발에 도움을 주기 위해 연합감리교회 한인공동체가 시작했고, 이민교회를 위한 이중언어 말씀묵상 길라잡이로 매달 발행되고 있습니다.

'기쁨의 언덕으로'를 위해 목회자 기획위원, 평신도 편집위원, 영어번역위원 등이 모두 자원하여 봉사하며, 많은 시간과 정성을 들여 함께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헌금은 '기쁨의 언덕으로'를 섬기는 집필팀 워크샵, 평신도 편집위원 수련회, 개체교회를 섬기는 QT 컨퍼런스, 기획위원, 편집위원, 번역위원들에게 큰 격려가 될 것입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기쁨의 언덕으로' 사역을 후원하길 원합니다

매월 🗆 \$ 10 🗆 \$ 20 🗆 \$ 30 🗆 \$ 50 🗆 \$ 100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연합감리교회 한인 공동체가 함께 만드는 말씀묵상집 "기쁨의 언덕으로" 사역을 함께 후원합니다.

기쁨의 언덕으로 / 느헤미야 운동

Email: kumcdevotion@gmail.com P O Box 5553 Englewood NJ 07631

문의: 선교총무 류계환 목사 Email: wwjd21st@gmail.com

https://go.missionfund.org/tphministry



66 미 전역에 한인연합감리교회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99

"교회를 세우는 느헤미야운동은 모든 한인연합감리교회와 함께 합니다!"

지금 교회 리스트를 업데이트 하고 있습니다. 변경 사항이 있으면 kumcdevotion@gmail.com 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Alabama (앨라배마 주)

몽고메리주님의교회(유혁재, 334-279-1935) 버밍햄한인연합감리교회(지홍일, 205-957-0595) 프렛빌한인교회(홍성국, 334-221-9392) 헌스빌감리교회(256-489-1158)

• Alaska (알래스카 주)

앵커리지한인연합감리교회(금원재, 907-346-2886)

• Arizona (애리조나 주)

아리조나연합감리교회(이기용, 480-423-7777) 투산제일연합감리교회(고은영, 520-760-9749)

• Arkansas (아칸소 주)

소망연합감리교회(조선욱, 501-308-4127) 아칸사한인연합감리교회(정형권, 479-263-5434)

• California (캘리포니아 주)

가나안하인연합감리교회(이상현, 831-333-6857) 가든그로브한인연합감리교회(박용삼, 714-534-6378) 나성금란연합감리교회(이석부, 310-973-5106) 나성복음연합감리교회(김호용, 323-641-0691) 나성중앙연합감리교회(조승홍, 213-747-4209) 남가주주님의교회(김낙인, 626-965-9191) 노스리지연합감리교회(최요셉, 818-886-1555) 드림교회(정영희, 626-793-0880) 라구나힐스한인연합감리교회(림학춘, 949-380-7777) 라팔마한인연합감리교회(김도민, 714-226-0300) 로스앤젤레스한인연합감리교회(이창민, 310-645-3699) 로스휄리즈연합감리교회(신병옥, 323-382-0691) 밴나이연합감리교회(안정섭, 818-785-3256) <u>밸리한인연합감리교회(류재덕, 818-366-0089)</u> 버클리새교회(김종식, 510-526-7346) 베델연합감리교회(한인희, 408-244-8710)

사랑나무교회(이상호, 818-346-1617) 산타마리아베델한인연합감리교회(남기성, 805-922-1004) 산타클라라연합감리교회(권혁인, 408-295-4161) 상항한국인연합감리교회(송계영, 415-759-1005) 샌디에고한인연합감리교회(정상용, 858-279-9191) 시온연합감리교회(오경환, 310-834-5504) 어바인드림교회(원홍연, 949-786-8354) 언약교회(이상호, 909-622-8815) 영화연합감리교회(강현철, 213-413-4154) 열린교회(김규현, 510-652-4155) 예수사랑교회(이강원, 408-746-9553) 오클랜드한인연합감리교회(정현섭, 510-451-9076) 옥스나드한인연합감리교회(남재헌, 805-485-0100) 유바사랑의교회(이진식, 925 279-1214) 월셔연합감리교회(구진모, 323-931-9133) 은강연합감리교회(홍종걸, 714-870-9991) 은혜연합감리교회(한진호, 818-241-9352) 임마누엘연합감리교회(신상만, 805-302-1706) 좋은연합감리교회(김두식, 916-987-9191) 주사랑연합감리교회(이정환, 626-575-9191) 카르디아연합감리교회(김범수, 310-473-1285) 카마리오한인연합감리교회(이상영, 805-389-3161) 크레센타밸리한인연합감리교회(김용근, 818-541-0306) 태평양연합감리교회(이도원, 323-255-3734) 토랜스한인연합감리교회(강현중, 310-378-9213) 콘트라코스타한인연합감리교회(김영래, 925-935-0191) 후레스노한인연합감리교회(김규현, 559-299-0240) 희망교회(김정민/가한나, 858-354-0009) 히스페리아한인연합감리교회(민병렬)

• Colorado (콜로라도 주)

그리스도중앙연합감리교회(주활, 303-369-0600) 덴버연합감리교회(이선영, 720-529-5757) 임마누엘연합감리교회(전병욱, 303-753-8823) 푸에블로한인교회(최윤선, 719-544-5739) 한미연합감리교회(이지성, 719-570-0300)

• Connecticut (코네티컷 주)

뉴헤이븐연합감리교회(최영, 203-387-1579) 스탬포드한인연합감리교회(신승호, 203-353-0488) 커네티컷한인중앙교회(김정환, 860-365-0233) 하트포드한인교회(이재삼, 860-953-0141)

• Delaware (델라웨어 주)

델라웨어한인감리교회(송종남, 302-235-5735)

• Florida (플로리다 주)

남부플로리다한인연합감리교회(이철구, 954-739-8581) 올랜도한인연합감리교회(김호진, 407-801-2731) 탈라하시한인연합감리교회(김종권, 850-228-1414) 탬파한인연합감리교회(한명훈, 813-907-5815) 헤르난도한인교회(윤대섭, 352-726-7245)

Georgia (조지아 주)

노크로스한인교회(박희철, 678-978-2099) 뉴난한인감리교회(남성원, 770-683-9381) 라그레인지한인연합감리교회(김형렬, 706-407-8296) 서바나한인연합감리교회(송희섭, 770-495-8020) 아틀란타베다니한인감리교회(송희섭, 770-495-8020) 아틀란타한인교회(조영진, 678-381-1004) 엄마누엘한인연합감리교회(이준협, 770-321-0020) 존스크릭한인연합감리교회(서정일, 770-497-8215) 트리니티 한인교회(검경곤, 678-431-7924) 해밀턴밀한인교회(정찬응, 770-271-4255) 하인스빌한인연합감리교회(김종길, 912-368-4875)

• Hawaii (하와이 주)

알보리연합감리교회(남규우, 808-386-9672) 감람연합감리교회(이영성, 808-956-1004) 고리스도연합감리교회(한의준, 808-536-7244) 베다니연합감리교회(최현규, 808-626-7434) 아름다운교회(오대현, 808-343-6839) 아이에아한인연합감리교회(김배선, 808-622-1717)

• Illinois (일리노이 주)

갈릴리연합감리교회(엄모성, 847-998-4610) 남부시카고한인연합감리교회(김윤기, 708-799-0001) 네이퍼빌하인연합감리교회(박과우, 630-904-9191) 미콤한인연합감리교회(이정일, 309-768-2663) 비젼교회(우민혁, 847-949-9705) 울랜드딱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이동근, 708-403-2007) 예수사랑감리교회(오치용, 217-419-5132) 살렘한인연합감리교회(김태준, 847-534-2826) 생물연합감리교회(박미숙, 847-712-0413) 시카고에수사랑감리교회(조선형, 847-372-6057) 시카고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김광태, 847-541-9538) 중앙연합감리교회(홍진호, 847-797-1144) 하이드딱한인교회(이우민, 773-643-2144)

• Indiana (인디애나 주)

블루밍톤한인교회(안성용, 812-331-2080) 인디아나폴리스제일연합감리교회(이기채, 317-894-4456) 퍼듀제자교회(이종민, 217-417-2288)

• lowa (아이오와 주)

디모인한인연합감리교회(이병훈, 515-261-0600) 아이오와시티한인연합감리교회(최군임, 319-337-8397) 에임스사랑의교회(이병훈, 515-233-1063) 과드시티한인연합감리교회(조항백, 563-359-4227)

• Kansas (캔자스 주)

위치타은혜연합감리교회(임일호, 316-239-6883) 정션시티한인연합감리교회(문주현, 785-762-4344) 캔사스한인중앙연합감리교회(김다위, 913-648-4277) 피츠버그사랑연합감리교회(정룡재. 620-231-2540)

• Kentucky(켄터키 주)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김상순, 270-439-3297)

• Louisiana (루이지애나 주)

뉴올리언즈한인연합감리교회(이동섭, 504-455-7883) 리스빌연합감리교회(나길석, 337-537-5977)

• Maine (메인 주)

무지개연합감리교회(조태섭, 207-774-1617)

• Maryland (메릴랜드 주)

늘사랑연합감리교회(박종희, 443-763-4566) 베다니한인교회(박대성, 410-979-0691) 성령의불꽃교회(유재유, 703-276-8018) 솔즈베리한인연합감리교회(정남성, 410-860-0090) 에덴연합감리교회(신요섭, 667-206-4162) 워싱톤감리교회(이승우, 301-309-6856) 하늘비전교회(장재웅, 410-200-3859)

• Massachusetts (매사추세츠 주)

보스톤연합감리교회(안신형, 781-393-0004) 북부보스턴한인연합감리교회(최진용, 978-470-0621) 비젼교회(이충호, 617-864-1123) 성요한한인연합감리교회(조상연, 781-861-7799) 안디옥한인연합감리교회(강명석, 978-534-3394) 우스터한인연합감리교회(김현태, 508-799-4488)

• Michigan (미시간 주)

디트로이트제일중앙연합감리교회(김대기, 248-545-5554) 디트로이트한인연합감리교회(김응용, 248-879-2240) 디트로이트한인연합감리교회-TroyHope(Anna Moon, 248-879-2240) 앤아버한인연합감리교회(조현준, 734-662-0660)

• Minnesota (미네소타 주)

덴케이토한인연합감리교회(유승찬, 507-382-6070) 미네소타한인복음연합감리교회(윤국진, 952-938-2142) 미네소타한인연합감리교회(백성범, 651-633-2434) 은혜한인연합감리교회(백형두, 612-859-5882)

• Missouri(미주리 주)

세인트루이스한인연합감리교회(이명균, 314-426-5683)

• Nevada (네바다 주)

겨자씨한알교회(최영완, 702-595-3678) 라스베가스한인연합감리교회(라은진, 702-434-9915)

New Hampshire (뉴햄프셔 주)

그린랜드연합감리교회(한상신, 603-430-2929)

• New Jersey(뉴저지 주)

가득한교회(이강, 908-464-1807) <u>갈보리연합감리교회(왕태건, 732-613-4930)</u> 그레이스벧엘교회(장학범, 201-242-8866) 남부뉴저지한인연합감리교회(박태열, 609-965-1222) 뉴져지연합교회(고한승, 201-816-1284~5) 뉴져지영광연합감리교회(임희영, 201-939-9726) 리빙스턴한인연합감리교회(이정애, 973-994-0450) 리지우드연합감리교회-한어회중(안성훈 914-548-1685) 만모스은혜연합감리교회(정호석, 732-542-4321) 모리스타운한인교회(최상훈, 973-252-5252) 베다니한인연합감리교회(백승린, 973-694-3880) 아콜라연합감리교회(안명훈, 201-843-7970) 아펜젤라기념내리연합감리교회(조민호, 973-256-6831) 제자교회(이영기, 201-394-8446) 주님의은혜교회(최준호, 973-563-5365) 체리힐제일교회(김일영, 856-424-9686)

코너스톤교회(정희섭, 201-767-1172) 티넥한인연합감리교회(이재덕)

• New Mexico(뉴멕시코 주)

알버커키연합감리교회(김기천, 505-341-0205)

• New York(뉴욕 주)

그리스도한인연합감리교회(정창훈, 347-233-1117) 뉴드림교회(김남석, 516-504-5612) 뉴욕감리교회(강원근, 516-681-0164) 뉴욕그레잇넥교회(양민석, 917-326-1723) 뉴욕남산교회(이요섭, 718-680-0328) 뉴욕만백성한인연합감리교회(이종범, 718-701-4953) 뉴욕반석교회(김동규, 516-997-8620) 뉴욕베델교회(진세관) 뉴욕성서교회(김종일, 631-243-5683) 뉴욕주나목교회(문정웅, 718-229-4024) 뉴욕한인교회(이용보, 212-662-1422) 로체스터제일교회(이진국, 585-662-5560) 로체스터한인연합감리교회(김동기, 585-872-0188) 롱아일랜드연합감리교회(김재현) 모닝사이드연합감리교회(유명철) 메트로폴리탄한인연합감리교회(김진우, 212-758-1040) 미드허드슨한인연합감리교회(김윤태) 버팔로한인연합감리교회(국재현, 716-748-5886) 부르클리한인연합감리교회 스태튼아일랜드한인교회(정광원, 718-984-3333) 시라큐스소망연합감리교회(양현주) 아스토리아한인교회(진성인, 718-626-1278) 우리감리교회(김동현, 347-935-9348) 올바니한인연합감리교회(유화성, 518-387-9078) 웨체스터중앙교회(김철식, 914-948-8835) 퀸즈중앙감리교회(이요섭, 718-359-8388) 후러싱제일교회(김정호, 718-939-8599)

• North Carolina (노스캐롤라이나 주)

그린스보로한인연합감리교회(서준석, 336-852-8535) 아가페한인연합감리교회(엄성일, 919-469-1514)

Ohio (오하이오 주)

맨스휠드한인연합감리교회(유보현, 740-238-1219) 데이튼한인연합교회(유준식, 937-294-2018) 베멜한인연합감리교회(이미란, 614-451-2085) 새생명연합감리교회(전기상, 248-659-7882) 아덴스한인연합감리교회(이근상, 614-764-8960) 영스타운한인연합감리교회(검현석, 330-743-7020) 캔톤한인연합감리교회(유보현, 740-238-1218)

콜럼버스한인연합감리교회(장이준, 614-882-5819) 한마당연합감리교회(440-845-1728) 한민매디슨빌연합감리교회(우용철, 513-271-1434)

• Oklahoma (오클라호마 주)

새빛연합감리교회(정기영, 580-536-6884) 오클라호마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엄준노, 405-672-5062) 털사한인연합감리교회(손태원, 918-622-0045) 평강한인연합감리교회(김관영, 580-237-6611)

• Oregon (오리건 주)

오레곤우리연합감리교회(박은수, 503-641-7887) 포틀랜드한인연합감리교회(오광석, 503-684-7070)

• Pennsylvania (펜실베이니아 주)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김덕신, 215 -280-5768) 베들레헴한인연합감리교회(김중혁, 610-867-4437) 벤살렘한인연합감리교회(차명훈, 215-639-3120) 소망한인연합감리교회(717-731-9190) 인디아나한인연합감리교회(이성덕, 724-465-2015) 필라델피아제일연합감리교회(홍정균, 215-542-5686) 필라등대교회(조병우, 215-884-5251)

• Rhode Island (로드아일랜드 주)

시온한인연합감리교회(선우혁, 401-739-8439)

• South Carolina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그런빌연합감리교회(신규석, 864-567-3633) 찰스톤한인연합감리교회(배연택, 843-797-8199) 콜럼비아한인연합감리교회(나웅철, 803-447-6186)

• Tennessee (테네시 주)

내쉬빌한인교회(강희준, 615-373-0880)

Texas(텍사스 주)

그러스도연합감리교회(김덕건, 214-901-1116) 달라스북부중앙연합감리교회(조낙훈, 469-235-8041) 달라스제일연합감리교회(박광배, 972-231-0057) 달라스중앙연합감리교회(이성철, 972-258-0991) 동산연합감리교회(유화청, 713-722-9553) 동화연합감리교회(범정원) 러벅연합감리교회(김다니엘, 316-218-8498) 버먼트제일연합감리교회(박청수, 409-554-0550) 성누가연합감리교회(소정일, 254-526-3993) 쌘안토니오연합감리교회(知혁, 210-341-8706) 우리만나연합감리교회(오요한, 817-657-4559) 윌리암스메모리얼연합감리교회-한인회중(이병설, 903-794-2882) 웨슬리연합감리교회(주요한, 972-276-2098) 웨이코한인연합감리교회(이진희, 254-757-2621) 임마누엘한인연합감리교회(권성철, 214-238-2003) 킬린우리연합감리교회(전대우, 254-245-8029) 휴스턴제일연합감리교회(정용석, 713-462-0708) St. Peter UMC-Katy 한어회중(김데이빗 281-541-6286)

• Vermont (버몬트 주)

버먼트한미연합감리교회(배상철, 802-876-7622)

· Virginia (버지니아 주)

가나연합감리교회(박주성, 703-339-8899) 버지니아한인연합감리교회(민권홍, 757-484-5988) 새빛교회(김은관, 703-385-3390) 성가연합감리교회(최윤석, 757-877-2270) 알링턴한인교회(류영성, 703-489-4596) 애쉬번한인교회(강현식, 703-336-3679) 엠마오연합감리교회(김철기, 804-272-5831) 와싱톤사검의교회(김영봉, 703-939-0559) 와싱톤제일교회(정성호, 571-643-0800/0900) 와싱톤하인교회(김영후, 703-448-1131)

• Washington (워싱턴 주)

시애틀연합감리교회(박세용, 206-406-6499) 좋은씨앗교회(정요셉, 253-363-3169) 타코마제일연합감리교회(박용규, 253-589-0882)

• Washington D.C(워싱턴 D.C)

알파커뮤니티한인교회(202-680-2394)

• West Virginia (웨스트버지니아 주)

헌팅톤제일한인연합감리교회(최연, 304-522-0357)

• Wisconsin(위스콘신 주)

메디슨한인연합감리교회(황선중, 973-525-9584) 애플톤시온연합감리교회(정희권, 920-687-9191) 참아름다운연합감리교회(김성근, 414-425-2530) 케노샤한인연합감리교회(곽한두, 262-658-1131)

• GAUM(괌)

광한인선교교회(김택수)

· Russia(러시아)

모스크바연합감리교회(조수진, 011-8-963-617-8439)

성경진도표

| 2022/01 | | | 2022/02 | | | 2022/03 | | |
|---------|-------|---------|---------|-------|---------|---------|----------|---------|
| Day | Bible | Chapter | Day | Bible | Chapter | Day | Bible | Chapter |
| 01 | 창세기 | 1 | 01 | 창세기 | 27 | 01 | 출애굽기 | 1-2 |
| 02 | | 주일 | 02 | | 28 | 02 | Ash Wed. | 3 |
| 03 | | 2 | 03 | | 29 | 03 | | 4 |
| 04 | | 3 | 04 | | 30 | 04 | | 5 |
| 05 | | 4 | 05 | | 31 | 05 | | 6 |
| 06 | | 5 | 06 | | 주일 | 06 | | 주일 |
| 07 | | 6 | 07 | | 32 | 07 | | 7-8 |
| 08 | | 7 | 08 | | 33 | 08 | | 9-10 |
| 09 | | 주일 | 09 | | 34 | 09 | | 11-12 |
| 10 | | 8 | 10 | | 35 | 10 | | 13 |
| 11 | | 9 | 11 | | 36 | 11 | | 14 |
| 12 | | 10 | 12 | | 37 | 12 | | 15 |
| 13 | | 11 | 13 | | 주일 | 13 | | 주일 |
| 14 | | 12 | 14 | | 38 | 14 | | 16 |
| 15 | | 13 | 15 | | 39 | 15 | | 17-18 |
| 16 | | 주일 | 16 | | 40 | 16 | | 19-20 |
| 17 | | 14 | 17 | | 41 | 17 | | 21-22 |
| 18 | | 15 | 18 | | 42 | 18 | | 23-24 |
| 19 | | 16 | 19 | | 43 | 19 | | 25 |
| 20 | | 17 | 20 | | 주일 | 20 | | 주일 |
| 21 | | 18 | 21 | | 44 | 21 | | 26 |
| 22 | | 19 | 22 | | 45 | 22 | | 27 |
| 23 | | 주일 | 23 | | 46 | 23 | | 28 |
| 24 | | 20 | 24 | | 47 | 24 | | 29 |
| 25 | | 21 | 25 | | 48 | 25 | | 30-31 |
| 26 | | 22 | 26 | | 49 | 26 | | 32 |
| 27 | | 23 | 27 | | 주일 | 27 | | 주일 |
| 28 | | 24 | 28 | | 50 | 28 | | 33-34 |
| 29 | | 25 | | | | 29 | | 35-36 |
| 30 | | 주일 | | | | 30 | | 37-38 |
| 31 | | 26 | | | | 31 | | 39-40 |

| 2022/04 | | | 2022/05 | | | 2022/06 | | |
|---------|-------|----------|---------|--------|---------|---------|-------|---------|
| Day | Bible | Chapter | Day | Bible | Chapter | Day | Bible | Chapter |
| 01 | 마가복음 | 1 | 01 | 시편[-]] | 주일 | 01 | 레위기 | 1 |
| 02 | | 2-3 | 02 | | 1-2 | 02 | | 2 |
| 03 | | 주일 | 03 | | 3-5 | 03 | | 3 |
| 04 | | 4-5 | 04 | | 6-7 | 04 | | 4 |
| 05 | | 6 | 05 | | 8-9 | 05 | | 주일 |
| 06 | | 7 | 06 | | 10-12 | 06 | | 5 |
| 07 | | 8 | 07 | | 13-16 | 07 | | 6 |
| 08 | | 9 | 08 | | 주일 | 08 | | 7 |
| 09 | | 10 | 09 | | 17-18 | 09 | | 8 |
| 10 | 고난주일 | 주일 | 10 | | 19-21 | 10 | | 9 |
| 11 | | 11 | 11 | | 22-24 | 11 | | 10 |
| 12 | | 12 | 12 | | 25-27 | 12 | | 주일 |
| 13 | | 13 | 13 | | 28-30 | 13 | | 11 |
| 14 | | 14 | 14 | | 31-33 | 14 | | 12-13 |
| 15 | | 15:1-41 | 15 | | 주일 | 15 | | 14 |
| 16 | | 15:42-27 | 16 | | 34-35 | 16 | | 15 |
| 17 | 부활주일 | 주일 | 17 | | 36-37 | 17 | | 16-17 |
| 18 | | 16 | 18 | | 38-39 | 18 | | 18 |
| 19 | 고린도전서 | 1 | 19 | | 40-41 | 19 | | 주일 |
| 20 | | 2-3 | 20 | | 42-44 | 20 | | 19 |
| 21 | | 4 | 21 | | 45-48 | 21 | | 20 |
| 22 | | 5-6 | 22 | | 주일 | 22 | | 21 |
| 23 | | 7 | 23 | | 49-50 | 23 | | 22 |
| 24 | | 주일 | 24 | | 51-53 | 24 | | 23 |
| 25 | | 8-9 | 25 | | 54-56 | 25 | | 24 |
| 26 | | 10-11 | 26 | | 57-60 | 26 | | 주일 |
| 27 | | 12 | 27 | | 61-64 | 27 | | 25 |
| 28 | | 13-14 | 28 | | 65-67 | 28 | | 26 |
| 29 | | 15 | 29 | | 주일 | 29 | | 27 |
| 30 | | 16 | 30 | | 68-69 | 30 | | 4 |
| | | | 31 | | 70-72 | | | |

| 2022/07 | | | 2022/08 | | | 2022/09 | | |
|---------|---------|-------------|---------|-------|---------|---------|-------|----------|
| Day | Bible | Chapter | Day | Bible | Chapter | Day | Bible | Chapter |
| 01 | 시편III-V | 73-75 | 01 | 민수기 | 1-2 | 01 | 로마서 | 1 |
| 02 | | 76-77 | 02 | | 3-4 | 02 | | 2 |
| 03 | | 주일 | 03 | | 5-6 | 03 | | 3 |
| 04 | | 78 | 04 | | 7 | 04 | | 주일 |
| 05 | | 79-81 | 05 | | 8-9 | 05 | | 4 |
| 06 | | 82-83 | 06 | | 10 | 06 | | 5 |
| 07 | | 84-87 | 07 | | 주일 | 07 | | 6 |
| 08 | | 88-89 | 08 | | 11-12 | 08 | | 7 |
| 09 | | 90-91 | 09 | | 13-14 | 09 | | 8 |
| 10 | | 주일 | 10 | | 15 | 10 | | 9 |
| 11 | | 92-97 | 11 | | 16 | 11 | | 주일 |
| 12 | | 98-102 | 12 | | 17-18 | 12 | | 10 |
| 13 | | 103-104 | 13 | | 19 | 13 | | 11 |
| 14 | | 105 | 14 | | 주일 | 14 | | 12 |
| 15 | | 106 | 15 | | 20 | 15 | | 13 |
| 16 | | 107-108 | 16 | | 21 | 16 | | 14 |
| 17 | | 주일 | 17 | | 22 | 17 | | 15 |
| 18 | | 109-112 | 18 | | 23-24 | 18 | | 주일 |
| 19 | | 113-118 | 19 | | 25 | 19 | | 16 |
| 20 | | 119:1-56 | 20 | | 26 | 20 | 고린도후서 | 1-2 |
| 21 | | 119:57-112 | 21 | | 주일 | 21 | | 3 |
| 22 | | 119:113-176 | 22 | | 27 | 22 | | 4:1-5:10 |
| 23 | | 120-125 | 23 | | 28 | 23 | | 5:11-7:1 |
| 24 | | 주일 | 24 | | 29 | 24 | | 7:2-16 |
| 25 | | 126-132 | 25 | | 30 | 25 | | 주일 |
| 26 | | 133-137 | 26 | | 31 | 26 | | 8-9 |
| 27 | | 138-140 | 27 | | 32 | 27 | | 10 |
| 28 | | 141-143 | 28 | | 주일 | 28 | | 11 |
| 29 | | 141-143 | 29 | | 33 | 29 | | 12 |
| 30 | | 144-146 | 30 | | 34-35 | 30 | | 13 |
| 31 | | 147-150 | 31 | | 36 | | | |

| 2022/10 | | | 2022/11 | | | 2022/12 | | |
|---------|-------|---------|---------|-------|---------|---------|-------|---------|
| Day | Bible | Chapter | Day | Bible | Chapter | Day | Bible | Chapter |
| 01 | 신명기 | 1 | 01 | 여호수아 | 1 | 01 | 마태복음 | 3-4 |
| 02 | | 주일 | 02 | | 2 | 02 | | 5 |
| 03 | | 2 | 03 | | 3 | 03 | | 6 |
| 04 | | 3 | 04 | | 4 | 04 | | 주일 |
| 05 | | 4 | 05 | | 5 | 05 | | 7 |
| 06 | | 5-6 | 06 | | 주일 | 06 | | 8 |
| 07 | | 7-8 | 07 | | 6 | 07 | | 9 |
| 08 | | 9 | 08 | | 7 | 08 | | 10 |
| 09 | | 주일 | 09 | | 8 | 09 | | 11 |
| 10 | | 10-11 | 10 | | 9 | 10 | | 12 |
| 11 | | 12 | 11 | | 10 | 11 | | 주일 |
| 12 | | 13-14 | 12 | | 11 | 12 | | 13 |
| 13 | | 15 | 13 | | 주일 | 13 | | 14 |
| 14 | | 16-17 | 14 | | 12 | 14 | | 15 |
| 15 | | 18 | 15 | | 13 | 15 | | 16 |
| 16 | | 주일 | 16 | | 14 | 16 | | 17 |
| 17 | | 19-20 | 17 | | 15 | 17 | | 18 |
| 18 | | 21 | 18 | | 16-17 | 18 | | 주일 |
| 19 | | 22 | 19 | | 18 | 19 | | 19 |
| 20 | | 23 | 20 | | 주일 | 20 | | 20 |
| 21 | | 24-25 | 21 | | 19 | 21 | | 21 |
| 22 | | 26 | 22 | | 20 | 22 | | 22 |
| 23 | | 주일 | 23 | | 21 | 23 | | 1 |
| 24 | | 27 | 24 | | 22 | 24 | | 2 |
| 25 | | 28 | 25 | | 23 | 25 | 성탄절 | 주일 |
| 26 | | 29 | 26 | | 24 | 26 | | 23 |
| 27 | | 30 | 27 | | 주일 | 27 | | 24 |
| 28 | | 31 | 28 | 요엘 | 1 | 28 | | 25 |
| 29 | | 32 | 29 | | 2 | 29 | | 26 |
| 30 | | 주일 | 30 | | 3 | 30 | | 27 |
| 31 | | 33-34 | | | | 31 | | 28 |



교회를 세우는 느헤미야운동

Nehemiah Project P.O. Box 5553, Englewood, NJ 07631

 ❖ 이메일
 kumcdevotion@gmail.com

 ❖ 발행인
 류재덕(연합감리교회 한인 총회장)

 ❖ 운영위원장
 이성현(한인총회 느헤미야 운동)

 ❖ 편집인
 류계환(한인총회 선교총무)

 ㆍ 편집기회
 김종완(느헤미야 운동)

❖ 영어번역 양훈, 박길재, 김종완, Ester Kim

❖목회자기획위원 김진우, 박호현, 방승호, 배연택, 배혁, 조기현, 조선형

이보영, 유혁재, 차세진

❖ 평신도 편집위원
 ☆ 편집문의
 ☆ 면집문의
 kumcdevotion@gmail.com

❖ 배송/결제문의 salesusa@hosanna.net / 562-944-5344(호산나미디어)

함께 하신 분들

❖ 언덕 위의 소리(Voices from The Hill) / 소그룹 모임 교재 조선형 목사 (시카고예수사랑감리교회, L)

❖ 주일 칼럼

김영봉 목사 (와싱턴 사귐의교회, VA) 왕태건 목사 (갈보리연합감리교회, NJ) 김웅태 목사 (주님의 교회, NY) 장재웅 목사 (하늘 비전 교회, MD)

- The ESV® Bible (The Holy Bible, English Standard Version®) copyright® 2001 by Crossway, a publishing ministry of Good News Publishers. ESV® Text Edition: 2011. The ESV® text has been reproduced in cooperation with and by permission of Good News Publishers. Unauthorized reproduction of this publication is prohibited. All rights reserved.
 - The Holy Bible, English Standard Version®, is adapted from the Revised Standard Version of the Bible, copyright Division of Christian Education of the National Council of the Churches of Christ in the U.S.A. All rights reserved
- Illustrations by Swiss artist and storyteller Annie Vallotton, as taken from the Good News Translation@1976,1992 American Bible Society. Used by permission.
- 본서에 사용한 성경전서 개역개정의 저작권은 재단법인 대한성서공회 소유로서 허락을 받고 사용했습니다.
- Copyright by HOSANNA & OneBody
- 구독변경 및 신청문의 salesusa@hosanna.net